



8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 시각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아버님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뜻하지 않게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온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가장 어려운 민족수난의 시기부터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의 천재이시였으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끝없이 존경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고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써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 주체의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불러일으키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시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창조의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우리 식의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으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어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실현으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인류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빨려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비상이 높였으며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험산준령을 넘으시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승리의 한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령도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생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로지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계속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와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 당의 세련된 정도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정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여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여 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조 선 로 동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김 정 일 동 지

오진우동지	김창주동지	정준기동지	김룡운동지	주창준동지	김성구동지	김중협동지
강성산동지	김윤혁동지	황순희동지	강동운동지	김국훈동지	오성렬동지	채형식동지
리종옥동지	장철동지	신상균동지	박기서동지	조세웅동지	최기룡동지	림상종동지
박성철동지	공진태동지	김기룡동지	한인술동지	차용진동지	리재운동지	리성복동지
김영주동지	윤기복동지	강현수동지	김하규동지	주규창동지	윤기정동지	리화선동지
김병식동지	전문섭동지	방승일동지	남상락동지	김운상동지	김수확동지	홍인범동지
최광동지	류미영동지	김학봉동지	현철해동지	김희일동지	리룡섭동지	기철명동지
계응태동지	현준극동지	백범수동지	김병률동지	최만현동지	박명철동지	길재경동지
전병호동지	원동구동지	최문선동지	주성일동지	럼태준동지	채규빈동지	박봉주동지
한성룡동지	리하일동지	림형구동지	최룡해동지	럼재만동지	정성택동지	김유순동지
서윤석동지	김익현동지	리근모동지	최성숙동지	변창복동지	김정숙동지	김재봉동지
김철만동지	리창선동지	현철규동지	백인준동지	최인덕동지	리병옥동지	박중국동지
최태복동지	오국렬동지	리길송동지	리몽호동지	태병렬동지	정창렬동지	고정식동지
최영림동지	김경희동지	림수만동지	문성술동지	주길본동지	김대식동지	강순희동지
홍성남동지	강석승동지	리을설동지	염기순동지	윤호석동지	전재선동지	리량숙동지
강희원동지	채희정동지	김봉률동지	리용철동지	홍시학동지	려춘석동지	장국찬동지
양형섭동지	로명근동지	김광진동지	김시학동지	최진성동지	김성규동지	최상열동지
홍석형동지	전하철동지	김정각동지	김충일동지	정철동지	정호균동지	백세운동지
연형묵동지	김두남동지	오룡방동지	박송봉동지	허극성동지	려병남동지	옥봉린동지
리선실동지	백학림동지	김명국동지	강관주동지	리두익동지	리원재동지	김룡연동지
김철수동지	지창익동지	김격식동지	김영채동지	리성대동지	주승남동지	정송남동지
김기남동지	리용무동지	장성우동지	홍성룡동지	김응상동지	원명균동지	리영균동지
김국태동지	리지찬동지	전진수동지	조순백동지	김원진동지	백상호동지	임록재동지
김중린동지	최복연동지	주상성동지	유정숙동지	김리룡동지	김복문동지	려연구동지
서관희동지	김창호동지	김영춘동지	전희정동지	박범기동지	리태철동지	신진순동지
김용순동지	리석동지	조명록동지	김영룡동지	김세영동지	박재경동지	김락희동지
김환동지	박용석동지	김일철동지	강석주동지	박원현동지	림동옥동지	조창덕동지
김복신동지	리철봉동지	백창식동지	손성필동지	김학섭동지	리봉익동지	허순동지

황석규동지	김운우동지	박시형동지	윤 서동지	최치선동지	임정상동지	박관오동지
박수범동지	김병팔동지	리학섭동지	김세운동지	김태극동지	리호형동지	최광렬동지
김상호동지	박영식동지	김광수동지	신경식동지	최희정동지	리종주동지	전주남동지
신태록동지	허민선동지	리대세동지	정두환동지	김평길동지	최종건동지	김병훈동지
김형묵동지	최병호동지	리동성동지	한영호동지	리춘석동지	박용남동지	강영섭동지
리원관동지	한규팔동지	김용삼동지	한윤창동지	김길연동지	김성환동지	
박영찬동지	최현기동지	백설희동지	한태용동지	조윤희동지	김치덕동지	
김주호동지	리현호동지	곽영호동지	맹태호동지	리백학동지	신일남동지	
최명철동지	백은순동지	리락빈동지	송금순동지	최원익동지	김성형동지	
리윤희동지	전영훈동지	김웅철동지	김천필동지	정문산동지	리지수동지	

국가장의위원회 공보

전당, 전국, 전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가장 심심한 애도와 뜻을 표하며 깊은 경모의 마음으로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린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를 금수산의사당에 정중히 안치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추모하여 199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며 1994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사이에 조객들을 맞이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결하는 추도대회를 1994년 7월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한다.
평양시에서 추도대회가 거행되는 시각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추모하여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들에서 조포를 쏘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1분동안 묵도를 하며 모든 기관차, 선박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울린다.
4.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추도행사를 진행하며 평양시에서 추도대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각 도, 시, 군들에서 추도식을 진행한다.
5. 애도기간에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조기를 띄우며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한다.

1994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질병과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결론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시였다.

겹쌓이는 정신적인 과로로 하여 19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였다.

즉시에 모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쇼크가 증악되어 1994년 7월 8일 2시에 사망하시였다.

1994년 7월 9일에 진행한 병리해부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였다.

1994년 7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 엄숙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온 나라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는가운데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총리인 강성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들인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김영주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병식부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겸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서운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들인 최영림동지, 홍성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서관희동지, 김용순동지, 정무원 부총리들인 김환동지, 김복신동지, 김창주동지, 김윤혁동지, 장철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윤기복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전문섭동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조의식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참가하였다.

조의식장인 금수산의사당은 엄숙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는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어있었으며 붉은 기폭에 덮여있었다.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끝없이 존경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며 근엄하시였다.

령구앞에는 80여성상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여 우리 인민이 올린 공화국영웅 및 로력영웅 메달들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명의로 된 화환을 비롯한 많은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옆에는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인민군 룡해공군명예위병대가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의 천재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 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전에 목상하시였으며 수령님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경애하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조의참가자들은 너무도 애석하고 너무도 절통하여 가슴치며 흐느껴울면서 령구걸을 떠날줄 몰랐다.

조의참가자들은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밑에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이며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평양 시내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평양 시내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를 다시 찾으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효모의 정을 안고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금수산의사당 조의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는 향기그윽한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어있었으며 그앞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우리 인민이 올린 공화국영웅 및 로력영웅 메달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명의로 된 화환을 비롯한 많은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국가 령도자들이 보내여온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옆에는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인민군 룡해공군명예위병대가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수천년 령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8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조국의 현대력사를 빛나게 개척하시이고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일대 룡성과 번영의 새 시대로 이끌어주신 탁월한 령도자이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 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전에 목상하시였으며 수령님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조의방문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와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것이 너무도 애석하고 절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목놓아 부르면서 오래도록 령구결을 떠나지 못하였다.

조의참가자들은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뚫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킴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의방문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의 조의대표단과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강일위원회장,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재미교포 녀류기자 문명자, 도이쉴란드 윈스터종합대학 교수이며 박사인 송두률교포, 금강산국제그룹 박경윤회장,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양영동의장,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최기환의장, 재미교포 흥동근목사, 범민련 캐나다지역본부 전총림의장일행, 재미교포 김진경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인 리중옥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계응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김용순동지, 정무원부총리 김환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전문섭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해외교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담아 삼가 위문을 표하고 **김정일**원수님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모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 쓰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해외동포들과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국가장의위원회 공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형언할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련일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전과 동상을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가 정중히 안치되어있는 금수산의사당에는 수도의 시민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각계층 인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조의를 표시하고있으며 조의참가자들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국가장의위원회는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도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린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찾아오는 조객들을 1994년 7월 18일까지 계속 맞이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내려우는 영결식을 1994년 7월 19일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거행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추도대회는 7월 20일에 진행한다.

1994년 7월 1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의방문에 참가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고 령구옆에 호상을 서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을 조의방문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일행, 항일혁명투사 서순옥가족일행, 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일행, 상월선생의 자녀일행, 풍중운의 자녀일행, 장울화동지의 동생 장울민일행과 해외동포 조의대표단과 조객들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 제2차로 조국에 온 총련의 조의대표단, 범민련 사무총장인 해외본부 립민식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범민련 해외본부 부의장인 일본지역본부 량동민의장을 단원으로 하는 범민련 해외본부조의대표단, 범민련 미국본부 선우학원고문, 조국통일북미주협회 최정렬고문, 조국통일해외기독자회 리영빈회장과 김순환총무, 범민련 미국본부 유태영공동의장, 범민련 미국본부 양은식상임의장,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최건국중앙위원, 국제태권도련맹 사무국장인 조국통일 위싱턴련합회 조대성회장, 조국통일북미주협회 전순래사무국장, 미국자주사상연구소 김현환부장, 재일상기업가 손달원의 아들일행이 참가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화환들을 진정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룡성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금치 못하면서 령구를 돌아보았다.

이어 조의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담아 위문을 표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평양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추도대회가 진행되는 1994년 7월 20일 낮 12시 정각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3분동안 묵도를 하며 기관차, 선박(항해중에 있는 선박 포함) 등 고동을 울릴수 있는 모든 단위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울린다.

1994년 7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 엄숙히 거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19일 엄숙히 거행되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결의 시각을 앞둔 금수산의사당은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령구발인에 앞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전에 목상하시교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총리인 강성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들인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김영주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병식부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계응태동지, 전병호동지, 한성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겸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서운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들인 최영림동지, 홍성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서관희동지, 김용순동지, 정무원부총리들인 김환동지, 김복신동지, 김창주동지, 김윤혁동지, 장철동지, 공진태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윤기복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전문섭동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과 그밖의 장의위원회 위원들이 영결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과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이 참가하였다.

영결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룡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가 서서히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룡해공군명에위병대 대장이 영결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령구차는 수령님께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와 룡해공군의장대앞을 지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차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와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의 배동하에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기 위하여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운집해있는 연도로 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차행렬은 룡홍네거리로부터 혁신거리, 영웅거리, 천리마거리, 통일거리, 청년거리와 평양산원, 평양학생소년궁전 앞거리를 거쳐 **김일성** 광장, 평양대극장, 승리거리, 개선문거리에 이르는 100여리 연도를 누버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에 가슴치며 목메여 흐느끼는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령구가 안치될 장소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룡해공군명에위병대 대장이 영결의 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되고 조선인민군 룡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마지막영결의 시각을 앞두고 령구에 엄숙히 경례를 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추모하여 명예위병대가 24발의 조포와 조총을 쏘았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구를 우러러 조선인민군 룡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추도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7천만 조선민족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형언할수 없는 슬픔과 비애를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동서방을 막론한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당 및 국가 령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민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곁출한 위인을 잃은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있으며 높은 경모심을 안고 우리 인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있다.

7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전례없는 규모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추도대회가 거행되는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 **김일성**경기장, 개선문광장, 전승광장, 역전광장 등 시내의 광장들과 경기장, 학교운동장들은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불행을 안고 가슴을 치며 모여온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남녀로소 수백만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추도대회장은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여성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곁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로이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과 절통감에 잠겨있었다.

추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여온 각계층 인민들은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이며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굳은 맹세를 다지며 대회시작을 엄숙히 기다리고있었다.

김일성광장 주석단정면에는 검은테를 두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광장국기계양대에는 조기들이 띄워져있었다.

광장양옆 고층건물벽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

한 혁명업적은 천년만년 길이 빛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오전 10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총리인 강성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들인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김영주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병식부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계응태동지, 전병호동지, 한성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서운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들인 최영림동지, 홍성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홍석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연형목동지,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리을설동지, 최인덕동지, 백학림동지, 김봉률동지, 김광진동지, 김익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서관희동지, 김용순동지, 정무원부총리들인 김환동지, 김복신동지, 김창주동지, 김운혁동지, 장철동지, 공진태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윤기복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인 전문섭동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과 그밖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과 허종만책임부의장, 최병조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주석단에는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재미교포 손원태선생, 진퇴일행, 항일혁명투사 서순옥, 리재덕, 장올화동지의 아들 장금천, 그리고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강일,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 범민련 사무총장인 해외본부 사무국장 림민식, 범민련 해외본부 부의장인 일본지역본부 의장 량동만, 범민련 미국본부 고문 선우학원, 세계평화련합 공동의장이며 세계평화수뇌자협회 회장인 박보희, 재미교포 녀류기자 문명자,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박경운, 도이칠란드 뮌스터종합대학 교수 박사 송두를,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양영동, 범민련 캐나다지역본부 의장 전충림, 조국통일해외기독교회 회장 리영빈, 범민련 미국본부 공동의장 유태영, 범민련 미국본부 상임의장 양은식,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의장 최기환,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최건국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 해외교포인사들,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가 나왔다.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리정상대표가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계 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영웅들과 애국렬사유가족들, 평양시와 구역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항일혁명투쟁연고들과 총련의 조의대표단, 해외교포인사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초대석에는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의 벗들과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사절들이 자리잡고있었다. 광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추도대회시작을 선언하였다.

목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추도대회 참가자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우리의 아버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추모하여 목도하였다.

추도대회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추도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인 김영남동지가 하였다.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로력영웅 조영기,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로력영웅 김명연, 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김광진 차수, 해외동포들을 대표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이 연설하였다.

광장주석단가운데 정중히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르는 추도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심정에 차넘쳐있었다.

추도대회가 진행되는 광장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54년 8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붉은 천을 꿇으시어 그 준공을 내외에 선포하신 력사의 광장이다.

광장에서는 준공후 3일만에 있는 8.15해방 9돐경축 열병식과 30만 군중의 대행진으로부터 1990년대의 전승 40돐경축 열병식과 100만 군중시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수많은 진행되었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장주석단에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손을 드시어 답례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태양처럼 빛나던 광장, 수령님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기상이 세차게 굽이치던 력사의 광장에서 오늘과 같은 추도대회가 진행될줄이야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 인류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력사의 광장주석단에서 것처럼 자애롭고 거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두번다시 뵈옵지 못하게 된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우리 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천지의 푸른 물도 비통함을 금치 못해 몸부림치며 격랑을 일으키고있다.

광장에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더욱 역세게 전진하려는 혁명적기상이 차넘치는가운데 연설들이 끝나자 **《인터나쇼날》**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포가 발사되고 고동이 길게 울리였다.

순간, 주체의 조국은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 잠기였다.

추도대회가 진행된 오늘 낮 12시 정각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이 3분동안 목도하였으며 모든 기관차, 선박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길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장은 비록 멎었으나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며 주체의 태양으로 억만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추도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평생의 로고를 다하여 마련해주신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혁명무력을 철통같이 다지며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아침저녁 만수무강을 빌며
운명을 다 맡기고산
술한 자식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숫구치는 슬픔을 눈물의 덩어리로 쏟으며
-수령님! 수령님!
아버지없이 우리 어이 살랍니까!
땅을 치며 몸부림치는 자식들의 곡성을 남겨놓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평생을 인민위해 인민속에 계시며
인민을 떠나서는 못사신다 늘 말씀하시며
어제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꿈이 아닙니까 정녕 이것이 꿈이라면
하늘도 벼락을 쳐서 이 꿈을 왜 깨우지 못합니까

그렇게도 밝으신 웃음 세상에 없었습니다
환히 웃으시면 하늘의 해도 무색해지더니
그렇게도 자애로운 음성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번 울리면 동지절달 강얼음도 녹아내리더니
이제는 그 모든것 우리 영영 잃었던말입니까

이날까지 우리 살아오며
태양의 수명을 계산해본적없듯이
우리 아버지의 생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생각해본적 없었습니다
수령님의 저 해님처럼 하늘처럼
영원무궁하리라고만 믿어왔습니다

그 무엇이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백발을 얹으며 흘러가는
세월타이라면
민심도 모르고 천심도 모르는
세월이 무심합니다

잠시나마 일손을 놓으시고
편히 계신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다해도
우리 가슴 이토록 아프지 않을것입니다
태양이 자기를 다 태워

만물에 빛과 열을 주듯이
생의 마지막날까지
밤늦도록 일군들과 마주앉아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렸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신
수령님

학생들에게 교복을 다 해입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것이 너무도 반가우시여 일군들의 손을 잡으시고
좋은 일을 했다고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아, 누가 올려야 할 감사인데
오히려 수령님께서 사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민을 위하시며 그렇게 가셨습니다

못가십니다, 수령님
그렇게는 못가십니다
낮설은 타향만리에 부모님들을 다 묻으시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청춘을 다 바치시며
찾아주신 이 조국을 두시고
한생을 품에 안아 키워주신 이 인민을 두시고
이 락원을 두시고
수령님 어디로 가신단말입니까

풍년든 가을날엔 다시 오겠다고
씨뿌리는 봄날에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시고
떨어지기 아쉬워 발버둥치는 아이들에게
다음해 설날에 또 만나자고
기념사진도 또 찍자시던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시고
수령님 영영 가신단말입니까

수령님 계시기에 우리 사는 나라는 비록 작지만
세상에 제일 뽕뽕이 머리를 든 큰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혁명처럼 간고한 혁명은 없지만
수령님 계시기에
몸이 찢기고 피가 나도 아픈줄 모르고
헤쳐왔습니다

우리 살림 어렵던 때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수령님을 쳐다보며 힘을 얻어 참고 견디었고
분열된 민족의 고통은 형언할길 없었던만
통일의 그날을 믿으며 살아왔고
세계에 때아닌 동란이 일어
사회주의가 곡절을 겪고있지만
수령님 계시기에
태일엔 붉은기발이 지구를 덮을
그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혁명을 지켜왔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왜 이리 눈앞이 캄캄합니까
이날까지 머리우에 이고산 하늘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도 밝게 빛나던 태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단군 이래 반만년 민족사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었습니까
유구한 인류사에 이런 큰 손실이 있었습니까

수령님의 뜻으로 흘러온
력사도 비통하여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불변의 법칙으로 무한의 공간을 달리던
우주의 시간도 정지했습니다
인류의 위인 혁명의 위대한 로장을 잃어
지구가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엔 믿을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심장이 멎을수 있습니까
피어린 전장터를 수없이 누벼오셨건만
원췌의 총탄도 두려워 피하던 강철의 그 심장이
하늘땅이 뒤집혀도 변색을 모르는 붉은빛을
우리 당 기발에 물들여준 열렬한 그 심장이
어떻게 멎을수 있습니까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부실
백전백승의 총검을 버려낸 무적의 그 심장이

아닙니다, 수령님은 절대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수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식들이 가는 길이 어둡지 말라고
길을 잃고 헤매이지 말라고
드림없이 곧바로 가라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세워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도없는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라고
그것을 못지켜 조국잃은 교아로 되지 말라고

자분의 노예로 천대받지 말라고
우리의 하늘을 주고계십니다
우리의 태양을 주고계십니다
양양한 미래를 주고계십니다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 충성을 다하라고
이 시각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계십니다
수령님 알겠습니다
목숨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겠습니다
아버이를 잃고 온 나라 인민이
목놓아 오열을 터뜨리며 흘리는
오늘의 이 눈물은
일심단결로 더 역세여지는 맹세입니다

슬픔과 눈물을 불길로 태워
우리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어제날 우리 당의 두리에 강철로 몽쳤다던
오늘은 강철도 다스리는 금강석처럼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혼연일체로 더 굳게 뭉쳐
수령님 다져주신 만년토대우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주체의 이 장엄한 진군길우에
쌓으신 업적과 함께, 계승되는 위업과 함께
수령님은 영생하십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이어가시는 그 자욱과 함께
풍년든 별판, 자동화의 구내길에, 아이들의 궁전에
수령님의 자욱은 끝없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그 자애로운 음성과 함께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시며
수령님의 음성은 인민의 가슴속에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7 천만이 환호할
통일의 광장에도 높이 울릴것입니다

아, **김일성 김정일**은 하나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된 21 세기의 창공에
영광의 기치로 찬란히 나뭇길것입니다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함께
인류와 함께
세기와 더불어
불멸할것입니다
영생할것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삶의 영원한 태양

5천년력사국에 전무후무한 슬픔의 그늘이 무겁게 드리웠다. 가장 큰 비애의 바다가 끝간데없이 펼쳐졌다.

민족과 인류가 영생불멸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그렇게도 갑자기 우리결을 떠나실줄이야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한들 이보다 더한 청천벽력이 또 있으랴.

겨레의 가슴에 사무치는 절통감, 뼈를 도려내는 상실의 아픔을 누를길 없어 하늘땅도 비분에 떨고 산천초목도 흐느끼며 몸부림친다.

통곡과 눈물이 격파로 솟구쳐 휘뿌려지는 연도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영결하는 우리모두의 심장은 같기같이 찢어지는것 같아 옷자락과 머리만 절망적으로 쥐어뜯고있었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만면에 해빛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슬픔과 비애의 바다우를 생전의 모습으로 지나오시는것이 아닌가!

순간 100리연도는 처절한 곡성으로 뚫어번지었다.

《수령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먼저 가시면 우린 어찌하렵니까?》

비통하여 목메인 부르짖음, 너무도 억이 막혀 도간도간 끊기우는 통곡소리, 울다 그대로 혼절하여 나동그라지는 시민들...

금시라도 가시던 길을 되돌아서실듯싶은 한없이 인자하신 그 모습! 야속하게도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차는 그냥 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고계시었다. 파란만장의 세기와 더불어 인민들과 떨어질수 없는 인연을 맺으시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던 그이께서 우리들 한사람한사람을 다 만나시여 부디 잘 있으라고 언제나 승리자로 살며 자자손손 행복하라고 당부하시는듯 축복의 환한 미소를 이 강산에 뿌려주신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웃고계시었다. 그 밝고 자애로운 미소로 통곡하는 우리를 한품에 안으시며 따뜻이 쓰다듬고계시었다. 생전에 그토록 우리 인민 모두에게 행복과 사랑만을 안겨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만민을 그 따뜻한 품에 안아키우시던 태양의 미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지막작별의 연도에서도 이처럼 환히 웃고계시니 우리의 가슴은 몇갑절 더 쓰라리고 솟구치는 눈물은 구천에 사무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슬픈 행렬을 이룬 연도를 지나가시었다. 수백만 우리 인민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그리고 당의 참된 문예전사들과 작별하시며 사연많고 추억많은 평양의 거리들을 떠나가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오시었다.》

생전의 어느 한순간이나마 시름없이 계시고 어느 하루라도 맘편히 휴식하셨더라면 우리의 가슴이 이렇듯 미여지고 찢기듯 아프지 않을것이였다.

돌이켜보면 10대의 어리신 몸으로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세월의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조국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그이는 인간을 위한, 인민을 위한, 전인류를 위한 사랑의 위업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솟아오르셨다가 자신의 모든것, 빛과 열의 총체인 한평생을 다 바치시고 우리결을 떠나신 위대한 태양이시었다.

생의 마지막순간마저도 그이께서는 민족과 인류의 머리우에 드리운 참화의 검은 구름을 밀어제끼시고 우리 인민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었다.

《수령님, 우리를 두고 정녕 가시렵니까?》

《아버지대원수님,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더 큰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연석에 머리를 짓조으며 땅을 치는 로인들, 금방이라도 달려가 안길듯 발을 동동 구르며 애절하게 웨치는 어린이들...

아, 천지만물이 생겨난 이래 이러한 슬픔, 이러한 비애의 몸부림이 있었던가. 하늘도 오열에 떨며 눈물을 휘뿌리는 조선이여.

이것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만이 아닌 인류의 슬픔과 비애였다.

《세계는 전설적인 위인을 잃었다.》

《국제혁명운동은 위대한 보루를 잃었다.》

《과란많은 력사의 흐름속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지구촌의 곳곳에 조기들이 숲을 이루었고 비장한 애도곡들이 태양과 대륙들에 차고넘치였다. 온 세상이 통곡속에 잠겨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분을 잃었는가, 우주를 통채로 준다 한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손실과 슬픔을 보상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강산의 수목도 흐느끼고 세계가 곡성을 터뜨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현대인류사에 미증유의 거대하고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록 우리결을 떠나셨으나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영상으로 소중히 간직되었다. 수령님의 모습은 날로 발전풍부화되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그이께서 이 땅에 안아오시고 꽃피워주신 혁명의 전취물에, 그이께서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수억만리 현지지도의 길우에, 그이께서 열어주신 창창한 미래에 그리고 온 우주에 짝 차계신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결을 떠나지 않으시였다. 우리의 사업과 생활, 우리의 혁명과 건설,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높은곳에서 굽어살피시고 승리에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을 어디서나 뵈고있으며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며 그 현명한 가르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인다.

조선은 슬픔과 비애를 누르고 거연히 일떠섰다. 대안의 로동계급들, 청산리의 농장원들, 먼바다어로공들이 피보다 진한 눈물을 영결식장에 뿌리고 초소로 달려갔다. 수령님의 유혼을 심장으로 새긴 작가, 예술인들이 발전소와 야금기지로, 비료공장과 조선소들에 배낭을 지고 떠나갔다.

조선은 슬픔과 비애를 힘과 용기로 바꾸었다.

우리는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다. 시대의 걸출한 영웅이시며 통일조국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더욱 일심단결하여 우리에게 가장 높은 존엄과 영예,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영원히 충실하리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 충성을 다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모두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유훈이다.

우리는 환하게 웃으시며 인민들과 작별하신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오늘도 래일에도 영원히 심장속에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이시자 곧 향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이 땅에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기어이 앞당겨올것이다.

[본사편집부]

새로운 맹세

백인준

흐느끼며 통곡하면서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루에도 몇번 몇십번
되풀이되풀이 부정만 하다가

사실이였구나
수령님 돌아가신것 사실이였구나
엄연한 현실이 번개같이 뇌리를 칠 때
눈물도 순식간에 마르고 오열도 푹 멎으며-

(그러면 어디로 가셨나?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를 두시고
그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만경대에라도?... 혹시 백두산에라도?...)

그러자 몇었던 눈물 새로이 뜨거워지고
온 심장을 터치며 더욱 북받치는 흐느낌
(그러면 세상에 신이라도 있단 말인가?
인간에게 운명이란것이 있단 말인가?...)

약해지는 마음 체념의 밑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할 때
문득 벽에 모신 초상화 우러러보니
《나 여기 있소. **김정일**동지와 함께.
내 어디로 가겠소. 동무들을 두고...》

그렇다! 명백해졌다 모든것!
김정일동지 높이 모시고 나가는 길에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그시 지그시 굳어져오르는 새로운 맹세여!

태양은 여전히 빛난다

최영화

우리 수령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세월이 끝난다 해도 생각할수 없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하늘도 눈물의 소낙비를 쏟으며 옵니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신데
어찌 하늘인들 울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강산이 눈물바다에 잠겼습니다
온 나라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인민의 곡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세기를 흘러온 세월도 울고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늘이
어떻게 맑아지고 푸르려진 하늘입니까
어떻게 일제의 죄사슬에서 해방되고
세상에 더없는 행복과 존엄을 누린 인민입니까
우리 세월이
어떻게 영광속에 흘러온 세월입니까

세기와 더불어 장장 80 여성장
오로지 인민의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낮설은 만주광야의 거치른 황토길과
백두밀림의 피어린 눈보라길
수천수만갈래로 뻗은
조국땅의 모든 들길과 령길을
하루도 쉬심이 없이 걷고 또 걸으시며
그 길에 내리는 눈비와 부는 바람을 다 맞으신
우리 수령님

한생을 로고속에 살아오시며
끊임없이 베풀어주신 《이민위천》의 사랑
끝도 넓이도 깊이도 헤아릴것없는
수령님의 그 은덕을 목메여 생각하면
아, 써서는 안되고 쓸수도 없는

이 슬프고 슬픈 시를
눈물의 붓을 들어 쓰지 않으면 아니되는
저의 심장과 온몸은 터지는것만 같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조국통일의 성업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수수만리의 싸움길과 불속을 헤치시며
일미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태양을 건느시며 대륙을 넘으시며
자주의 새 세계를 개척하여오신
수령님의 한평생을 생각하는 비통함에
아, 딛고 선 땅도 꺼져내리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민의 심장이고
겨레의 심장이고
인류의 심장인
그 위대한 인간애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지 않았습시다
수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영채로우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속에
수령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오늘의 이 슬픔을
지구를 움직이는 태양의 큰 힘으로 누르며
김정일동지를
억천만배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억천만배 더 굳게 성새로 뭉쳐
그이만을 따라
주체위업의 한길로 내쳐 달려나가리니

우리의 머리우에서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있습니다
수령님의 모습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가 태양으로 빛나고계십니다

《…우리의 수령님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김정일

영생하리라!

그날은 보통 로동일이었습니다. 수도의 시민들은 아침일찍부터 행복과 희망에 넘쳐 무궤도전차로 혹은 궤도전차로 혹은 지하철도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거리, 어느 광장, 어느 대통로, 어느 골목길에서나 생기에 넘친 사람들의 숨결이 굽이쳐 흘렀습니다.

저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제시간에 출근하여 모든 조건이 구비된 아담한 창작실에서 이미 써오던 장편소설의 새 절을 쓰다가 학습에 참가하였습니다.

누구인가 방에 들어와 12시정각에 텔레비존에서 중대방송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행복에 습관된 사람들중에는 아마 전체 인민들에게 알려야 될 기쁜 소식이 있는 모양이라고 추측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몇순간뒤에 심장이 멎고 우주가 멎어서는듯한 비보를 들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민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비보를 듣는 순간 모두 믿어지지 않아, 믿을래야 믿을수 없어 눈물을 터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멎고 지구의 자전이 멎어버린듯한 난생 처음으로 체험하는 무섭고 몸서리쳐지는 적막… 울음소리를 낸다는것은 믿을래야 믿을수 없고, 믿어서는 안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것으로 되기에 입들을 틀어막고 몸부림쳤습니다. 방송원이 장의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비분이 폭발되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방바닥을 구르고 서로 불안고 목이 터지도록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하늘이 허물어지고 땅이 꺼져내리는것 같았습니다. 해가 없어진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빛이 사라져 모든것의 형체가 느껴지는듯하면서도 가려볼수 없는 암흑… 그속에서 저는 얼마전에 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접견하셨는데…

그리고 온천과 대성의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셨는데… 하고 났없이 종얼거렸지만 터져오르는 통곡소리들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위대한 수령의 별세가 사실임을 말해주었습니다. 머리를 싸쥐고 몸부림쳐 봐도, 가슴을 부여잡아 비틀어봐도 청천벽력같은 그 비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철리로 수놓아진 수백권의 저술을 남기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우리 민족, 온 인류를 자주적의 길,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길로 이끄시려고 한평생 쉬임없이 사색해오신 천재적인 두뇌가 사색하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간애와 민족애, 인류애로 태양처럼 불타던 거인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고 식어졌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구인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만년의 민족사에 우리 인민이 이런 상실을 당하고 이런 타격을 받은 일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의 걸출한 수령, 원로를 잃은 세계 진보적인류도 헤아릴수 없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날 누가 부르지도 시키지도 않았건만 사람들은 비통함과 절통함을 참을길 없어 거리로 하얗게 펼쳐나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으로 구름처럼 달려갔습니다. 옥류교와 대동교, 광장, 십자로, 강안유보도… 어디에나 비감에 잠긴 사람들의 물결이 소리없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비분의 대하였습시다.

만수대언덕은 인산인해로 뒤덮였습니다. 저도 동무들과 함께 사람들의 흐름속에 끼여 화강석층계를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갔습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은 피눈물과 통곡의 수라장이었습니다. 폐식을 차려 정중한 목도로 조의를 표하는 조객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수백명씩 동상의 대석앞으로 달려와서는 엎드려 목놓아 울었습니

다.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흐느껴우는 소녀들, 가슴을 치고 땅을 허비며 통곡하는 청년들과 장정들, 화강석바닥에 이마를 박고 엎드렸다가 거듭거듭 절을 올리며 오열을 터뜨리는 녀인들 눈물이 비오듯하는 얼굴을 쳐들어 동상을 우리러 쳐다보며 《할아버지-》하고 부르짖는 소년, 뒤따라 터져오르는 울음 섞인 함성들.

《아버지!-》

《수령님!》

한 할머니는 두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정신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수령님- 우리 인민이 살아있는데 가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같은 건 가지 않고- 수령님께서 가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던 심정을 담아 제사를 차려가지고 와서 술을 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붓고 절한 다음 어린것들이 차례로 붓고 절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생존시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심려만 끼쳐드렸다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사람, 써가지고 온 맹세문을 펼쳐들고 수령님께서 바라신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겠다고 맹세다지는 사람... 비분을 이기지 못해 졸도하여 엎혀나가는 녀성들도 있었습니다. 동상에서 좀 떨어진 숲속에 전개한 구급소걸 잔디밭에 십여명의 사람들이 누워있었습니다. 구급처치를 받고 피어난 그들속에는 7월 7일 밤중부터 8일 새날이 밝을 때까지 하늘에서 우뢰가 울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수령님은 하늘이 낸 귀인이어서 하늘도 너무 비통하여 울부짖으며 대지에 눈물을 뿌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이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았던 가지가지 사랑에 대하여 눈물이 그렁하여 쏟아내리는 녀인도 있었습니다.

인민들은 모두 어버이수령님을 자신과 가정의 친아버지로 믿고 따랐으며 친부모도 주지 못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기때문에 그토록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지난날의 회억들이 솟구쳐올라 오열을 참을길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참으로 우리 주체문화의 어버이시고 스승이시었습니다.

우리 문학과 작가들은 모두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의 나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히 창작하시어 우리 혁명문학의 전통을 마련해주셨으며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세계문학과 우리 민족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견해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거듭거듭 주시어 우리 현대문학을 주체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많은 작가들의 창작과 생활을 보살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리기영, 조기천, 리찬, 김사량, 천세봉, 박태원, 조령출, 석운기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보살핌과 고무격려속에서 행복한 창작생활을 누린 작가들의 이름을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고령이 되시어서도 비상한 독서력으로 큰 작가들뿐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미숙한 작품들까지 보아주시고 너그러운 어버이심정으로 자그마한 장점도 크게 치하하시고 부족점이 있으면 못내 아쉬워하며 고치도록 세심하게 일깨워주시었습니다.

우리결을 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와 같은 무명작가가 쓴 작품까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두편이나 읽어주시었습니다.

1981년 9월초였습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 대한 치하의 교시를 전달한 당중앙위원회일군은 수령님께서 9월 2일부터 11일 까지 9일동안에 동무의 작품을 읽어주시었다며 가정에 가서도 알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에는 그저 꿈만같아 감사의 정에 목이 메어 울랐지만 오늘은 나같은 초학도를 위해 9일동안이나 무리하시었구나 하는 생각이 량심을 찌르며 터져오르는 오열을 막을수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령수가 우리 수령님처럼 문학을 사랑하시고 작가들을 아끼셨겠습니까.

정녕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처럼 높은 문화성과 인덕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수령과 작가들과의 관계가 우리처럼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실례는 인류문화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습니다. 칼 맑스의 사랑을 받은 하이네도, 올라지미

르 레닌의 사랑을 받은 고리끼도 우리들처럼 수령으로부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결을 떠나 영면의 세계에로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과 저의 가슴속에서 지난날 받아안았던 믿음과 사랑의 추억이 가시여질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만수대의 동상앞에서 가슴을 치고 땅을 허비며 통곡하는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도 친어버이사랑을 받아안았던 가지가지 사연과 추억들이 살아올라 그토록 슬퍼하며 울고울어 눈물의 바다를 펼치었을것입니다.

수령과 인민... 수령이 위대하고 그이품에서 자란 인민이 훌륭하여 온 나라에 인류사상 전례가 없는 비애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이적인 현실자체가 어버이수령님은 가신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생하고계신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강철의 의지, 거룩하신 품모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속에 영생하여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총진군운동으로 힘차게 이끌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살아계시옵니다. 천만년 길이길이 영생하실것입니다.

리종렬

조선은 웨친다

얼굴마다 눈물, 눈물이다. 하늘은 그냥 폭우를 쏟아붓는다. 살지고 푸르른 강산은 퍼붓는 비속에서 안타까이 몸부림친다. 이 땅에는 들리나니 호곡소리뿐이요, 보이나니 눈물뿐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울고있다.

내가 알건대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매 이렇게 전민이 통곡한 전고는 동서고금에 없다. 80여년전 국치일때 전민이 통곡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때는 모든 계층이 다 운것은 아니다.

슬픔은 가식이나 요구로는 생길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다. 우리 인민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으면 흘리는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그 곡성 하늘땅을 뒤 흔들랴.

도대체 21세기를 앞둔 지구촌에서 무슨 변고가 터졌는가.

1994년 7월 8일, 우리 인민모두가 삶의 태양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행복의 수호신으로 굳게 믿고 우러러 따르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는것이 과연 진실이라는 말인가. 물론이 땅이여 하늘이여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고통과 슬픔, 불행을 모르고 지금껏 살아온 이 몸도 난생처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장이 파열되는것 같은 비통함을 체험하게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강도일제를 쳐부시여 조국을 광복하시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리시고 세상에 전례가 없는 선정을 베푸시여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인민을 위엄있는 자주국가의 인민으로 내세우시였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고사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줌으로써 암흑시대, 기근지대였던 우리 나라를 문명부강한 나라로 변모시켜주시였고 자신의 고결한 품모로 밝고 건전하고 미풍량속이 꽃피는 생활기풍을 세워주시였다. 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40여년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여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주시는데 바쳐진 그 로고를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쓰러져가는 초막에서 밥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주립에 나부러져 죽음만을 기다리던 기막힌 불행속에 빠져있다가 수령님의 은정으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된것이 어찌 나혼자만의 경우이겠는가. 이러한 불우하고 불쌍한 인민이 해방이 되자 일터와 교정의 주인이 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수령님을 따라 행복의 일로를 달려왔다. 이 빛나는 변혁속에서 나도 희망을 꽃피워 작가로 될수 있었고 오늘은 20명 가까운 대가정을 근심걱정없이 거느린 위엄있는 가장으로 될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인민모두를 행복의 절정우에 내세워주시고 자신께서는 가시다니 이런 절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충격적인 순간에 어버이수령님의 업적과 은정을 어찌 더 말하며 그 감사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80여성상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글로 다 쓰자면 장장 백년세월을 쓴대도 모자라리라.

우리의 한결같은 이 심정이 그대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민족의 호곡으로 터져나오는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심정을 아는것처럼 우리 인민의 심정도 알수 있다. 이 뼈저린 울음과 비애의 통곡은 절망도 아니요 낙망도 아니다. 하늘을 진감하는 울음의 되성과 강도를 뒤덮은 비애의 눈물바다는 그대로 우리 인민의 힘과 용기와 백절불굴의 의지의 표시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계승자에 대한 믿음으로 뒤바뀌어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혁명적각오가 굳세지는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는 그 소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받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갈 신념의 목소리로 들려온다. 하여 이 절통한 순간에 온 세상을 향해 웨치고싶다.

주체의 태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오늘 공인된 우리 인민의 태양이시고 생명이시며 백전백승 승리의 기치이시다.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그 어떤 대적도 무섭지 않다. 덤벼들려면 덤벼들라.

조선은 이렇게 힘있게 웨치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생전에 우리에게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여러번 당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그 간곡한 당부를 심장에 새겨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깨끗한 신념과 량심으로 충성으로 받들어 천만년 길이길이 모실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총서 《불멸의 력사》로 형상하는 우리 작가들의 상실감과 비애는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분연히 일어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천년이건 만년이건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도록 그이의 고매한 품모를 훌륭히 창작할 결의에 넘쳐있다.

또한 우리 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졌으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어떤 력사적과정과 투쟁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총서 《불멸의 향도》창작을 적극 다그치겠다. 이것은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앞에 드리는 숭고한 선서이다.

진재환

가사

언제나 함께 계시웁니다.

전병구

어버이로 우리르던 인자한 영상
온 나라 가정마다 계시웁니다
한평생 인민 위해 바치신 사랑
행복의 꽃바다로 물결칩니다

조국앞에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
천만년 대를 이어 영원합니다
인민과 생사고락 같이한 한생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합니다

태양으로 우리르던 위대한 영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합니다
자주의 새 세계 밝히신 해빛
이 세상 한끝까지 넘쳐납니다

아 **김정일**장군님 모신 강산에
수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니다

비통한 력사의 순간에

최승철

슬픔에 가슴 꺼져내리고
미어터지는 울음 걸잡을길 없어도
나는 믿을수 없구나
집집에, 거리에, 저 만수대언덕에
남너로소 땅을 치며 울음바다 펼치고
만민의 통분 하늘에 사무쳐
눈물의 굶은비 났을 적시며 쏟아져내려도
정녕 믿어지지 않는구나
태양이 어찌 꺼질수 있는가?

아, 수령님의 감겨진 눈시울을
다시 들어올릴 힘은 세상에 없는가
세계를 호홉하던 심장에 재생의 박동을 줄
그런 불꽃은 이 누리에 없는가

통곡하노라
주인 잃은 위인의 책상과 펜을 두고
자애로운 그 미소에
꽃피고 영글던 대지를 두고 통곡하노라
수령님 문득 들리실것만 같아
밤에도 문을 걸지 않고 기다려온
온 나라의 얼굴들을 두고 통곡하노라

망국노민족을 한몸에 안으시고
광복으로 헤쳐오신 혈전만리여
눈보라길에 잡수신 풀뿌리를 떠올리며
흘러간 세월의 락엽속에 묻힌
그이의 낡은 초신과 지하족을 더듬으며 통곡하노라

식민지폐물들을 날려버리며
자주의 락원을 일으켜오신
파란만장의 반세기여
인민에게 자주의 빛과 땅을 주신 수령님
혁명의 총계로 걸음걸음 이끌어올리시며
천만가지 재부를 안겨주시었나니
피땀어린 무수한 그 사랑의 자옥들에
얼굴 부비며 통곡하노라

이제는 어느 고장 어느 초소에서든
자애로운 그 안광 뵈일수 없는가

예지의 그 음성 들을길 없는가
아니다, 수령님은 살아계신다
하늘을 찢어 솟은 거창한 창조물들우에
《이민위천》사랑이 베풀어진 이룬
위력한 우리 식 사회주의 위용속에
수령님은 활보하고계신다

예전엔 세기의 락류가 쏟아져내린
그늘진 골짜기였던 조선
수령님 펼치신 주체의 문명으로
인류사의 절정에 솟아올랐어라
그 흐름 대륙들에 흘러내려
자주의 푸른 숲 설레이고
그 흐름 세기를 넘어 미래에로 뚫고가나니
사람이 자주를 바라는 한
우리 수령님은 영생하리라

수령님의 위업은 인간애로 아름답고
인간애로 숭고하여 영원에 닿았거니
수천년 하느님을 믿던 인류는
처음으로 사람중의 위인을 숭배하리라
신의 자리에 인민을 세워주신
불세출의 성인 **김일성**동지를!

인민이여, 울음을 삼키고 일어나라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모시여 신심 넘치도다
듣는가, 력사가 내딛는 발걸음소리
그이를 목숨으로 지키고 받들어
수령님의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자!
통일조국의 높은 단상에 그이를 모시는 날
온 나라 수령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 길에 우리는 담대한 병사
승리만을 쟁취하리
보아라, 슬픔을 넘어 창대같이 일어선
저 충신들의 끝없는 바다를!
인민은 일제히 떨리는 손을 뻗쳐
삼가 공산주의 령마루에 받들어가노라
인류의 영광인 우리 수령님을!

인민의 마음을 대신하여

김익철

나는 방금 만수대동상을 조의방문하고 돌아왔다. 어느때는 불과 반시간 못걸려 돌아내려오던 길을 꼬박 다섯시간을 들었다.

아동백화점과 《통일역》 만수대의사당과 학생소년궁전으로 구획지는 이 주변 일대가 사람파도, 사람천지이다.

평양시 치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곳으로 소문난 여기지만 지금처럼 한치도 옮겨서기 바쁘게 밀집되기는 처음이다. 동상으로 오르는 층계들은 말할것도 없고 차도와 주차장 그 어데나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화환과 꽃다발을 머리위로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조급한 마음으로 한치한치 툭아오르는 사람들, 하늘에서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 질게 덮여 그들의 머리위에 비꼬치를 뿌리고있다.

곳곳에 달린 확성기들에서는 은은하고 장중한 추도곡의 선율을 타고 비감에 젖은 방송원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울려나오고있다.

동상주변의 대돌우에는 검은댕기가 무겁게 드리운 화환들이 겹겹이 들어서있고 바닥이 보이지 않게 꽃다발이 덧쌓이고있다. 동상앞 포석우에는 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조객들이 비애를 이기지 못하여 주먹으로 땅을 치기도 하고 량팔을 벌려 동상을 우러르기도 하며 오열을 터뜨리고있다.

붉은넥타이를 맨 학생들, 젊은이들의 손에 이끌려온 백발의 로인들, 어린애를 업은 아기어머니들, 학생복차림의 대학생들, 남녀로소모두가 한데 어울려 가슴을 치는 곡성을 터치고있다.

행복과 기쁨만을 안고 찾아오는 수천수만 사람들의 가벼운 걸음이 옮겨지던 그 포석우에 눈물이 비오듯 끝없이 끝없이 떨어져 솟배여든다. 포석은 비물예가 아니라 눈물에 깊이깊이 젖고있다.

어찌 여기 만수대를 비롯한 평양에서만이라. 남으로는 개성으로부터 북으로는 선봉, 온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눈물의 바다에 잠긴 비통한 소식을 소리방송이 전하고있다.

조선만이 아닌 온 지구덩어리가 안정을 잃고 뒤설레이는 이 역사적시각 과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끓어번지고있는것인가.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지구가 생겨 수수천년을 살아오는 인류는 자기 역사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왕들과 황제, 지도자와 령도자를 맞고 보내였다. 그 때마다 각이한 범위의 추모모임과 조의행사가 진행되였다.

하지만 자기 령도자의 서거를 추모하여 온 나라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하늘에 닿는 곡성을 터뜨린 전례가 과연 있었던 말인가.

자그마한 한 가정의 경우에도 아버지를 잃은 비감이 자식마다 다른것이 인정세계이다.

하건만 지금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를 민족최대의 슬픔으로 접하여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 학교와 역두, 병영과 함선,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어데서나 한결같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가장 절통한 마음으로 터쳐울리는 울음소리로 꽉 찼다. 지구는 자기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가장 위대한 인간을 잃었다.

지구는 태양을 잃었다. 빛과 열만을 주는 태양이 아니라 인간에게 숭고한 뜻과 의지를 주는 태양을 잃었다. 지구의 역사에 다시 없을 이 크나큰 상실앞에서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민은 애절함과 절통감에 젖어 하염없이 눈물을 뿌리고있다.

그것을 어찌 사람들이 흔히 괴로울때나 슬플 때 떨구는 범상한 눈물예다 비길수 있겠는가.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서 정화되어 솟구치는 쇠물처럼 걸고 뜨거운 심혼의 분출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분출속에 해와 달이 다하도록 생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모시려던 념원이 꺾이운 우리 인민의 아픈 마음이 담겨있다.

가정과 일터, 기념비들에 초상화와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과 늘 함께 사는 감정에 습관된 우리 인민이다.

새거리가 일떠설 때마다 받아안게 되는 화려한 주택에서, 순마다 안겨지는 쌀에서, 철따라 갈아입는 옷과 교복에서, 학기마다 받아안은 교과서와 학

용품들에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마음속 갈피갈피에 새기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다.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투쟁, 우리의 운명은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인민이었다.

가정과 자식들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에도, 나라에 경사나 난국이 생겼을 때에도, 세상에 동란의 파도가 휩쓸어들 때에도 오로지 수령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인민이다.

이런 인민이 생존하신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아이 어른 할것없이 자다가도 가려듣는 그 다정하고 우렁우렁한 음성을 다시는 들을수 없게 되었으니 이 가슴 미여지는듯한 상실감을 과연 무엇으로 메꿀수 있단말인가.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열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는것이다.

그 심혼의 분출속에 또한 인민 위해 한평생 아픔이란 아픔을 다 겪으시고 속이란 속은 다 태우시고도 통일된 강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인민을 보시지 못한채 너무도 급작스레 우리결을 떠나신 그 애석한 마음이 담겨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단 하루라도 앓고계신다는 말이라도 듣다가 이렇게 됐더라도 우리 인민의 마음은 이다지도 무너져내리지는 않을것이다.

한뿌리의 산삼이나 룡용이 생길 때에도, 하늘을 나는 새들의 깃털을 볼 때에도, 바깥날씨가 변덕스러울 때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만년장수부터 생각해온 우리 인민이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서해의 들바람과 뜨거운 해별을 맞으시며 농장길을 걸으시던 모습과 대외활동을 벌리시던 며칠전의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눈에 삼삼히 밝혀오고있다.

일찌기 14살 어린신 나이에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시여 장장 70성상을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견고걸으신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고스란히 남겨두신채 다시 못오실 길을 가시였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린 때에 크나큰 대업을 두신채 영영 가시였다. 통일된 조국강산의 높은 단상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서셔야 할 자리가 비여있게 되리라는 믿지 못할 현실앞에 억이 막히는 우리 인민이다.

어버이앞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된 심정으로 응석속에 살아온 지난날을 걸음걸음 되새기며 비로소 한번 더 철이 드는듯 마음을 가다듬는 우리 인민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비애나 애수에 잠겨 주저앉을 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그 심혼의 분출속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계승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굳건히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그토록 크나큰 비애를 안은 우리 인민이 쓰러지지 않고 분연히 일떠설수 있는것은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가슴속 깊이 애소중히 간직할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세계 인민들속에 절대적권위를 지니시고 희세의 위인, 강철의 령장,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받드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은 강철기둥같이 억세며 그이를 받들어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위업을 드림없이 완성해나갈 확고한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그이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크나큰 슬픔을 산악같은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용기백배 앞으로 나아갈 신념과 의지에 차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처럼 세상에 복받은 인민은 없다. 세상 나라들치고 지도자나 령도자를 바로 만나지 못하여 수난을 겪는 인민들이 얼마나 많던가.

하지만 우리 인민은 수령복이 있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까지 다 합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일편단심 모셔가려는 철석같은 각오와 의지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차넘치고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정부와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그이의 령도따라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방송에서 노래가 울린다.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바로 이것이 엄숙한 시각을 맞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영원한 세월에

김일규

추모의 대돌앞에
나와 함께 뛰어있던 아들이가
왜 그러느냐는듯
나를 뵈히 쳐다보는데

비분에 젖어
승엄히 놓여지고 놓여지는 다발이
설날, 생신날, 기쁜날 피워드리던
그 꽃뭉침의 아름다움으로만 비끼인
이 어린 눈망울앞에서
내 어떻게 설명한단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내려찍은 조기의 검은 땀기가 낫설어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우리 나라 기발우엔 저런것이 없다고 하는
철부지의 명백한 론거앞에 내 무슨 말이 필요하랴

나는 믿겠노라
바다물이 다 말라
사막이 되였다 해도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
지구가 진펄이 된다고 해도

허나 믿을수 없다
아니 못믿겠다
영원히 믿지 않겠노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으로
하늘이 내신 불세출의 위인
총칼도 폭탄도 못다친 위대한 심장이
어찌 고동을 멈춘단 말인가

그렇다
수령님 예대로 서계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언덕에
이제라도 철맞게 새로 지은 옷을 입고 오르면
꼭 맞는다고 기뻐하신 어버이앞에
내 어이 이처럼 상복을 입고 곡을 하랴

비발을 뿌리는 하늘가에서
번개의 불줄기가 검은 구름을 찢을 때
나도 눈물을 문대며 일어서노라
이 땅에 공기처럼 짙 차흐르는
비보를 믿지 않는 산 녀으로
슬픔의 장막을 밀어제끼다

그렇다
래일도 아이들은 어제처럼
철따라 과일맛도 선참 헤아려주실
어버이를 뵈게 될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월에
인민은 수령님을 뵈게 될것이다

그렇다
태어난 첫날부터
기쁨과 행복만을 안고 오르던 이 언덕우에선
향불의 아린 연기가 눈물을 파낼수 없다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꽃뭉침만이
후손만대에 놓여질것이다

정녕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국기가 조기로 게양된것이
김정일장군님이 빛내시는 우리의 하늘가엔
희망차게, 영광차게
수령을 높이 모신 인민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으로
국기는 휘날릴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대지와 나무

량철수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떠다.

어떻게 믿을수 있으며 상상조차 할수 있으랴.

우리 인민의 가장 위대하고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의 결을 떠나셨다는것을.

온 강토가 가슴미여지는 슬픔에 잠기였고 온 나라 강산이 비통한 울음소리로 차고넘친다.

우리 온 가족도 친어버이를 잃은 한없는 비통함에 잠겨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울고 또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비보가 전해진 다음날 텔레비존보도시간이었다. 텔레비존화면에는 온 나라 각지에서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실앞에서 땅을 치며 오열을 터뜨리고있는 모습들이 방영되었다.

《아버지, 만경대혁명학원이 나와요.》

울먹이며 만아들 대성이가 나에게 하는 말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비존화면을 주시했다.

학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목놓아우는 원아들, 그러던 원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으로 와 달려가 동상의 반침돌을 그러안고 통곡하는것이였다.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설분을 토하고있는 원아들 속에는 나의 둘째아들 대혁이도 끼여있었는데 그들은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보며 절통하게 웨치는것이였다.

《아버지대원수님! 량세봉의 증손자 량대혁이가 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올해 설맞이모임때 것처럼 자애로운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저희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대원수님이 아니십니까. 아버지대원수님! 이제는 정말 대원수님을 만나뵈울수 없습니까. 예?》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듣던 나와 안해, 아이들은 다 시금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노라니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대를 두고 내려오면서 우리 가정에 돌려주신 사랑의 력사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지였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던 나의 할아버지, 원수 왜놈들을 죽치고 나라를 되찾으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고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였지만 김형직선생님께서 돌아가신후에는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잃은 배처럼 갈길을 몰라 헤매이고있었다. 바로 이

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갓 창건하신 반일 인민유격대를 거느리시고 멀고 험한 천여리길을 걸으시여 할아버지네 독립군부대를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할아버지에게 조선독립의 밝은 길을 가르쳐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후 반일투쟁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지 못하고 일제원수놈들에게 참살당하였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림종을 앞두고 독립군병사들에게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수 없지만 너희들은 살아서 **김일성**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길 밖에 없다!》라는 절절한 유언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투쟁의 길에서 별로 큰 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간 한 독립군운동자에 불과한 나의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없이 귀중히 여겨주시며 애국앞에서 결백하고 의리앞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고 분에 넘친 평가를 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할아버지에게 항일혁명렬사라는 높은 칭호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가며 혁명을 하도록 해주시려고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해방직후 그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국내와 국외각지에 흩어진 혁명렬사유자녀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모들의 대를 이을 혁명의 후계자로 키워주시기 위해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로 그 학원에 나의 아버지도 불러주신것이였다.

력사적인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날 붉은 줄을 띤 정복을 입고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원아들속에 있는 아버지를 감격에 겨워 바라보던 나의 할머니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내며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였다.

《의존아, 네 아버지가 오늘의 너의 끝끝한 모습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대견해하시겠니. 아버지는 너의 앞길을 기약하지 못하고 갔지만 바로 어버이장군님께서 너를 이렇게 강하게 내세워주셨구나.》

할아버지가 최후를 마치는 때에 나의 아버지는 겨우 두살잡이에 불과했다. 누구도 돌봐줄이 없는 거처른 이국땅에 젊은 안해와 어린 아들과 딸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되는 할아버지의 아픈 심정인들 오죽했으랴.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해방되자마자 이국땅에서 갓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며 헤매이

던 우리 가족을 곁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를 만경대혁명학원에까지 입학시켜주신 것이었다.

그후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학원을 졸업하고 외국류학까지 하였으며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어엿한 지휘관으로 자라났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을 하지 못한 채 뜻밖의 사고로 너무나도 일찍이 희생되었다.

아버지의 희생에 접한 나의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다. 갓은 고생속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량가집안의 대만은 끊기게 하지 않으려고 온 심혼을 다 바쳐 애면굴면 키워온 아들이었다. 또 그 아들에게 부여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 못하고 간 아들이 한스러워서였다.

아들이 희생되자 할머니는 그만 자기 마음도 아들결로 같이 따라가버리고 자신은 빈허울만 남은 것 같은 공허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끊어져가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시기 위해 또다시 온갖 은정 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들을 잃은 할머니를 극진히 위로해주시면서 의준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가슴이 더 아프다고, 조선의 아들딸들을 다 아우머니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든든히 먹고 손자를 잘 키워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운명이란 참 이상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희생될 때 나의 나이도 한살밖에 안되었다. 게다가 나는 태어나서 얼마되지 않아 현대의 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난치의 병에 걸려 대지를 활보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어버렸다.

그런것으로 해서 우리 가문은 어버이수령님께 더 걱정을 끼쳐드리었고 마음을 쓰시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변변치 못했던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버지된 심정으로 의사들을 친히 곁에 부르시고 이애가 량사령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꼭 고쳐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고 귀중한 보약까지 나에게 돌려주시었다. 그러고도 끝내 병이 낫지 못하자 이번에는 승용차에 태워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대학에까지 보내주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모표가 달린 모자를 쓰고 대학교복을 입은 내가 승용차를 타고 대학으로 떠나던 날 할머니는 그만 나의 손을 꼭 잡은채 아무 말도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아마도 할머니는 가문의 대가 거의거의 끊어져갈 때마다 그것을 다시 굳게 이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고마워서였고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쓰고 학원복을 입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어려와 더욱 눈물을 흘렸으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때에 우리 가정은 대대로 받아안은 사랑을 돌이켜보노라니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은 나의 심장속에 더욱 반석같이 들어앉았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더욱 굳건히 이어주신분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나를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인 작가로 키워주시었고 조선로동당원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도 안겨주시었으며 운명의 계기들마다에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었다. 그 은혜로운 품속에서 나는 사회적으로뿐만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꿈같은 행복을 누리고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두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사실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도 하였고 죽은 나무에 꽃이 폈다고도 하였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 등실 등실 춤까지 추었다.

몇십년의 년륜을 새기면서도 위태롭게 간신히 생을 유지해오던 량세봉가문이라는 나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시대에 와서 그 은혜로운 사랑의 토양에 억세게 뿌리를 내리고 아지무성한 거목으로 자라난것이다. 우리 대혁이가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떠나던 날 나는 할머니가 간절히 생각키워졌다. 지나간 세월에 사나운 풍파도 겪고 가슴아픔도 많이 당했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 생의 말년을 행복하게 보낸 나의 할머니였다. 만일 그가 살아서 증손자가 군복을 입고 학원으로 떠나 이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으랴.

문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떠올랐다.

《세상에 우리 가문처럼 대를 두고 내려오면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아온 집안은 어디에도 없을게다.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보답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웅당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니.

너와 너의 자식들의 대, 손자대, 아니 천대만대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같이같이 받들어모시고 충성다해나가거라》...

《아버지대원수님! 우리 만경대의 아들들은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절절히 바라시던대로 저희들은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대혁이가 굳은 결의를 담아 하는 말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장하다. 내 아들이. 네가 우리 온 집안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했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격하여 부르짖었다.

아니 저것은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새로운 힘과 용기로 바꾸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

위에 높이 모시고 천세만세 길이 모셔가려는 온 나라 인민이 다지고다지는 맹세이리라.

우리 아이들과 안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우에도 새로운 결의들이 번뜩이고있었다.

그것은 푸르른 하늘에 아지를 활짝 펼치고 자라난 무성한 나무가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은혜론

대지를 향해 머리숙이고 더더욱 깊이 뿌리내리어 이 땅을 지켜가려는 굳은 마음인것이다.

은혜로운 대지의 품에서 사랑과 은정을 자양분으로 하여 뿌리와 줄기, 잎이 무성한 나무, 그 나무는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언제나 어머니대지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리라.

붉은기

김석전

이슬 머금은 꽃속에
조용히 누워계시는 모습
앞을 가리는 눈물을 넘어
붉게도 타오르는 빛이여
아, 수령님은 붉은 기폭을 덮고계신다

조국의 운명을 거기에 담으시고
평생토록 들고오신 붉은기
가실 때에도 그저는 못가
가슴에 안고 가시는 저 붉은기

생의 마지막순간에
사랑하는 인민에게
하실 말 남길 말 많았으련만
수령님은 안고계신다

다만 저 붉은 기폭만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야
동무들도 있고 조국도 있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저 기폭속에 다시 살아오나니

김정일 동지를 기수로 모시고
주체의 길을 끝까지 가는것이
우리가 갈길이고
민족이 갈길임
수령님은 말없이 온 생애로 가리키신다
저 한쪽의 붉은기로-

마음을 담아 맹세를 엮어

박 철

내 지금 여기에
무슨 꽃을 놓는것입니까
내 무릎 꿇고
아버이수령님앞에
무슨 꽃묶음을 드리는것입니까

감사를 담아
축원을 담아
천년세월 만년세월 모시자고 피웠던 꽃
오늘 비애의 눈물로 엮을줄 어이 알고
가슴 찢기는 슬픔으로 드릴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물의 다발 설음의 덩어리
아닙니다
꽃이 아닙니다
아버이수령님을 길이길이 모시고 바치고싶던
이 가슴속 피붉은 심장의 조각조각입니다

아닙니다 꽃의 묶음이 아닙니다
아픔의 눈물을 씹고씹으며
비애의 바다를 딛고 일떠서
수령님의 생전의 뜻 빛내여갈
신념의 뜨거운 결정체입니다

영원히 식지 않을 이 심장
영원히 꺾이지 않을 이 신념
끝없이 맞고 맞을 날과 날에
수령님을 목매여 부르며
수령님 영원토록 모시고 살려니

가슴에 무거운 꽃을 놓습니다
두번다시 이 몸을 불태워
아버이수령님께 바치고싶은 마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모두 다 바치리라
아, 아- 한생을 놓습니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8호

(루게 562)



◆◆◆◆◆◆◆◆◆◆ 차 례 ◆◆◆◆◆◆◆◆◆◆

우리의 장군 백두산장군	33
공개되지 않은 말씀	33
6월은 푸르다	34
해빛속에 빛난다	35
우리밖에 없어라	35
소백수풀엔 왜 길이 없었는가	36
명 언	37
명제해설	38
우리의 세월	39
아픈 마음을 안으시고	40
관문점으로 뻗은 고속도로로	42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	43
봄의 축복	49
노래부르자 김정일 동지를	60
불멸의 글발을 찾아서	61
갈매기	63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72
수 고	73
《붉은기》호 나의 기관차야	73
푸른 신호등	74
민족의 의지, 세대의 량심을 뜨겁게 호소한 시인	75
아름다운 처녀들	79
발방아앞에서	79
충정의 메아리	80

가사

우리의 장군 백두산장군

김응희

백두의 정기를 한몸에 지닌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예지론 안광이 번쩍일 때면
조선은 그 위용 떨치여간다
아 우리의 장군 백두산장군

백두의 기상이 넘치여나는
절세의 령장 **김정일**장군
멸적의 장검을 높이 들 때면

조선은 그 존엄 빛내여간다
아 우리의 장군 백두산장군

백두의 슬기로 빛을 뿌리는
희세의 령장 **김정일**장군
무적의 담력이 나래칠 때면
천만의 대적도 무릎꿇는다
아 우리의 장군 백두산장군

답시

공개되지 않은 말씀

김정철

전쟁을 이긴 전사들
벌써 귀향의 기쁨에 봉- 뗏네
혼장 번쩍이는 가슴마다
사랑하는 부모처자 부둥켜안을
앞으나서나 그 이야기

허나 중대의 꼬마만은
웬일인지 시무룩 말이 없었네
일도 참 별스럽게 되었지
변변한 싸움 한번 치려 못보고
입대하자마자 전승이라니

이제 메달 하나 없는 빈손으로
어떻게 고향에 돌아간담
군복을 입던 날
영웅이 되어 돌아온다
괜히 흰소리 치지나 말았을걸

남모르는 꼬마의 이 고민
어떻게 분대장이 알게 되었을까?
그러니 소대장 중대장도 알고
때마침 전선에 내려오신
수령님께서 아시게 되었네

전선이 떠나갈듯 호탕이 웃으시며
《그렇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이윽도록 사랑스레 지켜보시더니
전사의 귀가에 가만히 속삭였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소곤소곤

무슨 말씀 주시였을까?
온 중대가 그 비밀 알아내려
무던히 조르고 꼬뜨겼지만
철문같이 굳게 다문 전사의 입
다만 한마디 《두고 보시라요》

…세월은 흘렀네 그때로부터
십년이 네번씩이나 고패쳐간 그해
전승 40 닢 열병대소에서
전우들은 보았네 그날의 꼬마전사
머리우엔 위신있는 장령의 군모
가슴엔 번쩍이는 영웅메달

수령님께서도 그를 알아보신듯
손을 드시여 답례하셨네
그날의 그 말씀 상기하시는듯
최고사령관동지와 나누시는 이야기
오래도록 즐거이 웃으시는 두분

진정 무슨 말씀이었을까
지금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새로 입대한 전사들앞에서
의례히 장령이 자랑처럼 하는
수령님의 공개되지 않은 말씀

군인의 영광은 결전장만이 아니라
총대로 땅을 받드는 그 길우에 있다고
또 제국주의원썬들이 있는한
군인도 있고 영웅도 있다고

6 월은 푸르다

리종덕

세월은 멀리 갔어도
마음속에 찾아와
오, 내 붙들고
이야기하고싶은 날이여라

조용히 당중앙총계를 오르시던
그이의 첫자욱이 새겨진 그날
그날엔
누구나 다는 알지 못했어도
오늘은 인민이 다 아는
6 월의 그날이여

소문도 없이 당중앙청사
수수한 방에 자리를 잡으시고
불멸의 사업을 시작하신

김정일 동지

사색의 글줄을 새겨가시는
새날의 창가
불후의 로작들로
조국의 무궁한 앞길을 열어가시며
6 월의 그날로부터 이어오신
낮과 밤이여

인민을 안으시고
혁명을 이끄시며 펼치신
무포의 새벽노을은
하늘땅을 한빛으로 물들이며
어제도 오늘도 붉고 붉어라
우리 당을 주체의 당으로 이끌어오신 그 손길은
그리도 위대하여라

주체의 주춧돌위에 높이 세운
내 조국의 지붕아래
혼연일체의 대가정을 꾸려주시고
그 대가정의 운명을

다 맡아안으신 아버지

우리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 밀려드는
침략의 검은구름을 불사르시며
비범한 슬기와 담력
탁월한 지략과 강철의 의지로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를
억세계 지켜주시는 백두산장군

오, 우리의 6 월은
그이 쌓으신 불멸의 위업으로 푸르리라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가슴속에 소중해지며
이 땅위에 더욱 푸르리라

6 월은 푸르다

그 6 월은
주체의 씨앗을 자래우고 가꾸신
무성한 숲으로 푸르고

존엄높이 반들어올린
내 조국의 하늘로 푸르고
만년대계의 창조물
저 서해감문의 물결로 푸르다

내 조국에 영원한 젊음을 준
그 푸르름
혁명의 억센 날개 미래로 내려치는
그 푸르름

오 6 월은 영원히 푸르리라
오늘도 래일도 먼먼 미래도
마중오는 무궁한 세월의 축복속에
길이길이 빛나리라!

(1994. 5.15)

해빛속에 빛난다

장원준

세월이 길어
생각은 이리도 깊어지는것인가
받아안은 은정이 크고
새겨보는 뜻이 깊어
뜨거웁에 젖어 돌이켜보는 이 땅의 서른해

드넓은 운동장에서 떠들썩 웃으며
하얀 연을 띄우는 아이들아
그것은 나의 유년의 언덕을 넘어 날아온
내 동심어린 하얀 연이 아니냐

흘러온 세월속엔 있어라
북방의 겨울바람 따듯이 녹여주던
잊지 못할 돌격대의 작은 집에서
당중앙의 축하문을 받아안던 그날이

그 푸른 지붕우에 나뭇기던 붉은 기발이여
그 아래서 내 처음 서투른 시도 써보며
조국을 알고
투쟁을 알고
거세찬 그 펄럭임소리에서
내 삶의 기쁨이 커오는 소리도 들었거니

행복속의 세월은 그리도 빠르던가
환호성 터지는 사로청대회장에
내 꿈을 꾸듯 들어설 때
목메여 목이 메어 생각했노라

내 운명을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그 해빛이
어디서 비쳐오는것인지...

정녕, 이렇게 왔구나 서른해여!
행복과 기쁨만 가득찬 이 가슴속에
드눌지 않는 신념을 심어주고
강철의 의지를 키워주며
단 한시도 쉽없이
내리고 비친 향도의 해발이여

가슴에 새길수록 깊어지는 생각
서른해의 그 하루하루가
인민을 안고
조국을 안고
곳은날 마른날을 가림이 없이
우리 당이 걸어온 그 발자국만 갈아
눈물이 방울져내리는 뜨거운 생각

아, 향도의 태양이 비쳐
날과 달이 이루어진 영광의 서른해여
천년을 두고도 못헤아릴 그 서른해는
행복우에 행복을 덧쌓아주고
해빛우에 해빛을 덧엮어준
우리 당-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서른해였어라

(1994. 6.15)

가사

우리밖에 없어라

림공식

맑고 푸른 하늘가에 붉은 기발 날리며
가슴펴고 사는 인민 그 어디에 있던가
우리밖에 없어라 우리밖에 없어라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모신 우리밖에 없어라

모진 광풍 불어와도 근심걱정 모르며
마음편히 사는 인민 그 어디에 있던가

우리밖에 없어라 우리밖에 없어라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모신 우리밖에 없어라

그 언제나 한마음 지도자를 받들어
충효일심 뭉친 인민 그 어디에 있던가
우리밖에 없어라 우리밖에 없어라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모신 우리밖에 없어라

소백수골엔 왜 길이 없었는가

천고의 말림에 시원을 둔 소백수는 물이 류달리 맑고 흐름이 특이할뿐 아니라 겨울의 혹한에도 얼지 않는다.

소백수가 부리는 조화는 한두가지가 아니니 해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정일봉에 비끼군하는 무지개도 소백수의 조화요, 수정으로 조각한듯 화려하게 피어나는 서리꽃도 이 소백수의 조화라고 한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라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자 이 성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전설이 창조되어 전해졌는데 소백수골에 들어서면 발자국이 사라지기때문이 길이 없었다는 도 이 소백수의 조화와 인연이 있는 이야기다.

임오년 정초, 백두산의 날씨는 몹시 추웠고 폭설까지 내려 온 골짜기와 봉우리들이 모두 눈에 묻혔다.

어느날 리명수에 사는 포수 한사람이 사냥총을 메고 소백산쪽으로 짐승을 잡으러 갔던적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묻혀 몹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더 고생을 하게 된것은 소백수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때문이었는데 이런 실수는 생전 처음이었다.

백두산기슭에서 나서자란 사람이어서 아무리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도 길을 잃어버린적은 단 한번도 없던 그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인즉 소백수를 따라가던 그가 되돌아오자고 하니 자신의 발자국이 없어진것이였다.

이게 웬일일까? 그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어안이 벙벙하였다.

눈우에 난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돌아갈수 있을텐데 발자국이 없어졌으니 향방을 대중할수가 없었다.

포수는 어림짐작으로 되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완전히 잃고말았다.

그는 리명수쪽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인 압록강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다나니 돌아오는 길은 열흘나마 걸렸다.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이상해하였다.

아무렴 그럴수가 있나? 발자국이 없어지다니...

다른 한 포수가 호기심이 버쩍 생겨 소백산쪽으로 또 짐승사냥을 떠났다.

그런데 그도 소백수를 따라가다가 발자국이 사라지는바람에 길을 잃어 보름나마 고생을 하였다.

사람들은 그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여름에도 몇사람이 작당을 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들도 역시 길을 잃고 해매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예 소백산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소문은 왜놈들속에서도 퍼지였다.

왜놈들은 리명수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 제놈들의 밀정 두놈이 소백산쪽을 갔다가 한놈은 겨우 살아돌아왔으나 다른 놈은 돌아오지 못하고 숲속귀신이 되고만 사건이 발생하여 그후부터는 소백산이란 말만 듣고도 공포에 질려있었다.

어느날 두 밀정놈이 마을에 내려갔다 돌아가는 유격대공작원을 댜새말고 몰래 그의 뒤를 추적하게 되었다.

밀정놈들은 저마다 제가 《공로》를 세워보려고 자기 공작원을 추적하였다.

뒤에 꼬리가 달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격대공작원은 태연히 숲속을 헤치며 소백산쪽으로 가고있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하공작을 하다가 백두산밀영으로 찾아가는 길이였다. 밀정놈들은 저마끔 나무뒤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재빨리 뛰기도 하면서 공작원을 끈질기게 따랐다.

공작원은 숲속을 요리조리 빠지면서 날개라도 둔힌듯 단숨에 높은 봉우리와 골짜기들을 썩썩 타고 넘어갔다.

험레벌떡거리며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힘겹게 따라가던 밀정놈들은 소백수를 거슬러올라가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푹 멈춰서서 눈만 멀뚱거렸다.

공작원이 미행한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좀 거리를 두고 발자국을 보며 추적하였는데 그만 그 발자국이 없어진것이였다.

주변을 아무리 살살이 살펴봐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두 밀정놈은 저마다 먼저 찾는다고 해덤비였으나
놈들은 발자국을 종시 찾아내지 못했다.

놈들은 눈이 켜해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멍청하니 땅을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김일성** 장군유격대는 정말 신출귀몰하구나!》

밀정놈들은 비명을 질렀다. 허탕을 친 놈들은 돌
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들의 발자국도 없어
진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돌아간단 말인가?

유격대원을 추격하느라고 눈을 부릅뜨고 따라만
온지라 제 발자국을 찾지 않으면 돌아갈수가 없었
던 것이다.

밀정놈들은 제 발자국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놈들의 발자국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놈들은
어느쪽으로 갈것인가 하고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리
였다.

두놈은 서로 의견이 달랐다.

《저 개울을 건너 앞산을 넘어가야 해.》 하고 한
놈이 말하면 다른놈은 《아니 이쪽 골짜기로 들어
가 뒤산을 넘어야 된다니까.》 하고 반대하였다.

서로 제말이 옳다고 우겨대던 놈들은 종일 다투
다나니 맥이 진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얼마만에야 제 정신을 차린놈들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떠나갔다.

그러니 둘은 서로 반대쪽으로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놈도 저놈도 다 제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한놈은 죽을 고생을 다하며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한달만에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다른 한놈은 종시 돌아오지 못했다.

소문에는 아마 산짐승에게 잡혀먹히웠을것이라
고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왜놈들은 소백산쪽엔 머리도 돌
리기 무서워하였다.

어떻게 발자국이 사라졌을까?

많은 의혹을 안고있는 이 전설은 지금까지 그저
흥미있는 이야기로 전해내려오고있었다.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백
두산밀영이 있는 소백수굴에 외인들의 발길이 미치
지 못하게 땅이 조화를 부린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
다.

그런데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여 하신 뜻깊은 말씀을 전해듣고서야 사람들
은 비로소 이 전설이 창조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으로 나드는 사람들이
소백수로 다니였기때문에 발자국이 생기지 않아 누
구도 골안에 비밀근거지가 있는줄을 알지 못한다고
감회깊은 회고를 하시었다.

그러니 소백수가 사람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린것
은 사실이요, 그것이 사람들속에서 전설로 전해지
고있는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이것은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주장이었다. 80고령에 이른 지금에 와서도 나는 혁명의 전위로서의 청년들의 지
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혁명운동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않고 전 세대에만 의
거하여 그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들의 뒤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세월을 보냈더라면 일제식민지통
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낡은 사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항일유격대도 창건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민족의 선봉에 서서 무장투쟁을 중심으
로 하는 항일혁명전반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지도 못하였을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감옥도,
죽음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사들이었다.》

명제해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것이 필요하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정성이 시문학의 생명이며 기본특성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고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시인의 개성을 살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문학창작에서 작가의 개성을 살릴데 대한 요구는 어떤 형태의 문학작품에서나 필수적인것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문학이 다양한 인간과 풍부한 생활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한 형타에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그린 개성적특성이 산 작품을 창작할것을 근본요구의 하나로 제기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백가지 작품이 나와야 하고 그 100가지 작품이 다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개성을 살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것을 쓰자고 하면 100개의 작품을 쓰는데 100명의 작가가 필요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한톨에 맞추어 만드느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러한것을 만드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상품제작공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는 서정시에서 더욱 첨예한 요구로 제기된다.

서정은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이다.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가 형상으로 재현되어 나타나는 서정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정서는 언제나 일정한 사상과 함께 생겨나고 드러나는데 서정은 바로 감성과 사상적인 지향을 결합시킨 형상적사유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한 서정은 다양하게 표현되게 된다.

시에서 서정은 다른 종류의 문학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정과 구별된다.

소설의 서정성은 대상에 대한 짙은 정서적묘사와 주정도로를 통해서와 특히는 이야기자체의 깊은 정서를 통해서 보장된다. 극문학에서는 주로 극성과 련결되는 감정조직에 의하여 서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서정시가 아닌 다른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서정성이 이러저러한 형상공간을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 발현되는 서정은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시에서는 시인자신이 서정적주인공으로 직접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직접 표현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시는 곧 그 시인이며 시인의 얼굴이라고 하는것도 시의 서정이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기때문이다.

시에서 표현되는 서정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서정시 《용서하시라》를 잘된 시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시에는 어린 학창시절부터 축적되어온 서정적주인공의 한생의 체험이 비껴있으며 그 한생의 총화를 거쳐 어머니조국에 다지는 전사의 숭엄한 맹세가 절절히 표현되어있다. 시인은 지난날 어렸을 때 철없이 지내면서 저지른 이러저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자기를 키워준 조국의 크나큰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치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결코 당과 조국을 배반하지 않을것이며 목숨바쳐 보답하리라는 사상을 풍만하고 생신한 정서에 담아 노래하였다.

시인은 이와같이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우리 시인들은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체적문예리론의 근본요구를 똑바로 알고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시문학의 생명이며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이 다양하고 풍만히 구현된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하여 주체적인 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세월

김영근

서른해…
해와 달이 바뀌어
이 땅에 쌓여진 세월이 아닙니다

서른해…
때없이 짚어보는 그 어느 하루에도
감격에 내가 흘린 눈물이 있고
조국이 잠 못든 경사가 있는
빛나는 자욱으로 이어온 세월입니다

영광의 천만리길 그끝을 돌아다보면
당중앙창가에 그이 켜신 첫 불빛이
내 마음을 비쳐주고
이 땅우에 차오르던
못잊을 그날이 빛을 뿌리나니

아, 민족의 운명을 안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안으시고
통남산마루의 그 맹세로
조국을 빛내오신

김정일 동지

해빛이였습니다
봄빛이였습니다
몸소 우리 당을 이끄시여
백전백승의 당으로 키워오신
그이의 탁월한 그 령도

비범하신 령도의 그 자욱은
노을피는 삼석의 언덕길
검덕의 막장길에 수놓아지고
이 땅 끝까지 끝까지 이어졌나니

그이께 운명을 다 맡기고
우리 걸어온 그 먼먼 길
그 길엔 차디찬 눈비도 있었고
세찬 바람도 불어왔건만
조선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인민은 얼마나 성장하였고
강산은 얼마나 수려해졌습니까

사회주의-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인민의 세상으로 빛내주시며
그이 이끌어오신
우리의 세월
사회주의 세월이여

따르며 그 사랑의 따스함을 알았고
받들며 그 믿음의 귀중함을 알았거니
인덕으로 천하를 얻으신 그 세월속에
활짝 꽃핀 일심의 대가정
혼연일체의 내 나라

아, 우리의 서른해는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살아온
끝없는 행복, 끝없는 궁지로 하여
우리의 가슴에 젖어있는 세월
우리의 심장에 고동치는 세월

서른해… 그렇습니다
력사의 천년과도 바꿀수 없는
이 세월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로
시대를 깨우친 조선의 세월

서른해… 그렇습니다
당중앙 불빛이 흘러온 서른해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우고
어떻게 전진해야 하는가를
가슴에 절감한 귀중한 주체의 세월

아, 이 빛나는 세월에
무궁한 세기가 이어졌습니다

(1994. 6.15)



아픈 마음을 안으시고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남조선에서는 《3악성》이라는 말이 유행되고있다.

《사람 살려라!》

《불이야!(혹은 물란리다!))》

《도적이다!》

이 세가지 아처러운 비명을 두고 남녘동포들은 《3악성》이라고 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살판치고 온갖 사회악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남조선사회에서 《3악성》은 어느 하루도 그칠새가 없다. 이런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불교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염라대왕이 끓는 기름가마에 사람을 던져넣는다는 《열광지옥》같은 세상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참된 사랑을 갈망하며 가슴의 피를 끓이고있다.

인민의 불행, 겨레의 고통을 두고는 한시도 참지 못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민생고에 시달리고 각박한 인정에 우는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여 어느 하루도 아픈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계신다.

1977년 7월초였다.

어느날 개성지구를 찾으시여 여러 단위를 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낮이 펄 기운무렵에 수행하는 일군들과 함께 관문점으로 향하시였다.

그이의 신변이 넘쳐되어 일군들이 부디 평양으로 돌아가시자고 말씀드렸으나 여기까지 왔다가 남녘땅을 보지 않고 어떻게 발길을 돌릴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그곳으로 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일행이 사천강둔덕에 올랐을 때 그이께서는 비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남녘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가슴아픈 심정으로 이곳에서 저 남녘하늘가를 바라보느라니 남녘의 부모형제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행복의 락원을 안겨주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안색에는 피로운 빛이 질게 어려있었다.

어느덧 일행이 관문점에 이르자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관문각로대에로 나가시였다.

조국의 허리에 비수처럼 박혀있는 《군사분계선》 표말, 가시철조망밑으로 거만스레 오가는 미제 침략군의 물갈, 분계선너머로 길길이 자란 해묵은 갈숲과 잡초가 뒤덮힌 황량한 남쪽땅... 분노의 시선으로 그 모든것을 일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관문점에 들리곤합니다.》

순간 일군들이 눈앞에는 몇해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평양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있던 일군들은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황해북도, 개성지구를 거쳐 관문점으로 나가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때늦게야 듣게 되였다.

(아니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위험한곳으로 가시다니?)

일군들은 급기야 차를 타고 평양-개성행 도로로 쏜살같이 달렸다.

《운전수동무, 좀더 빨리 몰수 없겠소?》

일군들은 가슴을 조이며 재촉하였다.

최속력을 놓은 차는 개성을 지나 관문점가까운곳에 이르러서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타신 차를 보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후사경으로 뒤따라오는 차를 보시였는지 승용차를 세우시고 내리시였다.

뒤미처 간 차에서 내린 일군들이 그이앞으로 급히 뛰어가 관문점으로 나가자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이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길을 왜 나라고 가지 못하겠는가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정 가시겠으면 호위성원들만이라도 데리고 가시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였다.

어찌할수 없게 된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승용차앞을 막아서며 애원에 찬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길을 막지 말라고 일군들의 어깨를 두드리고나서 추연한 안색으로 남녘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차에 오르시여 관문점으로 향하시였다. 일군들은 수난의 땅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이 가슴에 맺히시여 그 위험한곳으로 굳이 나가보시려는 그이의 심정이 헤아려져 모두 뜨거운 가슴을 매만졌다.

그이의 안녕을 위하여 곧 뒤따라가는 그들의 눈앞에는 불행한 자식을 두고 시름겨워하는 부모의 영상이 어려와 모두 마음속으로 울었다.

일군들이 그때의 일을 더듬어보며 격한 심정에 싸여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오늘 여기서 더욱 생각이 깊어지는것은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우리모두 힘을 합치고 분발하여 수령님대에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는것입니다.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일군들은 모두 그이의 말씀을 숭엄하게 받아안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중에는 언제나 이처럼 남녘의 겨레들과 조국통일이 떠날줄 몰랐다.

이러한본이시기에 그이께서는 해마다 장마철이 오면 물란리를 겪는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시여 잠을 이루지 못하시었다.

1984년 8월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에없이 많은 비가 내리었다.

그무렵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 계시었는데 저녁이면 숙소에서 비내리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안색을 흐리곤하시었다.

어느날밤 그이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보시며 한 일군에게 침중한 안색으로 비가 자주 내리니 남조선인민들이 걱정된다고 하시며 이렇게 비가 퍼부으면 남조선에 영낙없이 큰물이 난다고, 큰물이 나면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할게 아닌가고 하시었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나도 그렇고 동무들도 그렇고 우리모두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남녘동포들을 순간이나마 잊으면 조국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이 머리에 없는 사람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열정을 잃게 됩니다.

분열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제발 폭우가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거듭 외우시었다.

그러나 알곤키도 비는 멎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걱정하신대로 얼마후에 끝내 남조선에서 전례없는 대홍수가 나고말았다.

단번에 350명이 죽고 20만 7천여명의 이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다는 보도가 서울에서 다급하게 날았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 기막힌 통보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픈 가슴을 안고 온밤 뜬눈으로 밝히시다가 새날이 들자 일군들을 불러 곤난할 때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집과 쌀, 천, 의약품이 다 차례질수 있게 구제대책안을 크게 세우라고 이르시었다.

이에 따라 5만석의 쌀, 50만메터의 천, 10만톤의 세멘트, 많은 량의 의약품을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로 보내게 되었다.

이 구호물자는 금액으로 무려 1천 800만팔라에 해당한것이였다. 120여년간의 국제적십자구제운동력사를 놓고 볼 때 1983년에 수해를 입은 인디아가

스웨리예로부터 75만팔라의 구조금을 받은것이 가장 많은것이였다.

또 1984년 당해의 남조선수재와 관련하여 남조선피뢰들의 애월에 의해 그 《친밀한》상전인 미국과 일본이 던져주었다는 돈이 보잘나위없는 2만팔라와 10만팔라였다. 대비조차 할수 없는 이 엄청난 차이앞에서, 국제적십자구제력사에 전무후무할 이 사변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일군들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가 많기는 많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한동포를 구원하는 일인데 구호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가 저축해두었던것을 남조선동포들을 구제하는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어 뭐니뭐니해도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방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제때에 보내주도록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었다.

이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깃든 구호물자는 판문점의 대성동과 인천, 부평을 거쳐 남녘으로 실려가게 되었다.

피를 나눈 형제도 구원해주지 못하는 재난을 가셔주기 위하여 막대한 구호물자를 보내주신 그이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은 사랑에 주려온 남녘인민들에게 충격적인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구호물자를 받아안은 남녘동포들은 너무나 꿈만 같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서울에서는 수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온기와 북녘형제들의 지극한 마음을 받아안고싶어 저마다 한끼라도 북의 기름진 쌀로 밥을 지어먹으며 향수에 잠겨보겠다고 구호미를 받은 수재민들과 쌀을 바꾸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북의 세멘트로 집을 지어 《통일의 정각》으로, 집안의 정신적가보로 삼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마음은 비단 구호물자에만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다.

어느해 봄날 그이께서 백리파원이 펼쳐진 송화땅을 찾으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직승기를 타시고 무연한 청춘파원을 굽어보시었다. 온통 하얀 사과꽃, 연분홍복숭아꽃으로 뒤덮힌 백리파원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기창아래로 흘러가는 기름진 땅을 한동안 즐거운 안색으로 내려다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득 낮빛을 흐리시며 곁에 있는 파수농장의 일군들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시었다.

《... 조국이 통일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과일을 인 천향으로 실어내어 남조선인민들에게도 공급하여 야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의 재부를 보시고 웃음이 절로 나오다가도 불현듯 남녘겨레들이 떠오르면 억 한 심정에 싸이시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반부인민들만이 아니라 남쪽의 동 포들을 위해서도 과원을 더 잘 꾸리고 생산을 늘려 야 한다고 절절한 말씀을 하시였다.

말씀을 받아안은 농장일군의 가슴은 참으로 뜨거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북반부에서 과원을 하나 가꾸거나 또한 집을 한채 지어도 그것이 북남인민들의 공동의 향유물이 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풍만한 인민의 재부와 거창한 창조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북 반부인민들과 함께 남녘겨레들을 위한것이기도 한 것이다.

1985년에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민족분단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 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였다. 그때 북반부에 넘어오는 남측의 고향방문단성원가 운데는 한 늙은 신자가 들어있었다.

실무일군들은 그도 방문단의 한 성원인만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에 들도록 호실배치안을 짜놓 고있었다. 물론 그 방도 나무랄데 없이 훌륭한 호실 이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사실을 아 시고 한 일군을 부르시여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 였다.

《평양에 오는 남측 고향방문자들속에는 한 늙은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까. 고향의 몸으로 고향의 가족친척을 찾아오는 그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남조선에서 이름있는 그 신자를 고려호텔 1등호 실에 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호텔

을 지었다가 이런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은 가슴뜨거움을 금 치 못하며 서울에서 온 늙은 신자를 고려호텔의 1 등호실로 안내하였다.

그 신자는 국민들이나 들수 있는 초호화급호실을 놀랍게 휘둘러보며 《내가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북에서 이처럼 나를 최상급에서 환대해주 는가.》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그이께서는 러관을 하나 지어도 북반부인민들 만이 아니라 남녘동포들을 위해서도 짓도록 하신다 고 하면서 당신들을 위한 호실일것만큼 제집처럼 마음놓고 류숙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너무도 감격하여 벽쪽으로 돌아서 더니 손수건을 꺼내어 흘려내리는 눈물을 훔치였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울의 안전기획 부 요원들은 걱정에 휩싸인 백발의 신자를 1등호실 에서 다짜고짜로 끌어내어 저들이 감시하기 편리한 방으로 밀어넣었다.

참으로 피가 끼꾸로 흐를 일이었다.

수염발이 허연 로인을 짐짝처럼 마구 취급하는 놈들의 행패는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만 행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열화같은 동포애의 손길 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미제와 남조선 피뢰들의 야만행위로 말미암아 분단의 장벽은 아직 도 허물어지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 파쑈의 광풍은 의연히 사납게 휘몰아 치고있으며 인민들은 참된 삶은 위하여 분신자결로, 일가식솔모두가 함께 목숨을 끊는 동반자살로 맞 서 싸우고있다. 수난의 땅, 남녘에서 애통하는 비명 《3악성》은 끊임없이 울려오고있다.

하기에 오늘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픈 마음을 안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으시려고 모든 사색과 정력을 바치고계 시는것이다.

판문점으로 뻗은 고속도로로

류민호

남으로, 판문점으로 뻗은 길
정말 넓기도 해
저 건너편 사람도 못알아보겠네그러
저녁어스름이 내리니
친구와 나 몇사람만이 걷는 이 길
이럴 때면 길이 하 넓어
적절한 생각도 없지 않는데...

하나, 친구여 탓하지 마세
이 길이 이다지도 넓다고
통일의 날 우리 겨레 북과 남으로 오갈 때
그때는 알게 되리
우리 당이 왜 이 길을 이리도 넓게 열어주었는지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어

오영재

사람들이여, 돌이켜보자
세월을 소리없이 흐르는 류수라 하였지만
우리 당이 진두에서 이끌어온
우리의 세월은
사품치는 격랑처럼
소리치며 흘러간 세월이었다
하루에도 천리를 달려온 나날이었다

담대한 우리 당의 심장의 고동소리에 맞추어
해와 달도 흘렀다
빛나는 예지앞에
미래가 달려와 몸을 맡기었다

5 천년 민족사가
우리같은 진군가를 들으며
다함없는 축복을 보내온 세월

인간이 백년을 살고
역사가 천년을 흐른다 한들
다 가질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영원한것을
인민에게 준
아, 그 세월에 영광을 드린다
인민은 영광을 드린다

×

여닐날과 다름없이
레사로이 맞이한 보통날이었다
1964년 6월 19일

넥타이를 가쁜히 맨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게
소박한 인민의 모습으로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김정일동지
그이는 소문도 없이 우리에게 오시었다

성품은 그리도 겸허하시여
우리 조용한 방을 따로 마련해드렸건만
이를 굳이 사양하시고
잡으신 자리는 보통책상에 보통의자

그러나 그이께선 어 보통의자우에서
누구도 볼수 없는것을 꿰뚫어보시고
우리보다 먼곳을 내다보시였어라

하여 그이 20대에 갓 들어서신 젊은
모습이시였건만
사상과 정치의 스승으로
우리 존경하여 따랐노라

수면우의 사소한 변화에서도
그밀에 흐르는 해류의 큰 움직임을 보시듯
그날에 고르롭지 못했던
우리 당의 숨결도 가늠하시고
우리 당, 우리 혁명이 가고가야 할 길을 내다보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나날이여

그이는 이렇게 걸으시였다
우리 당에 청신한 기운을 가득채울
천지의 맑은 물을 안으시고
백두밀림의 새벽바람을 안으시고

지나간 력사의 흑백을
오늘에 가려보며 말하기는 쉬워라
그날에 우리가 볼수 없었던것을
그이께선 보고계시였거니
유럽에서 떠도는 황색구름에서 밀려오는 비바람이
우리 당안에도 비꼬치를 떨굴수 있고
그 비꼬치에서 독버섯이 돋아날수도 있다는것을
그이께선 보고계시지 않았던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 굳게 다진
우리 당 제 4기 15차전원회의여
그날에 그이께서 마련하신 그 연단이 있었기에
하나의 뇌수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주체의 당으로
우리 당이 더욱 강화될수 있었나니

정녕 그이 아니시라면
그 누가 수령님 뿌리신 주체의 씨앗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여
온 사회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강령으로
누리에 자랑높이 선포하실수 있었으랴

우리가 오늘에 생명으로 지닌
전사의 신념과 의지
혁명가의 깨끗한 량심을
그 누가 우리에게 줄수 있었으랴

노래하노라
우리 당의 기둥을 쏘며
우리 당의 전통을 훼손하려는자들

금강산 묘향산의 산놀이로만 사람들을 부를 때
오직 한분
우리 당에 백두산을 안고오신 지도자동지

그이는 자신께서 서계시던
백두의 그 높이에
우리 당을 끌어올리시어
백두의 정신이 내려치는 당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백두산처럼 높고
백두산처럼 뿌리깊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는
위대한 우리 당을 안겨주시었어라

×

사람들이여
우리 그 시절을 감회깊이 회고해보자
그것은 그리운 회고
행복한 추억

그날에 우리는 그이를
옷분으로 존경하여 불렀고
그이께선 허물없이
우리를 동지로 가까이 대해주셨노라

옷분으로
경모하는 지도자로
다음엔 친애하는 지도자로
우리는 그이를 부르며
위대한 인간과 령도의 매력앞에
마음을 다 맡겼노라

그이 당을 강화하시고
령도해나가실 때
우리 당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거니
언제부터였는지 우리 몰라라
그이의 숨결이 당의 숨결로 느껴지고
그이의 의지가 당의 의지로
그이의 인간적품모가 당의 모습으로 되었는데

하여 우리 그이를
친근하게 우리 당이라 불렀고
이 세상 사랑중에
가장 따뜻하고 정다운 사랑을 주는
어머니에 비겨
그이를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그 품에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의탁했노라

×

위대한 심장의 노래를 부르려나
태양처럼 열정에 넘치는 그 심장

태양처럼 사랑으로 파사로운 그 심장

그 심장 한번 뜻을 품으면
우리가 진감하고
그 심장 한번 결심하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어라
그 심장 번개의 섬광을 내뿜으면
산도 갈라지고
격랑 세찬 바다도 잠들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
그 심장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속도전의 불길높은 70년대도
대건설의 포성이 높이 울린 80년대도
당이 결심하면 해내고야마는 기적의 90년대도

그 심장의 뜨거움
인민의 가슴에 옮겨져
《70 일전투》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치고
《200 일전투》, 《100 일전투》
승리의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감하고

그 심장의 거세찬 맥박
강산에 옮겨져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들이
하늘가득 채우며 솟아올랐어라

창광거리를 설계할 때
웅근 한개 구역을 이룬 종파의 오물을
그 심장이 아니라면
어찌 통채로 날려버릴수 있었으랴

물어보자, 조선봉건왕조 500 년이여
사대의 그 력사가 우리에게 남긴것 무엇이였더냐
작은 나라, 작은 인민으로
스스로 몸을 사리던 약소의식
그것이 어제날 우리 민족의 기질이 아니였더냐

하나 그이는 우리 인민을
끝없는 인류의 흐름우에
더 높이 서서 세상을 굽어보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고
대담하고 통이 큰 심장을 인민에게 주시어
민족의 기질을 새롭게 갱신해주시었어라

남이 따로 없고
우리만이 있는 나라
내것보다
우리의것이 더 귀중하고
나의 리익보다
모두의 리익을 위해 몸바쳐가는 내 조국

이런 사회를 바라지 않았더냐

인류가 수천년을
이것을 위해 선각자들은
새로운 사상도 창시했고
성인들은 도덕도 설교했건만

바랐어도 이룰수 있었던가
뜻이 다르면 형제도 원수로 되고
정치가 어지러우면 믿을곳 없어
신에게 운명을 의탁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쉬웠거나
력사앞에 등장한 한 령도자가
천만이 뜻을 함께 할
그런 위대한 진리를 인민모두에게 안겨준다는것이
그 언제 그 어디에 또 있었던가
저마다 처지가 달라
인생의 길이 다른
그들모두의 운명을 책임진다는것이

못나도 제자식 타하는 부모가 없듯
그렇게 수천만을 다 생각하시는
인민의 아버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과 의리로 가슴과 가슴을 이으시며
생사도 같이하시고
고난도 함께 헤쳐가시는
그이 아니시고는 그 누가
이런 대가정의 화목과 단합을
우리에게 줄수 있었던가

어느날 나는 들었노라
한 오랜 로교수의 딸 순희가
아버지가 받아안은
뜨거운 믿음과 사랑에 대해
눈물을 머금고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

창립기념일을 맞은 아버지의 직장에선
크나큰 경사가 났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순간
나는 흥분으로 가슴 울렁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두번째줄... 세번째줄...
마지막줄까지 더듬어보았건만
아버지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일도 많이 하셨고

박사의 학위까지 받아안은
우리 아버지
나는 막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했는지

침울하신 얼굴로 집에 들어서시는
아버지에게 나는 발을 구르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어찌된 일이에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도 젖어있었습니다
《순희야!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노라면
간혹 이런 일도 있을수 있는것이다》
하시며 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쩐다 해도
당만을 믿고 살아가자!》

아쉬워 눈물짓다가 나도 잠에 들고
달래이시다가 아버지도 잠들었건만
이 일을 두고 온밤 잠 못드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이런 중대사변이 어데 있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경력을 보지 말고 충실성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람을 믿되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큰 행사를 계기로
나는 그 동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신문에 보란듯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는
아버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지도자동지
《좀더 가까이 수령님곁에 서십시오
오늘에야 내 마음이 좀 풀리는것 같습니다
동무의 곁에서 나도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온 가족이 받아안은 순간
나는 눈을 씻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수령님곁에 선이가 나의 아버지가 옳은가싶어
그렇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엔
아버지만이 아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이
서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수 없는
크나큰 믿음이 서있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칠수 없었던
광복의 정치

인민의 정치가 서있었습니다

×

사위는 고요하고
은하수 유난히 밝게 흐르는
별많은 하늘밑에서
사람들 시름없이 깊이 잠이 든 이밤
새벽녘까지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에 흐르는 별빛을 우리러
시인은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서있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온 하루 쌓인 일감이
그리도 많이 기다리고있습니까
인민들의 위훈의 새 소식이
그리도 기쁘시여 잠 못드십니까
아니면 인민에게 더 많은것을 주시지 못해
가슴아파 잠 못드십니까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의 지도자, 우리 아버지
정치를 말하기에 앞서
사랑이 가슴속에 넘쳐있기에
당신은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으로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계십니다

인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두고
그리도 눈물이 많으신분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정이 고마워
우리도 눈물이 많은 인민이 되였습니다
뜨거운 심장에서 솟구쳐오르는
이 순결하고 투명한 마음과 정이 합쳐져
당신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가 되였습니다

정치가 력사의 엄혹한 검증을 받는
다난하고 심각한 이 세월
판료로 인민의 머리에 군림하고
세도로 인민을 다스릴 때
그 정치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세상은
보고있습니다

한없는 행복과 자부심에 넘쳐
참다운 사회주의정치
김정일식정치를 우리는 노래합니다
당신은 인민의 머리에
인민의 심장속으로
정치가 서있어야 할 위치를 바꾸어놓으신
사회주의 새 정치의 위대한 개척자이십니다

인류 수천년을 내려오던
종래의 정치방식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주체의 정치철학과 정치리념을
새롭게 정립하시여
실천으로 옮기신
새형의 사회주의정치가이십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의 좌우명은
우리 당을 위하여 복무함!
필생의 이 좌우명이
하나로 합쳐진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입니다

이렇게 일심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정치
당신께서 이 위대한 정치로
제국주의 압력과 공세로부터
사회주의를 구원하시였습니다

단결을 웨치며 시작한 혁명이
단결을 생명으로 여기고 걸어왔건만
이런 단결은 아직까지 이룩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단결이 없이
가는 길에 암초가 있다고 예돌아야 했고
때로는 흩어져
다시 대오를 수습하기까지
귀중한 세월을 잃고있습니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께서 개척하시고 창시하신
김정일식사회주의정치는
단결의 완성을 이룩한 불패의 정치
이 정치를 따르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만이 있을것입니다

×

력사의 유구한 흐름속에서
또하나의 세기가 저물어가고
21 세기가 눈앞에 보여오는
90 년대의 언덕에서
나는 20 세기와 21 세기가 주고받는 말을
조용히 귀기울여 듣고있노라

20 세기는 말한다

-세계평토의 절반을 덮으며
그리도 세차게 나뭇기던 사회주의붉은기
량극을 이룬 첨예한 대결속에
흘러온 70년세월
이 세월을 두고
20 세기-내가 찾은 교훈은 무엇이었던가

승리는 승리로 이어지고
혁명의 원칙은 원칙으로 고수되고
수령의 위업은 위업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혁명의 철리

나는 보았노라
극도로 오만해진 제국주의무리들
조선으로 공격의 화살표를 그으며
《사회주의종말》의 마지막격전을
이 땅에서 벌리려 함을

끓어오르는 동정과
가슴조이는 불안을 안고
나는 세상을 향해 부르짖었다
진리의 반역이여
력사의 역행이여
악한의 폭행에 선량한 정의가 교살되는
그런 참경을 조선에서 보아야 한단말인가

《팀 스피리트》의 검은 포아구리들이
조선을 향해 육박하고있을 때
《헝사찰》의 《최후통첩》이
시한탄의 초침처럼
무서운 폭발을 각일각 예고하고있을 때
나는 상상을 뒤엎은 기적을 보았다

정일봉상공에 때아닌 우뢰를 터치며
이 나라 령장의 추상같은 목소리가 지구를
흔들었다
덤벼들면 보복을 면치 못하리라

나는 보았다
백두령봉의 기암절벽들이
순식간에 창검이 되어 솟구쳐오르는것을
그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백두의 아들
백두산형의 강철의 령장이
한번 명령을 내리시자
인민모두가 떨쳐일어 총폭탄이 되는것을

그것은 날아오는 총알에
맞받아 응대하는 대포였다
밀려오는 사나운 파도를
산산이 물방울로 짓부셔버리는
천길 끄떡없는 절벽이었다

아, **김정일**장군-그이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무궁무진한 힘의 화신
천명의 령장이 모여도 찾아낼수 없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인민지혜의 화신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가시는
영원한 승리의 화신

배짱도 장군의 배짱
담력도 백두의 담력
기상도 필승의 기상
이기는것이 천품이신 강철의 령장앞에
원썬들은 전율하며 뒤걸음찼거니

그것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의 승리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의 승리
탁월한 지략과 담력의 승리
인간중의 가장 위대한 인간의 승리
인민적령도의 대승리

행운이여라
영광이여라
20 세기는 **김정일**장군 모시여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한
영광의 세기로 되었노라

수난많은 20 세기의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공산주의운동의 전투서열을
새롭게 정리하고 재편성하시며
21 세기의 문으로 향해 가시는 그이를
나는 끝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바래워드리나니
20 세기-나는
나의 세기의 총화를
위대한 **김정일**동지-그이께 맡기노라

21 세기는 말한다

-세계와 인류를 나에게 넘겨주려
20 세기가 나의 문을 두드릴
그 시각이 가까와올수록
나의 마음은 침울해지고
불안은 가셔질길 없었노라

배신자들은 자본의 사환군이 되어
또다시 인민들을 노예의 울가미에 밀어넣고
진정한 사회주의조국을 잃은 사람들
마음의 기둥을 잃고
자기만을 위해 피눈이 되어
인간타락의 시궁창속을 헤매이고있거니
어찌 가공한 그런 인간들을
21 세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일수 있을것인가

하나 나는
먹구름 덮힌 어두운 천지에서서
한조각 열린 푸른 하늘을 보듯
황량한 사막에서 한떨기 꽃을 보듯
미래가 그토록 바라고있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살고있는 기적같은 나라를
기쁨에 넘쳐 바라보고있나니

조국이 바라는곳이라면
 그곳이 산설고 바람세찬곳이라도
 기꺼이 정든 집을 두고가는 사람들
 남의 불행을 두고
 가슴아파 깨끗한 인정의 눈물 흘리며
 자기를 다 바쳐가는 사람들
 아노라, 이 사람들

김정일 동지의 사회주의정치
 인덕정치가 피운 아름다운 꽃송이들임을

원썬들이 당장 래일이라도
 사납게 덮치려 날뛰고있는
 가장 엄혹한 날
 아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건만
 어떻게 이렇듯 인류사에 없는
 인간정화의 극치
 인간정신의 상상봉에서
 그렇게 깨끗한 웃음이 피어날수 있고
 그렇게 맑은 량심의 샘이 솟아날수 있을것인가

아, **김정일** 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인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인간만세를 높이 부르며
 공산주의인간의 마음을 보석처럼 담아가고있는
 인민들

이런 인민은 결코 굴복될수 없으랴
 이런 인민앞에 포아구리를 겨누고
 살륙의 전쟁을 노리는자
 선량한 인류의 저주속에
 정의와 량심의 규탄속에
 력사와 시대의 심판을 받으리라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되지 못하리라

오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치를 안고
김일성 김정일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나라
 조선인민이여 오시라
 나는 그대들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는
 인민의 아들, 백두의 아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나의 문을 열고 들어선
 21 세기의 열쇠를 드리리라

영광스러운 **김정일** 동지의 인민이여
 나는 그대들의 머리우에
 승리의 월계관을 얹어주고
 앞가슴에 꽃목걸이를 빛내주리라
 21 세기의 주인으로 기쁘게 맞으리라

그러면 그대들은
 가장 맑고 푸른 하늘과
 가장 따사로운 햇빛

가장 풍요한 대지를 안으리라
 영원한 삶의 승리를 떨치리라-

21 세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격조높이 웨친다

×

노래하자
 그이의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의 시대여
 우리의 시대는
 주체의 당으로 우리 당을 강화한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시대
 이 땅에 대번영기를 열어놓은 시대

노래하자
 영광의 시대여
 이 시대는
 주체의 진리가 승리한 시대
 위대한 일심단결로
 사회주의를 지켜낸 시대

그렇다
 그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의 시대
 국제혁명력량이
 《평양선언》의 기치를 높이 든 시대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 령도의 30 년은
 위대한 사상의 절정
 령도의 절정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의 절정
 우리 그이를 모시고 받들며
 30 년을 이어 300 년 3000 년을 따르리니

맞으랴
 21 세기 래일의 새 세기여
 20 세기의 신념과 의지를 맞으랴
 너의 진정한 주인
 새 세기의 영웅을 맞으랴
 새 세기의 수령을 맞으랴
 빛나는 태양을 맞으랴

불멸하리라
 청사에 길이 빛날 그 위업
 인민과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우리 당의 령도자를 우러러
 온 누리에 자랑높이
 인민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노라
 위대한 **김정일** 동지 만세!

(1994. 6.8)

봄의 축복

박해란

1

국경의 관문역인 남양에서는 평양행 증기기관차가 색이 바래고 낡아빠진 차량들을 주련이 꺾여달고서 숨가쁘게 칙폭거리고있었다. 허술한 망태기며 보통이를 둘러맨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승강대로 오르느라 붐비었다. 정임이네 온 식구도 어른아이 달라붙어 달구지로 실어온 짐들을 차칸으로 나르기 시작하였다.

작달막한 키에 오달져보이는 오래희로인은 승강대우에서 머느리들이 올려주는 가장짐물들을 연신 받으면서 짐을 잃지 말라고 채근하곤하였다. 연길땅을 떠나올 때도 로인은 걸어낼것은 다 걸어낸 헛간에서 종자를 담아두곤하던 씨오쟁이를 얻어내왔다. 이미 챙겨놓은 올망졸망한 짐들을 민망스럽게 쳐다보며 정임은 은근히 시아버지에게 비쳐보였다. 《아버님, 평양에 가면 농사지를 땅도 없겠는데 그건 뉘두고 가자요.》

로인은 씨오쟁이에 감긴 해묵은 거미줄을 쓸어내면서 돌쩌머느리를 나무랐다.

《이제 평양에 가면 다 쓸모가 있느니라. 나라가 해방되었어도 평양은 아직 재무지를 털지 못했을게다.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장군님께 그만큼 폐를 끼쳐드리지 않겠느냐? 쓰던 물건은 말짱 걸어가지고 떠나자꾸나.》

그렇게 끌고온 짐들을 지금 기차에 올리고있는것이다. 오래희로인을 내놓고는 모두 아녀자들뿐이지만 손새는 모두 걸쭉다. 한식술이 분명한 일행중에 남정들이 없는것이 류다르게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왜놈세월에 남편과 헤어지고 영영 잃어버린 녀인들이 오죽이나 많은가.

이 집안의 남정들은 항일유격대에서 총을 잡고 싸우다가 한명도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삼촌 사촌지간이 모두 한지붕아래 모여살던 대식구가 지금은 시아버지와 동서들 서넛, 아이들 대여섯명이 이 일가의 대표자로 되었다.

짐을 다 올리고난 정임은 승강대주위를 맴돌아치는 아이들을 불렀다. 기차를 처음 타보는 애들은 빨리 타라는 정임의 독촉에 그만에야 두려움을 느끼고 먼저 타라느니 나중에 오르겠다거니 신경이를 벌렸다. 할수 없이 장인은 제일 큰축에 속하는 아들 일렬이와 세살 아래인 길옥이를 먼저 승강대에 올렸다.

길옥은 유격대에서 7련대장을 하다가 룡과송전투에서 희생된 사촌시아우 오중흙의 딸이다. 마음

씨 곱고 일 잘하던 그애 어머니도 유격구방위전투 때 왜놈들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어머니, 내 신발...》

기차우에서 일렬이가 웨치는 말이다. 짚신 한짝이 벗겨져있었다.

《어디메 땔구었니?》

헤덤비는 아들을 나무람하며 땅바닥을 허둥거리는데 머리에 캡을 눌러쓴 살집좋은 사람이 어느결에 짚신을 집어 정임의 손에 들려주었다.

《고마워요.》

정임은 짚신을 받아들며 얼굴을 붉히었다. 시아버지가 밤새워 삼아준 신이 먼길을 걸어오느라 여러군데 해지고 바닥이 드러났던것이다.

(애두, 차분차분 걷지 않구.)

방금 짚신을 찾아준 손님이 기차에 오르더니 정임의 아쉬운 마음에 부채질하듯 일렬이를 향해 던지시 물었다.

《꼬마친구, 어디까지 가는지 꿰진 신을 신고 꽤 가내겠니?》

《아저씨, 난 맨발루라도 평양까지 가낼수 있어요.》

일렬은 자기의 심정을 몰라주는 손님의 말에 코바람을 내뿜며 말총을 쏘았다.

《하하하... 네 말이 옳다. 해방이 되었는데 신발이 해졌다고 제집을 못찾아갈가?》

정임은 순간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제집을 찾아떠나는 행렬속에 자기도 끼여있다는 생각이 용암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이였다. 평양에 살붙이가 기다리고있는것도 아니건만 내 집처럼 한시바빠가 닿고싶은 마음이었다.

역홈이 비좁게 들어찼던 사람들도 퍼그나 줄어들고 배웅하러 나온 이고장대기들 몇몇이 차창가마다 모아붙어 북관사투리의 억양으로 인사말을 주고받고있었다.

정임이네도 자리를 정돈하고 렬차가 떠날 시각을 기다렸다. 손을 흔들며 바래워줄 사람도 없으니 어서 떠나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뵙-》

정임의 심정을 알아주듯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어제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탄식의 한숨소리를 순식간에 흘날려보내려는듯 기적소리는 힘차게 울렸다.

순간 약속이나 하듯 온 식구의 시선이 차창가에 박혔다. 차창밖으로는 연연히 뻗어나간 산발들이 동터오는 새벽의 운무속에 고요히 잠겨있었다. 그 산발너머에는 빈집만 남겨두고 떠나온 연길현의 그

막바지기슥이 있을것이다. 왜놈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 피눈물을 뿌리며 남편들이 없는 고생살이로 긴긴 해를 살아온 쓸쓸한 고장이 이 한순간에는 말 못할 애수를 자아내는것이였다.

《중화야- 중성아-》

잠든 자식들을 조용히 불러깨우듯 오래희로인은 입속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외었다.

정임은 차창에서 눈을 뗐다. 동서들도 저고리고 름을 눈가에 가져갔다. 모두 자기 남편들과 이 자리에 없는 애들의 아버지들, 삼촌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국의 황야에 봉분도 없이 뿔뿔이 묻혀있다. 열일곱을 헤아리는 동생들과 자식들, 조카들을 잃은 오래희로인과 스물안팎에 초년과부가 된 녀인들 그리고 희생된 시형제들이 씨앗처럼 한둘씩 남겨놓고간 조무래기들도 이 시각 뿌옇게 흐려오는 눈으로 기적소리가 퍼져가는 먼 산발들을 바라왔다. 달아오른 눈굽들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애달픈 그리움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지겨웁고 설움 많던 생활은 이제는 어제로 되어 버렸다. 지금 정임이네 온 식구는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방의 감격속에 건국으로 뚫어번지는 조국,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는 그들의 어제와 오늘을 싣고 궤도우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정임은 기쁨에 들떠 조잘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죽물을 먹어도 한그릇에 담아 나누어먹으며 자란 애들이어서 그런지 사이가 께 자별했다. 거의나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란 애들이였다. 그애들의 아버지들을 생각하자 느닷없이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해도 같이 살아보지 못하고 유격구에서 만나자 헤어졌던 남편, 그것이 영리별이 될줄을 어찌 알았으랴.

정임은 고향을 휩쓴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잃고 병마에 지친 아버지를 부축하고 두만강을 건너 석현이라는곳으로 왔었다. 조선사람들이 그중 많이 살고있는곳에 집터를 잡고 의지하면서 살고싶었던것이다. 전염병으로 말끔히 빠졌던 머리가 새털처럼 자라 겨우 외래머리를 땅을 무렵 불쑥 처녀의 꽃피는 시절이 정임을 찾아왔다. 인물 굵고 아버지께 대한 지성 또한 극진한 처녀라는 칭찬이 한입 건느고 두입 건너 어느덧 오래희로인의 집을타리안에까지 동네돌이를 하였다. 맏아들 중화와 큰 조카들은 길림이요 연길이요 하는곳에 나가 교편들을 잡고있었고 둘째아들 중성이야 마을에서 야학을 가르치고있어 《오선생댁》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딸가진 집들에서는 은근히 원심을 써오던터라 그런 집에서 혼사말을 꺼내오자 정임의 아버지는 두말없이 딸을 그 집에 들여보냈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시집온 정임은 마을의 야학선생이 바로 자기 남편이라는것을 알고

어마지두 놀랐었다. 까막눈인 자기가 어떻게 인물 잘나고 우스개소리도 곧잘 하고 게다가 글까지 깨친 훌륭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았는지. 이런것을 두고 아마 연분이라 하는게라고 정임은 생각했다. 열어졌힌 문안에서 울려나오는 남편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흠쳐들느라면 수집음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시내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럴수록 정임은 학생이 선생을 대하듯 남편이 어려웠다.

어느날 저녁 그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면서 광술불을 마주하고 바느질을 하고있었다. 그러던참에 불쑥 방문이 열리였다. 남편이 싱글벙글 웃는 낯으로 들어왔다.

중성은 밥상을 차리려고 다소곳이 일어서는 정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임이, 오늘부터 정임이도 글배우지 않겠소? 동네녀인들모두가 글배우러 나오는데 당신도 글을 배우지요.》

《어마나, 제가 무슨?...》

정임은 달아오르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황급히 손을 뗐다. 처녀적이라면 몰라도 이제는 남편의 뒤바라지나 잘해주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었다.

《왜? 내가 밤마다 배워주면 되잖소? 물론 낮에는 밭에서 종일 땀흘리고 밤에는 바느질하고 글까지 배우자면 힘이 들게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집을 떠나 교편을 잡고 밤마다 야학을 열고 글을 가르치고있는것이 무엇때문이겠소. 제 나라를 찾자고 그러는것이 아니겠소. 타향에서 왜놈발밑에 짓밟혀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차라리 몸이 찢겨도 왜놈들과 싸워서 나라를 찾는 길이 보람있는 일이요. 그러자면 알아야 하요. 알아야 혁명에 몸바쳐 나설수 있소.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우리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며 지켜가는 오씨집안의 가풍이요.》

정임은 가물거리며 타오르는 광술불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는가 비로소 깨달아지는듯했다. 시형제들이 하고있는 그 범상치 않은 일들을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니 밤마다 호미자루를 쥐였던 마을사람들에게 이름자를 배워주고 조선팔도를 가르치는 남편의 사업도 결국 혁명이 아닌가.

정임은 광술불빛이 가느다랗게 비치는 노전우에 엎디어 남편의 목직한 손에 이끌려 한자한자 글을 익혀가던 그밤들을 정녕 잊을수가 없었다.

해방의 날을 위해서 그 많고 많은 밤들을 새워가던 남편이 이자리에 함께 앉아가지 못하는것이 가슴을 허비였다.

집을 떠나 고생하던분들은 모두 땅속에 묻히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평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함께 가지 못하는 그분들앞에 죄스럽고 송구스럽기란 이룰데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씨일가를 부르시였다는 소식이 왔을때부터 정임은 수저를 들어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기쁨과 가슴저러움이 한데 엉

켜돌면서 입술에 물통기가 지고 귀는 숨을 틀어박은 것처럼 멍멍하기만 했다. 더구나 추억은 마음속에 묻어둔 슬픔의 상처를 마구 헤집어놓았다.

차창밖을 스치며 연줄연줄 흘러가는 검푸른 산발들을 내다보며 정임은 남편의 넓이라도 함께 마음속에 안고가고 싶어졌다.

동심한 얼굴에 가리마를 내어 낭자를 엮은 30대의 이 젊은 여인은 시컨의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얼굴들도 하나하나 눈앞에 그려보았다.

장군님을 따라 집을 나섰던 그들,

총을 메고 왜놈들과 싸우다 한줌 흙으로 숨진 그들이었다.

불시에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올랐다.

한번밖에 만나뵈지 못한 장군님이시였지만 그이께서 그 가을날 정임의 손에 쥐여주고 떠나신 빨간 찰팡이는 세월의 갈피를 들출 때마다 못잇을 추억의 향기를 풍기곤 하였다.

정임은 이 시각도 그 달콤하고 향긋한 빨간 찰팡이를 그려보며 1930년 9월의 청명한 가을날을 회상하였다.

정임이가 시집을 오기 훨씬 이전에 오래희로인은 현성에서 100리나 떨어진 막바지골안인 석현땅에 다 나라 잃은 설움과 함께 온 일가식솔의 려장을 풀어놓았다.

산 좋고 물 맑은 고향을 하직하고 떠나온 로인의 네형제는 서로 헤어져 판살림을 펴려고 하지 않았다.

끝끝한 젊은이들은 남들이 부러워할만치 큰 집을 지어놓았다.

그 지방아래서는 해마다 자손도 태어났고 꽃같은 며느리들이 들어와 식솔은 자꾸 불어났다.

로인형제간이 모두 딸보다 아들을 많이 두어 번창하던 집안이였으나 다 큰 자식들은 온성으로, 길림으로, 서울로 등지 텅 새들처럼 훌훌 날아나는 바람에 집안밖의 살림은 전부 녀자들이 맡아하였다.

로인의 둘째아들 오중성도 온성일대의 혁명화를 위하여 풍리라는곳에 옮겨가서 학교일을 보고있었다. 한해겨울이 지나자 그에게서 정임이앞으로 편지가 왔다. 이웃들에게 너무 폐를 끼쳐 그러니 한동안 풍리골에 와서 때식을 끓여달라는 내용이었다. 돌담아래 수집계 얼굴을 내민 제비꽃마냥 सू저운 기쁨이 정임을 살그머니 휩싸안았다. 시집와서 남편의 얼굴을 채 익히기도전에 갈라져있다보니 외로울 때가 많던 정임이었다. 어떤 조용한 저녁때면 남편이 못견디게 그리워 그만 이불깃에 눈물을 적시기도 했었다.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의 이 심정을 헤아려 남편이 오라는데 얼음풀리기를 기다리겠는가고 하면서 서둘러 짐보따리를 꾸려주었다.

뚝배기며 웅배기따위는 나누어가질것도 못되어 시집을 때 가져온 술 한계를 머리에 이고 옷보통이를 허리에 두르고 떠났다.

그는 시집가는 새각시처럼 부푸는 가슴을 달래이며 두만강의 얼음판을 건넜다.

첩첩산으로 둘러막힌 마을어구에서 정임은 보고 싶던 남편을 만났다.

이날밤 중성은 정임이와 마주앉자 연필과 공책을 내밀었다.

《그동안 글공부한것을 적어보오.》

애뜻한 인사말도 나누기전에 손에 연필을 쥐여주며 하는 남편의 말에 정임은 당황해졌다. 석현에 있을때 먼곳에 가있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그가 주고간 연필로 한자 써보고 두자 써보면서 글을 익힌 정임이었으나 정작 그 앞에서 글을 쓰자니 손이 굳어져 제대로 쓸수가 없었다. 밤길도록 내리덮이는 눈시울에 물을 적서가며 힘들게 익힌 글을 바로 써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보다도 삼을 삼고 물레를 돌리느라 얼어터지고 험상궂게 된 손을 내놓기가 부끄러웠던것이다. 이어 남편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 밀려들면서 끝내 손등에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다. 한방울 두방울 손등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공책위로 도르르 굴러내리는 양을 지켜보던 중성은 문득 그의 두손을 감싸쥐고 손바닥으로 눈물자리를 닦아주었다.

《정임이, 이제 고생한 보람을 찾게 될 날이 꼭 올거요. 그날까지 힘들어도 고달픔을 참고 견딤시다. 배우고 일하면서말이요.》

중성의 나직하면서도 정열이 내배이는 목소리, 그의 입가에 떠도는 부드러운 뜨거운 입김이 정임의 폐부속으로 스며어들었다. 그러자 남편이 곁에 있다는 행복감으로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임은 혼자몸이 아닌속에서도 남편의 뒤바라지를 해나갔다. 나무를 뜯어 말리우고 송기를 벗기고 나무를 해오고 비탈밭을 갈고구 하는 일을 도맡아 놓고 해나갔다. 제집을 떠나 남의 집 옷방에 얹혀살림을 하면서도 기동처럼 의지할 남편이 곁에 있으니 건디여 낼수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저녁녘이 다 되었을무렵 석현에서 사촌시아우 둘이 찾아왔다. 나루배로 물레 강을 건너 산골길을 내쳐 뛰어오느라고 맨발인지 짚신발인지 분간할수 없는 차림새들이었다.

땀으로 옷이 물주머니가 되어 방안으로 들어선 그들을 보자 정임은 속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주머니, 길림서 손님이 오셔요. 형님을 만나시자구 말이예요. 중화형이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인젠 산을 거의 내렸을거예요.》

정임은 학교쪽으로 뛰어가는 시아우들을 불러세웠다.

《어떤 분이게요?》

《이제 만나면 다 알게 돼요. 아주머니,식사를 빨리 준비해줘요.》

둘은 다시 급한 걸음으로 돌아섰다.

(어떤분이시길래 길림에서 예까지 찾아오실까?)
문득 마음이 서둘러졌으나 남편을 찾아 먼길을 걸어오시는 손님에게 무엇을 차려드려야 할지 난감했다.

정임은 방구석에 놓인 항아리의 나무덜개를 열고 한되 될가말가한 기장쌀을 바가지에 몽땅 퍼담았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흰쌀이 있으면 좋으련만 수저마저 주인집에 얻어쓰는 형편이라 흰쌀이 있을리 만무하였다. 봄에 뜯어다 놓은 취나물생각이 났다. 정임은 그것을 집뒤에있는 샘터에 내다가 행구어놓은후 갖김치단지를 샘물에 담가놓았다. 그래도 마음은 성차지 않았다. 귀한 손님을 빈손으로 맞이하여 녀자의 도리를 지키지 하게 되었다는 근심이 머리를 들자 문득 타향살이와 남의 집 옷방살이의 신세가 가슴을 치며 서러움이 북받쳐올랐다. 정임이가 샘터에 앉아 남몰래 눈물짓는 것을 본 눈치 역은 주인집할머니가 고맙게도 햇쌀 한사발과 고추토장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왔다. 인정은 역시 가난속에서도 굶는 법을 몰랐다. 정성껏 차린 밥상우에 깨끗한 베보자기를 씌워놓았을 때는 초생달이 어느새 하늘중천에 걸려있었다.

사립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중성이가 형인 중화와 같이 학생복차림의 젊으신분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릉름한 체격을 갖추신분이였다.
정임은 미처 문밖에서 맞아드리지 못한 죄송감을 안고 방안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나 무거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을 가누였다.

《아주머니, 객지생활에 중성동무를 돕느라 고생이 많겠습니다.》

손님의 우렁우렁하면서도 담찬 음성은 정임을 더욱 송구하게 하였다. 남편에게 그저 때식이나 끓여드리고 옷이나 빨아주고 잔시중박에 해운것이 없다. 그런데 앞에 서계시는 분은 녀자들이 하는 일을 높이 취주시는것이다. 아침해살마냥 온 방안이 환하도록 미소를 지으시는 그분의 따뜻한 말썬에 정임은 웃고름만 만지작거리는데 시형이 정임을 대신하여 말썬을 드렸다.

《성주동지, 우린 이 생활에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 않습니다.》

《허허 중화동무는 녀성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을 기둥처럼 믿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남편에게 지성을 다하는것이 바로 우리 조선녀성들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중화동무나 중성동무도 집근심을 덜고 나라를 찾는 사업에 한몫 바칠수 있는것이 아니겠소? 정말 녀성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임은 눈가에 핑그르르 내배는 물기를 웃고름으로 찍어내였다. 그럴수록 정처없이 떠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마음속고통을 함께 나누

시는 고마우신 분들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죄스러움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밥상을 가운데 놓고 일순 생경이가 있었다.

시아우들이 바닥에서 밥을 먹겠다고 우기었던것이다.

젊으신분은 밥은 다같이 둘러 앉아 먹어야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좁히시여 끝내 그들을 한상에 나앉게 하시였다. 화기가 넘치는 식사도중에도 이따금 의미심장한 말들이 오갔다.

정임은 문득 시형의 걸음이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디론가 또다시 떠나는것이다. 정작 남편이 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속이 두근거려였다. 얼마나 오래 헤어져있을는지 오래지 않아 태어나게 될 애도 보지 못하고 타고장에 가면 소식을 어떻게 전한담

정임은 식사가 끝난것도 모르고 멍청하니 앉아 제 생각에 빠져있었다.

《여보, 옷들을 있는대로 다 꺼내주오.》

남편의 목소리에 정임은 흠칫 놀라며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얼른 부해진 몸을 일으켜 께짜앞에 다가앉아 조심히 고리를 벗기고 차곡차곡 포개져있는 옷들을 꺼냈다. 석현에서 이리로 올때 바느질하여 마련한 옷들이다. 집을 떠나기전에 시아버지가 남정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나들이 옷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푼전을 모아 가게방에 걸린 천을 끊어왔었다. 언제보아도 모든 일에 사려가 깊은, 그래서 더욱 존경이 가는 시아버지였다.

중화는 그중 커보이는 검은색 다부산자를 골라 손님엑 드렸다.

《성주동진 어제부터 중국인 상류계층의 도련님입니다. 나는 도련님의 땅을 얻어부치는 농군이구요. 그리고 중성인 여전히 시골훈장이다. 자 너희들도 한벌씩 꺼입어라.》

께짜은 순간에 밀창이 드러났다.

《허허, 우리때문에 께짜안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게 아니요?》

젊으신분이 다부산자를 걸치시다말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하시는 말썬이다. 옷을 집어내던 중화가 빈 옷께짜를 들여다보고서 미안쩍은 눈길로 손님을 돌아다 보았다.

《성주동지, 까짓거 해방이 되어 잘살날이 오게되면 이 빈께짜에 비단필을 하나가득 채워줍시다.》

성주라고 하시는분은 소리내어 크게 웃으시였다. 중화도 덩달아 웃으며 한마디 더 보태였다.

《제수는 그 빈께짜 간수나 잘 해주오. 내 잊지 않고 비단필을 지고 제수를 찾아오리라.》

중화의 통쉬인 말에 병글거리던 중성이가 정임에게 눈을 께쩍해보이며 대꾸하였다.

《에라, 아무래도 해방덕은 입어봐야겠으니 아까울게 있을소냐, 여보 그 께짜밑에 있는 지하족두컬레도 마저 꺼내놓소. 옷도 날개, 신발도 날개라는데

우리모두 날개를 달고 온 세상을 훨훨 날아봅시다.》

흐드러진 웃음소리가 온 방안에 넘쳤다. 정임의 눈가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새 이슬방울로 변하는 것이었다. 작별의 순간을 앞두고 내색을 앓으려는 남편의 마음이 헤아려지며 길 떠나는 남편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정임의 심정을 아시었는지 젊은 신분은 유쾌한 어조로 입을 여시었다.

《중화동무말이 동생이 형편없는 우스개군이라더니 알고보니 중성동문 피짜요, 피짜, 하하하》

새 신발을 신은 시아우들도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임은 손님들을 뒤따라 조용히 마당에 나섰다.

다부산자차림의 젊으신분은 신통히도 학식이 대단한 중국청년같아보였다.

정임이가 손님의 차림새를 눈여겨보자 그분께서는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시었다.

《아주머니의 바느질솜씨가 참 곱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바느질을 잘하시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몸으로 나를 녀려하여 갈아입을 옷을 짓고 계실겁니다.》

그분은 어머님의 고생을 온몸으로 느끼시는듯 안색을 흐리시었다.

중성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았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도 동감이사라는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오동무, 조선의 젊은이들의 임무가 무겁소. 우리는 왜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혁명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가 기어이 내 조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분은 작별을 앞둔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많으나 마음속에 묻어두시려는듯 한동안 별들이 무수히 깔린 밤하늘을 바라보시었다. 문득 생각되시는 것이 있는듯 시동생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드시더니 뚜껑을 열고 그안에서 빨갭게 익은 찹쌀이 한줌을 꺼내시었다.

《내 아가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보니 찹쌀이가 많이 열렸더군요. 한알을 입에 넣으니 너무 맛이 좋아 그냥 지날수 없구 해서 좀 따넣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받아주시요. 아주머니에게 이것밖에 남길 것이 없구만요.》

정임은 황황히 두손을 받쳐 그분께서 내미시는 빨간 열매를 받아들었다. 그래도 그분의 마음한 구석에는 죄송감이 그냥 남아있는듯 하시었다.

《우리가 구실을 못하여 타향에서 녀성들을 고생시키는것만도 죄스러운데 나는 또 아주머니에게서 남편마저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머니가 중성동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될 우리의 심정을 리해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서로 헤어지지만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모두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남편과의 작별을 자신의 일처럼 피로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대하자 정임은 울지 말자고 다짐했으나 자신의 마음속밑바닥까지 환히 들여다보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에 그만 이슬방울을 내보이고야 말았다. 눈물은 툭랑 떨어져 손안에 들어있는 열매우에 얹혀졌다. 뜨거운 눈물방울에 젖은 빨간 찹쌀이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면서 생긋한 향취를 돈구었다.

아, 그 향기, 그 빛깔을 정녕 잊을수가 없었다.

미래의 새 생명을 축복하여 일부러 따오셨을 그 열매를 자기의 손에 쥐여주시던 인자한 손님이 바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이신줄 정임은 미처 알지 못했었다.

2

덜커덩 덜커덩 ...

기차는 흰증기를 뿜어올리며 여전히 궤도우를 달리고 있었다. 정임이네처럼 눈물속에 두만강을 건넌 사람들이 아득히 뻗은 궤도우에 몸을 싣고 고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해방의 소식을 굵뜨게 전해 듣고 연해주와 동북땅에서 남양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운데는 제땅 한뼘기 얻어보자고 두만강을 건넌다가 피눈물에 절을대로 절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름살투성이의 늙은이와 아녀자들도 끼여있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피멍이 진 그들의 가슴에도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었다. 비탄과 눈물로 얼룩졌던 어제날은 영영 끝장났다.

해방의 기쁨은 광활한 대지에서 이 차칸안으로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흘러들었다.

봄, 새 생활이 싹트는 인생의 봄이 처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찾아왔다.

차창밖에서는 해빛이 묵은 땅을 한껏 부풀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봄바람에 색기들이 펄럭이고 여기저기 패말이 꽃혀있는 밭들에서는 배부른 소가 천천히 가대기를 끌고 있다. 방금 갈아제긴 땅들에서는 뚝시루처럼 김이 피어올랐다. 땅의 호흡이, 씨앗을 기다리는 대지의 호흡이 시작되고있었다.

불쑥 의자등받이너머에서 청높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야, 저기선 벌써 밭갈이를 하는구려.

김일성 장군님께서 농군들에게 땅을 주셨다더니 과연 참말이었구만.》

김일성 장군님께서 농사군들에게 땅을 주시다니. 부러움과 환희에 찬 시선들이 바깥풍경에 났을 빼앗긴채 꼼짝않고있었다. 마음속에 끓던 격동들은 드디어 차칸안에 터지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임은 그도 땅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짐작했다. 활달하면서도 싹싹한 목소리가 흐느끼고있는 사람을 위안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고향에 가시면 할아버지도 땅을 받을겁니다. 우리 고향집에서도 3천평의 땅을 분여받았다고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날더러 농사를 짓자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난 해방전에 징용으로 광산에 끌려갔거든요. 내가 일하는 광산도 인젠 우리 광산이 되었는데 그걸 철회하고 제집농사 짓겠다고 가겠나요? 그래서 난 아버지한테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 장군님 은덕에 보답하고 이 아들은 쇠돌을 더 많이 캐내어 장군님 은덕에 보답하자고말입니다.》

분여받은 땅을 구경하러 잠간 집에 간다는 청년의 말은 차칸안의 사람들을 향수에 젖게 하였다. 발같이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할 길이 없어 어깨를 들먹거리면 늙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좌중의 이목을 끌었다.

《여보게 젊은이, 땅 한뼘이 얻어부치자고 간도의 온 천지를 안다너본데가 없는 내가 해방덕에 인제야 제땅을 가지게 되나보이. 장군님께서 우리 농군들에게 땅을 거저 주시다니.

여러분네들, 장군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백성된 도리를 다하겠나.》

차칸은 물을 뿌린듯 잠잠해졌다. 남너할것 없이 귀기울여 그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정임은 시아버지를 건너다보았다. 로인도 눈을 습벅거리고있었다.

어느새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꼬리를 물고 펼쳐졌다. 감사의 정에 넘친 심장들이 불을 지펴올린것이다.

정임이도 장군님을 생각하였다.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풍찬로숙하시며 기어이 왜놈과 싸워이기신 장군님께서 개신장군의 개가도 울리지 않으시고 평양으로 소문도 없이 돌아오시였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정임은 그이의 존안을 그려보았다. 장군님앞에 무릎꿇고 백번 절을 올린대도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높은 뜻에 감사를 다 표하지 못할것이다.

《발같이하는걸 보니 장군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던 일이 떠오르는구나.》

오래회로인이 길옥의 광충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정임이도 기억에 생생했다.

그날은 운명과 운명이 뒤바뀌던 날이었다.

...밤은 쓸쓸한 어둠을 걸어안고 찾아왔다. 온가죽을 마당에 끌어내어 기관총을 휘둘러대던 왜놈군경들이 어둠이 깃들자 보호한놈만 떨구고 물러간후 오래회로인은 혼자서 뒤산에 올라가 막내아들의 시신을 묻고 내려왔다.

정임의 귀전에는 아직도 두꺼비낮짜를 한 곰보경찰서장놈의 돼지며따는듯한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대일본제국에 반항한 죄로 이것들을 래일아침 몽땅 총살하라. 공산비적집안은 씨종자를 없애치워야 한단말이다.》

불을 때지 않아 썰렁한 방안에는 광술불이 조심히 타오르고있었다. 울다울다 지쳐버린 아이들은 탁쳐올 운명도 알지 못한채 혼곤히 잠들고있었다. 래일이면 온 식구가 총구앞에 서게 될 운명의 밤, 오씨일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밤이 깊어갔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지 오래다. 왜놈들의 수모는 이 집안 녀인들에게서 눈물을 앗아갔다. 길옥이 엄마의 눈물도 그 수모속에 다 빠져버렸다. 어느때인가 왜놈순사 여러놈이 집에 달려들었었다. 놈들은 개허벅에 발길질을 하듯 온 방안을 발각 뒤집고는 《공산비적》집안의 파부떼기들이라고 씨벌이면서 한참이나 흐물거리더니 가버렸다. 그때 갓 시집온 길옥이 엄마는 너무도 원통하여 정임을 부둥켜안고 목놓아 울었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비애는 더욱 커지기만 하였다. 그것은 정임이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 오래회로인과 모든것을 체념해버린 녀인들의 얼굴에는 비애에 한껏 눌리운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어려있었다. 이미 지탱점을 잃은 마음들이 흐느낌소리로 이따금 방안의 고요를 깨쳤다. 그들은 마치도 흐느낌소리로 숨을 쉬고있는듯하다. 스러지는 생명에 불씨를 달아주려는듯 광술불빛은 마지막힘을 모아 타오르고있었다. 순간 정임은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어디선가 찢광이의 향기가 실려오는것만 같다. 그 빨간 열매, 그 달콤한 향기...

아,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 가을날 남편과 헤어지는것을 보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장군님이시였는데. 우리 일가가 죽음을 앞에 놓고있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까? 그런분들은 더 눈물이 많다고 하시던데...

정임은 잠든 일렬의 이마에 불을 가져다대며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애달픈 상념들이 그의 머리에 헤엄쳐도는것이였다.

아, 만났다 헤어지는게 인생인가보다. 리별의 뒤에는 상봉의 기쁨이 있고 상봉의 뒤에는 기다려지는 그리움이 있기마련이지만 이밤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남아있지 않을것이다. 부부간의 정도 못다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도 미처 알기전에 정임이 자신과 일렬이는 이 세상에 없는 몸이 되어버릴것이다.

시아버지가 뒤산에서 내려와서 하던 말이 가슴을 친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왜놈들이 우릴 죽이려올테면 오라지. 우리모두 죽자. 죽어도 장하게 죽자. 애아버지들을 장군님품에 맡긴 집안사람답게, 장군님의 백성답게 웃으며 죽자.》

그 말은 정임이와 동서들에게 리성을 되살려주었다.

정임이와 동서들은 자고있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심장이 동하여 그애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이 한몸들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을 살릴수만 있다면.

아직 여물지 않은 씨앗과도 같은 어린것들은 어머니들의 소원도 알지 못한채 운명에 몸을 내맡기고있었다. 그 운명을 예고하는듯 밖에서 말투레질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었다.

《로인님, 빨리 떠날 차비를 하고 가십시오.》

불쑥 장정 셋이 방으로 들어왔다. 자고있는 아이들을 깨워서는 문밖에 세워둔 말발구에 태운다.

너인들은 매를 마주한 쫄무리마냥 꼼짝 않은채 낮모를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오래희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다가섰다. 인제는 비장한 각오만이 남아있을뿐이다.

《가긴 어디로 간단말이요? 우린 죽어도 제집에서 죽겠소.》

검은 방수비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이 로인의 손을 잡으며 흥분된 어조로 대답했다.

《로인님, **김일성** 장군님께서 일가분들을 유격근거지로 부르십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로인의 굳어졌던 눈빛에는 놀라움이 어렸다.

《장군님께서?...》

아니 그럼 자네들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귀인들인가?)

잔조롭한 그의 두눈에 영채가 돌더니 눈물이 땀고였다.너인들도 자리를 차고 일어나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밖에는 이미 말발구가 준비되어있었다. 아이들과 실신상태에 있던 너인들을 말구에 태우고 일행은 집을 나섰다. 뒤산에 올랐을 때 정임이네 일행은 발길을 멈추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악귀들의 총이 맞아 쓰러진 열다섯나이의 어린 꽃잎이 검붉은 흙무지에 싸여 누워있었다. 행운의 몇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린 막내시동생의 운명을 놓고 어른들도 울고 아이들도 슬피 울었다. 슬픔의 폭발때문만이 아니었다.

정명 그 밤은 캄캄한 나락으로 기울던 밤이 파사로운 구원의 빛발속에 밝아진 희망의 밤이었다....

가락맞게 울리는 기차바퀴소리는 왕청유격근거지로 들어서던 못잊을 추억을 차창너머 푸른 하늘가에 실어날랐다.

정임이네 일행이 유격대원들과 함께 근거지입구에 도착한것은 동이 터울무렵이었다.

멀지 않은곳에서 빨간 기발이 바람에 나뭇겼다.

《야, 기발, 아저씨 저건 무슨 기발이냐요?》

유격대원의 등에 업혀 눈을 두릿거리던 일렬이가 한곳을 고사리같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옆에서 걷던 유격대원이 온 일행이 다 들으라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저 기발아래에 바로 우리 세상이 있단다.》

(우리 세상...)

눈곱이 함초름히 젖어들었다.

정임은 바람결에 조용히 나뭇기는 기발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려고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그때

였다. 웬 군복입은 사람이 일행을 마주하여 이리로 걸어오고있었다. 정임은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예감이 남다른 촉감이 심장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미명속에서 얼굴은 확연치 않아도 그가 바로 자기 남편임을 알았다. 두루마기적삼대신 유격대군복을 입고 다리에 흰 각반을 두른 중성의 모습에서는 억센 기품이 내배였다.

그중 놀란것은 오래희로인이었다. 언젠가 둘째 아들 중성이가 온성지구당조직을 책임지고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엿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다니.

《아버님!》

《중성아.》

로인은 아들을 부둥켜안았다.

정임은 눈섭을 파들거리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뜯어보았다. 짙은 눈섭이며 유순하게 생긴 정다운 눈빛은 예이체나 여전했고 키는 더 커진것 같았다.

《장군님께서선 무고하시냐?》

《예, 장군님께서선 왜놈들을 치러 지금 먼곳에 가계십니다.》

《그런데 넌 왜 여기에 있느냐. 장군님부하라면 응당 장군님을 따라나서야 옳은게지.》

중성은 빙그레 웃음을 피웠다.

《장군님께서선 혈육들을 모두 유격대에 보낸 아버님이 온 식구를 거느리고 근거지로 찾아오는데 우리가 마중해드리지 않는다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를 근거지에 남겨두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로인은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우더니 지평선너머의 푸른 산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멀지 않은곳에서 시내물이 돌돌 그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산새가 잠에서 깨어나 깃을 펴는 소리며 벌레가 우는 소리...

순간 화로의 온기와도 같은 따뜻한 감정이 정임을 포근히 감싸안았다.

이 아침이면 씨 한점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을 일가식솔을 위하여 장군님께서선 한개중대나 되는 유격대원들을 불원천리 보내시여 삶의 보금자리에 불러주시었다.

참으로 장군님의 사랑은 씨앗을 움틔우는 태양의 빛발이었다.

근거지에서는 한채의 아담한 귀틀집이 이들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 땀감을 가져오고 불을 지핀 아궁이에서는 쉼나무라는 냄새가 기분 좋게 풍겼다.

방문앞에는 씨오쟁이가 놓여있었다. 그안에는 통통 여문 수수알갱이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오래희로인은 꿈을 꾸듯이 덤덤히 알알이 여문 씨앗을 내려다보다가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듯 아들에게 씨오쟁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웬 종자냐?》

중성은 한마디에 담아 얘기하기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수수알들을 쓰다듬다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싸움터로 떠나시면서 당장 씨불임이 시작되겠는데 집식구들이 왜놈들속을 빠져나오느라 종자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며 농사로 뼈를 굳혀오신 아버님이 이 종자를 가지고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이 씨오쟁이를 갖다두시고 길을 떠나시었습니다.》

오래회로인은 아궁에서 뿜겨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달아오른 눈굽을 쓰리게 하는지 연신 소매자락을 눈에 가져갔다. 그러나 애써 훔치는 눈물은 끝내 씨앗더미우에 떨어지고 말았다.

《야야, 장군님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니?》

시아버지의 목메인 말에 정임이도 한심정이 되어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치도 남편의 한마디말속에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라도 하는것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장군님의 손길에 떠받들려 눈물짓는 온 가족의 심정을 헤아린듯 중성은 아버지를 향하여 모자를 벗어들었다.

《아버님, 전 장군님 가신곳으로 따라가 전투에 참가할가 합니다.》

로인은 그러는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라,어서 이 길루 떠나가거라.》

순간 정임의 가슴속에서는 첩병 돌덩이같은것이 떨어져내렸다. 만나자 리별이라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는 허둥거리는 눈길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번갈아보았다.

몇해만에 만나보는 남편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이름만 지어놓고 집을 떠났던 그였으니 처자를 만난 기쁨인들 오죽 크랴만 다정히 마주앉아 회포도 나누지 않은채 또다시 떠나는것이다. 모든걸 뒤에 놓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려는것이다.

평소에 말이 적어 대하기 어려운 시아버지와 만나 없이 남편정을 그리는 동서들앞이라 언제한번 보고싶은 심정을 터놓지 못한채 살아온 자신이였다.

정임은 웃고름을 안타까이 비틀며 남편을 지켜보았다. 구리빛의 얼굴, 속삭일듯 반쯤 열려진 입술사이로 들여다보이는 흰이 그리고 예전보다 더 넓어진듯한 가슴...

문득 눈길은 왼쪽 군복웃주머니에 가닿았다. 거기에는 단추한개가 실이 풀려 데롱거리고 있었다.

정임은 무의식중에 저고리안섶에 꽂아넣은 바늘을 더듬었다.

그러나 어느새 중성은 저 앞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임은 바재이던 몸가짐을 흐트러뜨리고 남편의 뒤를 쫓아 달음쳐갔다.

《일렬이 아버지!》

중성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 단추가...》

정임은 옆으로 몸을 약간 돌리고 바늘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남편의 가슴에 한손을 얹고 다른 한손으로 데롱거리는 단추를 꼼꼼히 달아주었다.

너인의 눈에서는 터치지 못한 정이 액체로 녹아 불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임이!》

남편의 목직한 두손이 정임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는 중성의 두눈에도 애뜻한 정이 굵이치고 있었다.

《여보, 내 장군님따라 왜놈을 치고 인차 돌아오겠소. 기다려주요.》

(기다리겠어요. 일렬이와 함께 당신이 오실 날을 기다리겠어요.)

자기를 정겹게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을 바라보느라니 불현듯 맑은 이슬에 함뿍 젖어들던 빨간 찔방이가 눈앞에 어려왔다. 그것은 방금전 씨앗더미우에 방울져내리던 시아버지의 뜨군 이슬과 합쳐져 하나의 작은 샘을 이루었다. 가슴에 찰랑찰랑 고이는 그 샘은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밝게 밝게 비치고 있었다.

정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떠나가는 남편을 바라왔다.

가슴속에 뿜어넘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은 남편의 마음속에 뜻을 달고 끝없이 실려갔다.

그러자 이른아침의 싱그러운 대기속에서 빨간 찔방이의 향기가 취할듯이 뿜겨왔다.

3

《어머니, 어머니, 저기서 새집을 지어요.》

시종 창가에 붙어오던 일렬이가 정임을 부르며 탄성을 질렀다. 새라새로운 바깥풍경에 마음이 동 뜬 아이들은 한창 벽돌을 올리고있는 새집을 보자 서로 누가 저 큰집에서 살것인가를 감론을박하며 떠들어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새집들을 바라보느라니 정임의 뇌리에는 근거지의 마지막겨울이 갈마들었다.

그해의 엄동설한은 얼마나 잔혹하였던가. 추위와 굶주림...게다가 왜놈토벌대들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달려들어 근거지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곤하였다. 어떤 날은 세번째로 지은 초가마저 불에 타버렸다. 그때 재속에 묻힌 술을 끄집어내며 시아버지가 하시던 말이 아직도 정임의 귀가에 쟁쟁하다.

《래일 아침에 또 왜놈들이 달려들어 마을을 불지른다해도 우린 이 재터에 다시 기둥을 박아야 한다. 우리에게 집이 있기때문에 우린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장군님품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것이 아니겠느냐? 근거지는 곧 장군님의 품일진대 왜놈들이

제아무리 근거지를 없애치우자고 해도 마음만 든든하면 일없다. 장군님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장군님백성답지 못하느니라.》

그 나날에 자주 슬픔이 문턱을 넘어서곤했다. 시험이 희생되었고 시누이내외도 전사하였으며 길옥이 엄마와 조카들을 잃었다. 때마다 찾아오는 슬픔 앞에 눈물을 뿌릴새도 없이 불행의 소식은 이 일가의 문을 또다시 두드렸다.

파랗게 움트던 보리삭이 연기에 끄슬리고 빈터만 남은 자리에 돌개바람이 재가루를 흩날리던 그 35년도 초여름날아침은 슬픔으로 가득찼던 날이었다. 유격구가 해산된다는 소식에 뒤이어 정임은 남편이 희생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근거지에 들어서던 날 인차 돌아오라고 약속했던 남편이 영영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진나 한들 이보다 더 눈앞이 아득하랴.

정임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해방된 날을 보기전에는 죽을수 없다던 사람이었다.

(일렬이 아버지, 난 어떡하면 좋아요.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당신을 기다리는 내 마음을 버리고 어쩌면 그리도 무정하게 갈수가 있나요? 인제는 당신 없이, 것처럼 행복했던 보금자리마저 잃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랍니까?...)

아, 내 가슴에 그리움만 짙 채워놓고 초야의 넋이 된 남편,이제는 기다림의 지탱점마저 끊어져 버렸으니 내 마음 의지할곳은 과연 어디일가?

그날의 유격구에서 장군님을 뒤따라 성큼성큼 걸어가던 남편의 모습이 슬픔의 안개를 헤치고 안겨왔다.

《애들아, 어서 떠나자. 우리가 먼저 떠나야 유격대원들이 장군님곁으로 가서 왜놈들을 칠게 아니냐. 적구에 내려가서도 유격구사람답게 땀땀이 살자. 그래서 장군님뜻을 받드는 백성된 도리를 다 하자꾸나.》하고 오래희로인은 짐을 싸기 시작하였다.

정임은 어린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아직은 연약한 어린것의 체취가 몸에 스며들자 마음속에 무엇인가 든든히 자리잡히는것이였다. 그것은 남편이 정임에게 주고간 귀중한 생명이었다. 그 생명은 비애에 잠겼던 정임의 가슴에 깃들어 따뜻한 봄빛을 불려왔다.

키가 자그마하고 체소한 로인을 따라 근거지를 떠나는 긴 행렬이 동구밖을 나섰다.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유격대원들을 와락 끌어안는다. 라자구방향으로 가던 행렬중에서 한패의 아이들이 물러나와 반대방향으로 헤여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소리쳐부르며 발을 동동 구른다. 서로 이웃하고 살던 다정한 사람들이 기약할수 없는 고장

으로 흩어져가는 모습은 눈물없이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

맨앞에서 고개를 수긏하고 걸던 로인은 끝내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그것은 보금자리를 잃은 새의 정상이 아니였다. 한 일가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장군님께서 감사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그 아쉬움과 죄스러움때문이었다.

정임은 장군님을 그려보았다. 한번밖에 뵈옵지 못한 그이시였지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안겨주고 떠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 자애롭고 인자하신 모습은 정임이만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동서들의 가슴에도 깊이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근거지를 내려온 그들은 연길 시내에 짐을 풀었다. 어떻게 하나 아이들을 공부시켜 후날 장군님 앞에 땀땀이 내세워야 한다고 로인이 주장했던것이다.

그러나 정임이네 집에는 《공산비적》이라는 빨간딱지가 붙었다. 일렬이와 길옥이는 학교갈 나이가 되었어도 갈수가 없었다. 학교에 붙은사상이 침습된다고 경찰서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날 두 아이는 어른들 몰래 소학교정문안에 들어가 교실창턱아래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때 휴식종이 울렸다. 공차기를 하려고 밖으로 달려나오던 일본놈들이 《공산당새끼》가 왔다고 소래기를 지르며 돌팔매질을 하였다. 그날저녁 일렬은 정임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다.

《어머니, 난 더이상 쪽발이새끼들 놀림을 받고싶지 않아요. 우리 다시 유격구에 가자요. 근거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맘편히 살자요.》

정임은 아들에게 두손을 내맡긴채 열려진 피창너머에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밝은 별 몇개가 실재없이 깜빡인다. 저 별이 빛나는곳 어디엔가 백두산이 있을것이다. 어둠속에서 애라게 해빛을 찾듯이 그는 장군님을 목메여 불렀다.

(장군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나라의 술한 백성들이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그림던 장군님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정임이네 일가를 부르시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정임이네만이 아닌 온 조선 인민을 정처없이 떠다니던 씨앗들을 은혜로운 품안에 안아주시였다.

기차는 새 조국 건설로 들끓는 공장지대와 전야를 엿바뀌지나며 기운차게 달렸다.

《평양이다!》

별안간 흥분에 넘친 웨침소리가 차칸을 울렸다.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밖을 내다보았다.

《평양평양...》

공중에 전기줄을 늘인 전차들이 종소리를 울리며 거리를 누비면서 지나간다. 차길을 가로질러 길다란 프랑카드들이 매달려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어려있다. 웃고 떠드는 처녀들, 신바람나게 뛰어다니는 총각애들, 2층양옥집지붕에 설치한 향아리만한 나팔통에서는 노래소리가 거리를 더욱 흥성이게 하였다.

...

우리의 손으로 새 조선을 꾸리자

...

거리거리에서 울려퍼지는 노래가락들이 활짝 열린 차창으로 흘러들었다.

《백-》

드디어 종착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기차는 속도를 늦추면서 평양역에 들어섰다.

역구내에는 꽃다발이며 꽃테프를 손에 든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고있었다.

아이들은 처음보는 광경에 내릴 생각도 않고 눈이 휘둥그래져 떠들었다.

전너편자리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에미들아, 우린 천천히 내리자꾸나. 보아하니 보통아니신분이 이차에 탄것 같구나.》

선반에 엮은 짐들을 끌어내리던 동서들이 당황한 빛을 숨기지 못하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혹시 한차칸에라도 왔으면 어찌라하는 마음에서 옷때무시도 바로잡고 머리들도 쓸어넘겼다. 어른아이 누구라없이 먼길에 옷이 구겨질대로 구겨지고 먼지가 오를대로 올라 옷주체가 람루하기 짝이 없었다. 나이가 맨아래인 사촌동서는 치마단을 덧대요 기운자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둥글납작한 얼굴에 근심을 가득 실었다. 술한 사람들과에서 께맨 옷차림을 보이는 것이 썩스러운 모양이다.

어느덧 승객들이 다 내리고 차칸에는 정임이네 일행만이 남았다.

너인들이 황급히 보짐들을 람손에 나눠들고 시아버지를 따라 승강대에 나섰다. 환영군중이 웨치는 소리는 차안에 있을때보다 한층 높아진듯싶었다. 땅바닥에 내려선 그들은 순식간에 군중속에 묻히었다. 뜻밖의 일에 얼떠름해진 동서들과 아이들은 조롱안에 갇힌 새마냥 오도가도 못하고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기만했다.

사촌동서는 기운자리가 눈에 찔가봐 치마폭을 줄안에 걸어쥐고 몸을 웅크렸다.

바로 그때였다. 왼쪽가리마를 낸 머리칼을 가꾼히 뒤로 빗어넘긴 중발의 웬 녀성이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불우물을 짓고 정임이네 일행을 향하여 총총히 걸어왔다. 썩색의 수수한 천으로 지은 양복을 차려입은 단정한 몸에서는 생기가 풍기었다. 보통너인같이 보이지 않는 부인이 자기들앞으로 가까이 오는것을 본 정임은 겁이 더러웠다. 더우기 동서들의 손에 들려있는 자질구레한 보따리들은 주체할

한 자기들의 행색을 더욱 불품없이 만들어버린것만 같아 온몸이 좋아들었다.

어느새 시아버님과 마주서신 부인은 생김새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사를 나누시었다.

《오래희아버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김정숙이라 부릅니다. 모두가 이국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시아버지는 물론 정임이도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전설처럼 알려진 백두산의 녀장수가 바로 30대의 젊음이 넘치는 이 부인이라말인가.

《아버님이 가족들과 함께 이 열차에 오신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 역으로 아버님을 마중나오셨습니까.》

《예? 김일성장군님께서요?》

오래희로인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정숙녀사께서 가리키시는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방금 승용차에서 내리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로인과 정임이들을 알아보시고 바쁜 걸음을 놓으시었다.

《아, 로인님, 이렇게 오셨구만요.》

회색중절모에 같은색의 봄가을코트를 걸치신 장군님께서서는 저만치 떨어진곳에서부터 두팔을 벌리시고 다가오시었다. 갓은 천대와 멀리속에서 일일 천추 기다리던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안을 뵈옵자 식구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그이께로 와 달려갔다.

《장군님!》

오래희로인은 어푸러지듯 땅우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였다.

《장군님은덕으로 저희일가는 자손을 거느리고 장군님슬하로 돌아왔습시다. 거치른 만주광야에서 풍상고초를 겪으시며 왜놈들과 싸워이기신 장군님 앞에 해놓은 일이 없이 찾아온 저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행색들이 람루한 로인과 아녀자들이 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 큰절을 올리는 광경을 보자 환영군중은 감격의 파도를 일으켰다.

장군님께서서는 다급히 로인의 두손을 잡아일으키시었다.

김정숙녀사께서도 어깨를 들먹이는 너인들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다독여주시면서 다정히 위로해주시었다.

일행을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정임이한테 시선을 멈추시었다.

언젠가 만나신적 있는 그의 모습을 기억해내신 장군님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어려있었다.

《장군님!》

정임은 저도 모르게 장군님을 목매여 붙렸다.

빨간 찔팡이의 향기를 남기고 떠나시던 장군님께서 꿈인듯 생시인듯 그때처럼 자기의 앞에 서계시는것이였다.

그때는 리벌의 아픔이 장군님의 가슴을 못질하였지만 오늘은 상봉의 기쁨이 장군님의 가슴에 차고 넘치였다.

정임에게로 향하신 장군님의 안색에는 어느덧 회고의 빛이 짙게 어리시였다. 그이의 심중에서는 잊지 못할 그 가을날의 감회가 무수한 빨간 열매로 맺혀 감도시는것이였다.

《아주머니, 이렇게 만나니 중성동무를 만난듯 기쁩니다. 중성동무랑 그때 함께 두루봉에 가서 첫 국내당조직을 결성하고 그에게 온성지구당조직의 책임자의 임무를 주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구만요.

참 그때 텅비었던 옷케짜를 생각하면…》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였다.

불시에 뜨거운것이 정임의 목구멍으로 치솟구쳤다.

세월의 이끼속에 덮여두었던 빈케짜생각을 장군님께서서는 잊지 않으시고 내내 가슴속에 안고 계신 것이였다. 더우기 고통과 설음을 이겨내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온 녀인들앞에 귀중한 사람들을 데려다 주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가슴저미는 상실의 아픔은 침묵의 공간을 짝 메웠다.

한참만에야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주머니들이 남편도 없이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오느라니 고생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녀인들은 흑-하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였다.

자기들의 가냘픈 어깨에 실렸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그이의 인정깊으신 말씀이 정임이와 동서들을 한없이 격동시켰던것이다.

《아닙니다. 장군님, 우리에게겐 저애들이 있었기에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니다.》

정임은 한쪽편에 물켜서있는 아이들을 가리켜드리며 이렇게 대답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애들을 손저어부르시였다.

《애들아, 머리를 들고 이리로 오너라. 너희들의 아버지들은 일제놈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왜놈들은 너희들을 박해하고 수모했지만 너희들은 그 아버지들의 자식답게 떳떳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자란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장군님께서 일렬이와 길옥이를 끄당겨안으시자 그들은 와락 장군님의 품에 뺨을 묻고 흐느꼈다.

덩달아 작은 애들도 장군님과 김정숙녀사의 옷자락에 오롱조롱 매여달렸다. 그 모습을 눈물속에 지켜보는 정임이와 동서들의 가슴에서 해묵은 얼음처럼 팡팡 얼어붙었던 설음이 한순간에 봄물처럼 녹아내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오래회로인 앞에 다가서시더니 감동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우리는 바로 로인님의 자손들과 같은 조선의 청년들이 있었기에 맨손으로 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강도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씨일가를 그로록 귀중히 여깁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자식들과 남편들을 전부 혁명에 바치고 그 모진 세월속에서도 우릴 믿고 장하게 살아돌아오신 〈개국공신〉 들입니다.》

로인은 황망히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잡고계시는 자기의 손등에 서리가 앉기 시작한 머리를 묻고 말씀올리였다.

《아니올시다. 장군님이시야말로 개신장군으로 인민들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릴 이렇게…

장군님 장군님께서 우리 일가를 죽음터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던들 오씨일가는 이미 세상에 씨를 남기지 못했을것입니다.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일가의 운명을 지켜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것은 정임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였던 감사의 인사말이였다. 정녕 그것은 살아있는 온 가족이, 아니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마음까지 합쳐 장군님께 간절히 아뢰이고 싶던 축원의 목소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끝내 시아버지가 울리는 큰절을 사양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의 앞에 시아버지를 내세우시더니 목청껏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그의 한손을 버쩍 쳐들어주시였다. 이 시각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이나라 인민들이 보내는 축복의 인사를 오씨일가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고싶으신 념원이 그들먹이 차오르시는것이였다.

장군님의 심중을 헤아리신 김정숙녀사의 얼굴에도 함박꽃마냥 정겨운 미소가 활짝 피여오르시였다.

정임은 숙연한 자세로 서계시는 녀사의 그윽하고 따뜻한 눈빛을 우러르면서 송구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심장에서는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장군님, 우리는 김정숙녀사처럼 손에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던 투사들도 아닙니다. 희생된 남편들앞에 부끄럼없이 살자고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키워온 평범한 아낙네들일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장군님께서서는 한일없이 돌아온 우리를 장하게 여겨주시고 만사람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우리 일가는 참으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뿌리내릴 땅이 없어 이리저리 떠다니던 불행한 씨앗과도 같은 우리들의 운명이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대지를 따사롭게 비쳐주고있었다.
그것은 정임의 가슴에도 은혜로운 빛으로 한량없이 흘러들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부관에게 승용차를 부르게 하시었다.
역홀에서 대기하고있던 두대의 승용차가 장군님 계신앞으로 미끄러져왔다.

항일의 나날에 못다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으시려는듯 장군님께서 량팔에 오래희로인과 아이들의 팔을 끼시고 승용차가 있는데로 걸어가시었다.

정임이도 동서들과 함께 장군님의 뒤를 따랐다.
순간 다시금 만세소리가 터져오르고 가지각색의 꽃테프가 줄줄이 승용차우로 늘어진다.

머리우에서는 꽃보라가 축포마냥 뿌려진다.

아, 그것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해방된 봄날에 혁명의 충신일가에게 보내주시는 축복이었다. 씨앗을 움티우는 봄의 축복이었다.

노래부르자 김정일동지를

아이자이아 콰오 모리슨

대홍단과 무포
삼자연과 보천보
조선의 모든 혁명전적지들이여
내 심장으로 노래부르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오 백두성산이여
너는 증견자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친애하는 그이께서 탄생하시였음을
너는 격조높이 노래하고있어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여
내 심장으로 노래부르노라

오 **김정일** 동지
내 언제나 노래부르노라
온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가장 친근하신분을 노래부르노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희망의 등대
인류가 낳은 위대한 아들
그이는 주체위업의 계승자
받들리라

세인을 경탄시키는 **김정일** 동지를

새들이 날아에는 한적한 들가에
야수들이 욕실거리는 창글속에
내 홀로 남는다 해도
내 심장으로 노래부르리라
김정일 친애하는 그이를
동지로 형제로 벗으로 노래부르리라

나에게 베푸신 은정
영원히 잊을수 없어
그이께 인사를 드립니다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원수님
내 대를 이어 영원히
그이를 받들어 모시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통일조선을 이끌어가시기를
같이 축원합니다

(필자는 가나 시인임)

불멸의 글발을 찾아서

서동린

신적산

신적산에서 구호목이 발견되었다고
우리 군에서도 불멸의 그 글발 나타났다고
소식은 쿵쿵 가슴들을 쳐
앞다투어 앞다투어 달려가는 그곳

오, 이름없는 신적산발은
하늘가에 키돋음해 높이 솟고
이름없던 물방아간 골짜기는
사람들의 물결로 발구길을 메운다

인적드문 이 산촌의 늙은이들도
노상 웃음으로 대문밖에 나와 길을 안내하고
발머리 처녀들이 보내는 미소도
그지없이 아름다웁구나

산발도 새로웁고
사람들도 새로운가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 빛나고
모두가 새롭게 모습 다듬어

오 오, 경사랴 하랴 영광이라 하랴
성스러운 항일의 전장이
이교장에도 직접 펼쳐지고
그 자욱 저 산정에 뚜렷이 찍혔거니

산천도 사람도 그 긍지로움으로 새로와지고
기념비를 떠받든 신적산은
성스러운 품처럼 만사람 불러안아라

길가의 처녀야

가을하던 낮 한손에 들고
발고랑 탈넘도 잊은듯
끝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물음에
기쁜 대답 주는 농장처녀야

네 손길 저으며 가리켜주는곳
지형따라 골따라 산정따라
걸음바쁜 이 마음을
벌써 구호나무앞에 바투 세워주거니

길이 험하다고
아직은 넓은 길을 내지 못했다고...

처녀야
그 말만은 하지를 말자

투사들이 저기로 온 길은
목숨도 바쳐야 했던 길
오늘을 위해 아, 오늘을 위해
칼숲을 헤치며 달려와야 했던 길

발구도 못오르는
오솔길 덩불길 천만리인들 어떠랴
처녀야 행복에 감사한 마음들이
단가슴 눈물젖어 달려가고있다

글발

어디보자 귀한 글발
안아보자 투사의 숨결
내 마음아
뛰는 가슴 잠시 진정코
한자한자 새겨읽자

높이 받들자
백두광명성

피가 끓는다
세계를 안은듯
태양과 마주선듯
승고하고도 위대함의 격정이어

하고싶은 말 많았으리
아픈 마음 묻어둔 고향땅과도
서리발 총검들고 넘나들던
혈전의 준령과 설한풍과도

정녕 하고싶은 말 많았으리
우등불가에서
한줌흙 정히 받쳐들고 그려보던

아,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와도

그 모든 말 다 담아
투사는 신념의 글발 새겼으리니
보노라 내 여기서
그 념원 꽃피고 그 정신으로 꼭 찬
오늘의 나의 조국을

글발이어 투사의 숨결이어
새길수만 있었다면
만리대공에 붓을 달려
하늘가득 이 글발 새겼으리니

오 오, 자자구구
더운 피로 심장속에 스며든다
내 생의 존재도 영광도
이 글발로 빛나는것이기에
내 또한 붓을 들어 쓰라면
이 글발 새겨 후세에 전하리라

높이 받들자
백두광명성!

산을 내려도

산을 내려도내려도
눈앞에 어려오는 구호나무
산을 내려도내려도
눈앞에 삼삼한 그 글발

내리는 산길은 멀지 않건만
구호를 받들고가는 한생의 마음길이야
몇천리이라
몇만리이라

빨강계 익은 오미자도
풀숲에 얼굴든 예쁜 들꽃도
나에게 주는 뜻은 새로와
손채양 엮고 바라보는 하늘의 저 태양

아, 산을 내려도
눈앞에 솟아서는 구호나무
아, 산을 내려도
글발따라 오르는 승고한 삶의 높이

갈매기

손광영

석탄폭포를 줄기차게 쏟아내는 난장설비들의 장쾌한 음향이 낮이나 밤이나 쉼없이 울려 퍼지는 탄광마을을 지나 강변으로 뻗어간 소로길을 따라 한 처녀가 조용히 걸어나왔다. 은회색숨옷을 단정히 입고 양털처럼 폭신한 목도리를 둘렀다. 주위를 바라보는 처녀의 눈은 무척 파스해보이는데 그것은 이고장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기때문인듯하였다. 그는 해마다 이곳으로 휴가를 오곤하던 재단사 정현옥이다. 단풍의 계절이면 여기서 처녀의 탄광지원나날이 흘러가곤했었다.

그런데 새해에 접어들면서 계절을 훨씬 앞당겨 여기로 오게 되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강변대기가 푸근해지더니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였다. 어찌보면 그 눈송이들은 아름다운 지향을 안고사는 처녀의 앞날을 축복하여 뿌려지는 꽃보라인듯싶었다.

현옥의 집은 려객선을 타고 강흐름을 따라 오후 한껏 내려가야 나지는 해안도시에 있었다. 그는 도시의 변화가에 자리잡은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일하였다. 처녀는 자기 직업을 그지없이 사랑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어떤 불만을 느꼈다. 그것은 청춘의 지향과 현실의 불일치가 가져다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때는 온 나라에 《9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한 때였다.

시대의 드높은 격량은 처녀가 일하는 양복점출입문도 두드렸다. 이 벅찬 시대에 자기도 사회와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고싶었다. 그래 시작한 일이 가을이면 탄광지원을 가곤하는 것이었다.

수수한 가을양복차림을 하고 작업복을 챙겨넣은 밤빛러행가방을 든 처녀를 태운 려객선은 해풍의 고무를 받은듯 물결을 헤가르며 강흐름을 힘차게 거슬러오르곤하였다. 선미에서는 추진기가 돌면서 밀어낸 물줄기들이 서로 얼싸안고 솟구치면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구름덩이들의 은빛반사광이 수면 위에 떨어져 기름처럼 번들거렸다. 갑문을 넘어온 갈매기들이 재빛날개를 너울거리며 흰빛나는 려객선을 오래도록 따라왔었다...

3년전 가을 어느날... 대동강기슭을 대여가는 려객선에서 두 젊은이가 내렸다. 스물두어살 나보이는 처녀와 스물일여덟가량 되는 청년이었다. 청년은 려장자리 뚜렷한 군복을 입고있었는데 별에 탄 기름한 얼굴에서 앞을 주시하는 눈빛이 무척 어질고 순박해보였다.

처녀는 일정한 간격을 둔채 그의 뒤를 안타깝게 따르고있었다.

어쩌면 저리도 걸음이 굼뜬지... 청년은 여전히 협곡을 빠져나가는 시내처럼 방풍림사이로 성급하게 뻗어간 좁은 소로길우에서 여드레팔십리걸음을 치고있었다.

현옥은 그가 강변에 날아든 갈매기들에 눈을 팔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려객선을 따르던 갈매기들같았다. 갈매기들은 해빛에 반짝이는 수면위로 내리꽂히기도 하고 넓은 강반을 종횡무진 누비며 한적한 강변에 새들의 이채로운 문무를 펼쳐놓는듯하였다.

거기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그를 보느라니 새침하던 얼굴이 점차 누그러들며 웃음발이 가늘게 비끼기 시작했다. 청년은 갈매기가 처음인지 몰라도 그에겐 너무도 익숙해진 평범한 바다새였다.

그는 아이적부터 땅과 바다에서 갈매기와 함께 자랐다고 할수 있었다.

찌는듯 무더운 여름날, 고향의 바다가로 나가면 흰머리 추켜들고 밀려오는 파도에 앞서 반갑게 맞아주던것이 바로 저 갈매기였다. 대양의 드높은 호흡처럼 부푸는 물마루를 차며 황황히 솟구치던 재빛날개의 그 너울거림이며 수평선너머 올라가던 울음소리까지도 그의 몸에 꼭 배여있었다.

그제야 처녀를 알아본 청년은 얼굴에 미안쩍은 표정을 지으며 《동무도 탄광으로 갑니까?》하고 물었다.

처녀의 대답을 듣자 그는 빙긋이 웃었다.

《난 첫눈에 벌써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어떻게요?》

처녀는 즐겁게 웃었다.

《려객선이 이고장을 대여가는건 오직 탄부들을 위해서라더군요. 물론 지원을 오겠지요.》

《어마나! 그걸 어떻게...》

《차림새만 보아도 다 알립니다.》

현옥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로 초면인 그들을 한층 가깝게 해주었다.

《저... 아마 산골에서 자라신가보지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갈매기를 처음 보는 사람만이 그런 눈길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허허... 실례가 되는줄도 모르고말이지요. 이래 보여두 바다를 지켜섰던 병사랍니다.》

청년은 쾌활하게 웃으며 말하고나서 다시 걸음을 내질기 시작하였다.

《내가 복무하던 부대는 서해의 어느 한 섬에 주둔하고있었지요. 섬주변엔 갈매기가 많았습니다. 어쩌나 많았던지 맑은날 연락선을 타고 파도를 누벼나가다가 돌아보면 섬근방이 마치 해무라도 낀듯 온통 은빛투성이었지요.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면 온 바다가 하얀 거품이 한벌 덮입니다. 그런 때면 산악같은 파도가 편이어 일떠서며 벼랑을 때리는데 그 기세가 어쩌나 대단한지 섬부근의 갈매기들은 일체 전멸된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평선에 노을이 피는 이른새벽, 군무를 서다가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철갑모를 밀어 올리면 하 글썽 폭풍우를 이겨낸 갈매기들이 격랑우를 날고있단말입니다.

그때 받아안게 되는 감동이란 이루 다 형언할수 없지요. 황포한 자연은 갈매기들에게 억센 나래를 키워주는가봅니다. 그래서 섬초소 병사들은 바다의 갈매기를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들을 강변에서 보게 되니...》

청년을 말끝을 흐리며 또다시 강쪽을 바라보았다. 갈매기들은 여전히 수면우를 날고있었다. 아마 바다에서 올라온 승어떼를 찾는 모양이었다.

청년은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되뇌었다.

《아무리 정서를 주어도 강변에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군요. 갈매기는 바다의 격랑을 떠나 못사는 새이니까.》

(격랑을 떠나 못사는 새!)

처녀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병사시절을 추억하는듯 그의 두눈은 부드럽게 빛났다. 어쩐지 그 눈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어질고 순박해보이기만 하는 그런 눈이 아니었다. 긴박한 상황이나 준엄한 시기가 닥쳐오면 억세어질것이 틀림없을 굳센 성격이 이글거리는 눈빛에서 언뜻 내비치고있었다.

...처녀는 정우와 함께 일하였다. 탄광에서는 지원자들을 운반강에 배치하였는데 그들은 선별공정에서 일하였다.

어느덧 휴가기간이 끝나 현옥은 탄광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앞서 작별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처녀에게 정우는 안전모를 벗어 옆구리에 척 끼며 말했다. 휴가를 석탄전선에 바친 그에게 탄부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노라고...

처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물었다.

《정우동무도 이젠 떠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글썽, 아직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난 어쩐지 이 덕산땅이 흠뻑 마음에 든단 말입니다.》

더 물어보나마나였다. 청년은 처녀가 제절처럼 오가는 이 땅에 이미 인생의 닳을 내린것이였다.

다음해 가을, 현옥이가 또다시 이곳으로 왔을 때 정우는 로적갱 3편도에서 채탄소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해만에 다시 정우를 보게 된 처녀는 어쩐지 마음이 좀 부자연스러워짐을 느꼈다. 일년사이에 그는 무척 변모되었었다. 약간 좁아보이던 어깨는 착암기의 세례를 받은듯 딱 벌어지고 얼굴은 한결 동실해졌으며 갱도의 어둠속에 익숙되어선지 눈빛은 몇배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넓은 이마아래서 타는듯이 이글거렸다. 그 눈길이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쳐들렀을 때 처녀는 그만 얼굴이 상기되어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합숙알 소공원으로 나왔다.

《내가 오늘 갱으로 찾아가 현옥동무를 우리 소대에 배속시켜달라고 제기했소.》

《어마나, 어쩐뎐 동문...》

처녀가 깜짝 놀라 두손을 마주치자 정우는 미안한듯 발을 달았다.

《실은 우리 소대 사솔콘베아운전공이 휴양가는 바람에 그자리가 비어있지요. 그래 지금 룬번제로 기대를 돌리며 석탄을 캐고있습니다.》

현옥은 그의 안타까운 심정이 헤아려져 걱정스레 물었다.

《제가 기대를 꽤 다루어낼수 있을가요?》

《근심할 필요는 조금도 없지요. 조작이 아주 간단하니까요. 사실 막장바람을 좀 맞아보아야 탄광을 다녀간 보람이 있습니다.》

로적갱입구에 아직 이 하루의 해빛이 채 와닿지 못한 아침이었다. 입갱인차는 놓아준 닳처럼 사갱으로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첫순간, 처녀는 무중력상태에 이른듯 온몸이 허공 뜨는 기분을 체험했다. 막장바람이 인차안으로 급속히 휘말려들며 질풍을 일으킨듯 웅웅거렸다. 그런데 탄부들은 유원지의 관성렬차라도 탄것처럼 우스개소리를 하거나 차륜소리를 반주삼아 노래부르며 생활을 이 흥을 즐기고있었다. 인차안에 떠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처녀의 놀란 가슴을 녹갯혀주었다.

사갱 오리길을 미끄러져내리는 인차- 그것은 천길지하막장에 떨어지고 사는 그네들의 생활의 닳, 인생의 닳이었다. 인차에서 내려 운반강도로 접어들었을 때 현옥은 자주 발부리를 걸채며 비칠거렸다. 앞서가던 정우가 웃음어린 눈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안전등을 켜십시오. 그러면 한결 걷기가 험할겁니다.》

그제야 옆구리에 믿음직하게 붙어있는 충전지의 무게를 뿌듯이 느끼며 서둘러 스위치를 눌렀다.

이마우에서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나오자 갱도를 밝히던 방습등의 불빛들은 어디론가 밀려난듯하였다. 오직 안전등빛만이 처녀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었다.

현옥은 갱도길을 힘있게 다우쳐가다가 문득 그 어떤 충동에 이끌려 고개를 돌려보았다.

순간 처녀의 입에서는 부지중 탄성이 흘러나왔다. 수백메터나 되는 운반강도는 끝에서 끝까지 온통

불의 바다였다. 그 무수한 불빛들은 하늘의 은하수 처럼 굴절을 따라 흐르다가는 마구리들로 갈라져 들어가고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이 거대한 지하의 바다에 터져오르는 막장의 불빛들이 금시 보이는 듯싶었다. 오직 그 불빛으로 날과 달을 밝히며 석탄을 캐는 탄부들의 모습은 처녀의 당막속에 진하게 새겨졌다. 막장을 밝히는 안전등의 반경은 크지 않아도 그 불빛아래서 세기적인 기적이 창조되고있었던 것이다. 갱도벽을 간간히 쓰다듬는 불빛둥구라미- 그것은 탄부들의 유일한 작업공간이다. 허나 그 공간속에서 남모르는 땀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으며 그네들의 인생이 지나갔다. 그 불빛을 따라 굴길은 끝없이 뻗어가고 석탄폭포는 쉬임없이 굽이쳤던 것이다.

어느날 저녁, 현옥은 정우와 함께 강변길을 걸어 함숙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가을바람이 방풍림속으로 파고들며 계절의 노래 부르고 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무잎들이 허공에서 나비떼처럼 희끗거릴 때 문득 발밑이 약하게 진동하며 웅글은 메아리가 소로길을 따라 줄달음쳤다. 기슭으로 밀려오는 물결은 한순간 정지되는듯하더니 굽이는 물이랑우에 가는 파문이 가로세로 얹히며 지나갔다.

정우는 땅속의 음향에 귀기울이는듯 머리를 약간 수गत했다.

《어떻습니까. 발파소리가 약간 둔중하게 들리지요? 그 친구들이 일할줄 안단 말입니다.》

(누굴 보고 그러는걸가?)

정우는 손짓으로 발밑을 가리켜보였다.

《우리는 지금 로적갱 20도 2편도우를 걷고있습니다. 채탄2소대가 일하는 마구리를 디디고있는 셈이지요. 그 동무들이 지금 잘 무너진 탄층을 밟고서서 흰소리치고있을겁니다. 허나 걱정할건 조금도 없지요. 우리 소대가 바짝 따르고있으니 아마 조바심도 날겁니다.》

얼마나 두터운 땅껍대기를 터치고 나온 발파소리인가. 그런데 그 미세한 동음과 진동을 두고도 막장 위치와 탄층의 폭이며 채탄공들의 심리를 손금보듯 헤아리는 정우였다.

《아이, 어쩌면... 동문 그동안 탄부가 다 되었군요.》

《아니, 아직 멀었지요. 난 요즘 탄부라는 부름속에 얼마나 큰 믿음과 책임감이 지워져있는가를 절박하게 느끼군한답니다. 이 땅속에 묻혀있는 조국의 광대한 탄밭은 우리 탄부들에게 달려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채취률을 버쩍 높이지 못해 더 많은 석탄을 끌어내지 못하고있거든요.》

지금 반성으로 흐려진 정우의 얼굴에서 탄부다운 자부심을 조금도 찾을길 없다. 스스로 걸머진 의무를 두고 피로와하는 청년... 현옥은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싶어졌다.

... 그들은 탄부거리 입구에 있는 나지막한 둔덕우에서 걸음을 멈춘다. 평지와 조금도 다름없으나 독고개란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는 둔덕이다.

현옥이 처음 이곳으로 지원했을 때 합숙사감너인은 《물론 독고개를 넘어왔겠지?》하고 물어 이다감한 처녀를 웃겼었다.

넘어볼나위가 있을가, 석양이 파거와 현재, 미래를 련결해주는 관문같은 이 둔덕우에 신비스런 빛감을 엮어주고있다. 정말 옛날옛적에는 울창한 수림이 빼곡이 들어찬 높은 령마루였는지도 모른다.

《난 처음 이곳으로 올 때는 <독고개>를 내가 넘어가야 할 아득령으로까지 생각했답니다. 글썄 이런 둔덕에다 독고개란 이름을 붙였으니 엉터리가 아니구 뭐예요.》

처녀의 말은 새삼스러운것이 못된다. 옛날부터 이 둔덕을 오가던 나그네들의 일반적심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형과 지명의 불일치는 생활령역에 이렇게 반영된다. 허나 웃음어린 그 목소리는 청년의 사색의 문을 조심히 두들기는듯싶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고나서 말했다.

《아마 사연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탄광은 개발된지 오래지 않다나니 지명의 유래도 푹푹히 밝히지 못하고있지요. 현옥동무, 우리가 한번 수집해보지 않으렵니까?》

《아이, 어떻게요?》

처녀의 눈은 공상을 즐기는 소녀의 눈동자처럼 한순간 밝은빛을 뿌렸다.

《노력하면 됩니다. 탄전의 어느 골짜기엔가는 그 유래나 전설이 꼭 묻혀있을겁니다. 난 요즘 이런 생각이 들군합니다. 덕산땅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고장의 지면조사를 우리들자신이 해야겠다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후대들에게는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질거란말입니다.》

청년은 잠시 말을 끊고 저녁노을이 기폭처럼 드리운 서쪽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서늘로운 바람이 그 기폭의 한 귀퉁이를 펄럭이며 노을을 향해 불어가는듯하였다. 정우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처녀는 그만 당황해졌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타는듯 이글거렸던것이다. 처녀는 속눈썹을 떨구었다. 정우의 이야기는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그 눈길만은 어쩔지 두려워졌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것이 있었던것이다.

휴식일이였다. 현옥은 정우와 함께 주변의 어느 한 농촌마을로 갔다. 거기서는 해방전 덕산끝에서 부대기농사를 지었다는 팔손로인이 살고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별로 소득이 없을뿐더러 지어 부끄럽기까지 했다. ...장미가 허연 로인은 삭막한 추억을 파헤치기보다 견우와 직녀같은 두 젊은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더 흥미를 가지고있었다. 하여 떠날적엔 자신을 적어도 지명조사에 나선 고고학자로 자처하며 들뜨기까지 했던 처녀의

기분이 돌아올 때는 몹시 저락되었던것 이다. 그후 현옥은 자신을 지치게 한 독고개에 종지부를 찍고 고향으로 돌아왔었다...

현옥은 방풍림속에 끼여든 한그루의 은행나무앞에서 우뚝 멈추어섰다. 못잇을 추억을 불러주는가 함박눈은 여전히 평평 내리고있다. 나무의 밑둥에는 흰눈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처녀는 무릎을 꿇고앉아 소담한 그 눈을 손으로 헤집고싶었다. 그러면 발치에 금화처럼 누렇게 깔려 가을날의 대기를 불태우던 황금빛잎사귀들이 금시 보일것만 같았다. 현옥은 그만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은행나무앞으로 이끌린듯 다가섰다.

눈꽃핀 나무아지들은 진하게 그어놓은 묵화같았다. 땅속으로 뻗은 굴절처럼 얼기설기 얹힌 가지사이로 눈송이들이 펄펄 흩날려오는 하늘이 바라보였다.

《이제 가면 언제 또 만날수 있겠는지...》

어디선가 흥분으로 탁해진 목소리가 울려오는 순간 처녀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분명 정우의 목소리였다. 추억의 두터운 장벽을 짝-가르고 나온 그 목소리는 저 멀리 눈나라로 올라가면서 처녀의 몸을 그날의 은행나무앞으로 떠미는것만 같았다. 가을날의 음향과 빛갈로 충만된 추억의 그 기슭에는 바래주러 나온 리정우가 우뚝 서서 이끌거리는 눈길로 처녀를 줄곧 바라보고있었다.

텔레비죤방영시간이 지난지도 이숙한 가을, 탄부들이 말긴 양복을 수리하여 옷걸이에 걸어놓은 현옥은 앉은뱅이책상우에 일기장을 펼치고 이 하루의 마지막일과를 수행하고있었다.

이때 누군가가 조심히 문들 두드렸다. 처녀는 놀랐다. 호실문앞에는 얼굴이 약간 상기된 정우가 어색하게 서서 처녀를 머뭇거리며 바라보고있었다. 산발을 탔는지 바지가랭이에는 풀씨들이 매달려있었다.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있기에... 왜 아직 쉬지 않습니다까?》

처녀는 혈관속으로 뜨거운것이 퍼져가는데 온몸이 후터워지고 봉긋한 가슴이 몹시도 울렁거렸다

《현옥동무, 탄광일이 조련치 않지요?》

《아이... 괜찮아요. 저... 밤공기가 찬데 그렇게 서있지 말구 좀 들어오세요.》

청년은 망설이는 눈길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현옥동무, 우리 동무들이 무리한 부락을 해도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는거지요. 이제 며칠후면 휴가기간이 끝난다니 모두들 아쉬워하고있습니다.》

정우는 끝내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고 돌아서더니 곧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어떻게 되어 이 밤중에 왔겠을까?)

처녀는 그만 차오르는 의혹을 덜길 없어 안타깝게 두손을 맞잡으며 창가로 다가섰다. 금시 비방울

이 떨어질듯 캄캄한 밤이었다. 별빛조차 드리우지 않은 끝모를 어둠속에서 걸음마다 흔들리며 쪽쪽 뻗어나가는 안전등빛만이 청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다. 골목길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불빛을 눈망울 아프도록 따르는 사이 어느덧 자기 마음도 정우를 뒤쫓아가고있음을 느끼자 처녀는 느닷없이 가슴이 뒤설레이는것이였다. 현옥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지으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참, 내가 왜 이렇가, 무슨 일이 있었다구.)

허나 자신을 다잡는 이 순간조차도 마음은 의연히 눈길에 실려 어둠을 밝히던 한줄기 불빛만을 지긋게 따르는것이였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현옥은 정우를 멀리하리라 몇번이고 속다짐하곤했었다. 처녀는 자기가 다루던 첸콘베아가 멋어도 그를 찾지 않았다. 뭘수록이면 제 힘으로 고쳐보려고 나사들개를 서툴게 잡고 나서곤하였다. 그런데 청년은 처녀의 이러한 행동을 오히려 기능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소행으로 간주하는듯 웃는 얼굴로 슬깃슬깃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 책임성능은 운전공이 자신을 잃고 허둥거릴 때에야 팔걸고 다가오곤하였다.

이상한 일이다. 처녀는 그를 멀리하려고 하였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눈길은 그날밤의 그 불빛을 쫓듯이 저도 모르게 정우한테로 이끌리는것이였다.

현옥은 청년의 눈이 마음에 들었다. 그 눈은 땅우에서보다 땅속에서 더 빛나는 눈이였다. 막장의 어둠을 더듬는 그의 눈길은 경도의 제한된 공간속에 갇힌 그런 눈빛이 아니였다. 풍요한 가을날 전야에 서서 난알향기 진동하는 산천을 바라보는듯 무척 맑고도 시원한 눈매였다. 폭이 큰 탄발으로 다 가설 때면 가슴은 대양의 물결처럼 높이 오르내렸다. 흰갈매기 훨훨 나는 수평선을 마주한듯 흑보석처럼 번쩍이는 탄층을 바라보는 그 눈은 안전등빛 아래 고요히 빛나곤했었다. 청년은 그런 탄층을 두고 《고생대의 원시림》이라고 불렀다.

한번은 잘 무너져내린 탄층앞에서 오락회가 있었는데 소대원들은 자기네 소대장을 처녀와 함께 지명하고는 빨리 나오라고 야단이였다. 현옥은 참으로 난처하였다. 자기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무턱대고 채촉하는 탄부들이 야속하였다. 막장을 뒤흔드는 손벽장단에도 나오지 않고 끝내 버티여내자 먼저 나선 정우가 두손을 저으며 소대원들앞에서 양해를 구했다.

《요즘 현옥동무가 목이 쉬여 그러니 2중창은 후에 하기로 하고 내가 대신 독프로를 하지요.》

청년은 잠시 숨결을 가다듬더니 잘 울리는 목소리로 즉흥시를 읊기 시작했다.

땅우에는 씨뿌리는 철이 있고

땀흘려 가꾸는 철이 있어라

그러나 동무들아, 우리네 막장엔
가을만이 있구나
풍요한 검은금을 걷어들이는 가을
인민의 행복을 안아올리는
막장의 흐릿한 가을이여
...

마지막 시구절은 막장을 진동하는 박수갈채속에 묻혀버렸다. 얼마나 훌륭한가! 것처럼 훌륭한 감정을 가장 평범하게 표현할줄 아는 그가 돋보였다.

그날 저녁, 처녀는 강구앞에서 오래도록 서성거렸다. 막장의 실참에 있는 일을 두고 속으로 거듭 뉘우치는 그였으나 뒤늦게 출경한 정우를 만났을 때 종시 그 말을 입밖엔 내지 못했다.

어느덧 열흘이 흘러 처녀는 탄전을 떠나게 되었다. 현옥은 정작 탄광을 뜨자니 마음이 허전해졌다. 시대의 벽찬 격랑속에서 벗어나 고요한 기슭으로 도피하는 심정이였다. 려장을 꾸러들고 강변길을 걸어가면서도 몇번이나 뒤돌아보았다.

그의 앞에서는 바래주러 나온 정우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들의 사이는 불과 한걸음 차이였다. 그 한걸음으로 나란히 설수 있었지만 처녀는 내치 뒤따라기만 하였다. 그의 성의를 뿌리치고 나오지 못한 자신이 은근히 후회되였다.

왼쪽에는 강물이 넘쳐흐르는 제방이요, 오른쪽에는 사시나무숲이 우거져있었다. 그사이로 곧추 뻗은 강변길은 지난 일년사이에도 퍼그나 넓어졌다. 허나 그들의 마음과 잇닿은 추억의 소로길은 예전보다 더 좁아진듯했다.

한여름 잘 자란 풀덤불에 반나마 묻힌 강변길을 따라 다수곳이 건넌 처녀는 그만 가슴이 짓눌리는 듯하여 고개를 들었다. 순간 정우의 눈길이 마주쳤다. 현옥은 저으기 당황해졌다. 자기를 바라보는 청년의 눈이 탄볼처럼 이글거렸던것이다.

왜 저런 눈길로 보는걸가? 어찌자고...

사실 정우는 지금 흥분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처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격하게 뛰노는 감정으로 흐려지고 이마에는 진한 땀발이 솟는듯하였다. 이제와서 그는 현옥을 떼여놓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도 할수 없었다. 어떻게 되어 이 처녀가 자기의 생활에서 뗄수 없는 한부분처럼 되였는지... 해마다 휴가를 탄부들을 위해 바치는 처녀의 남다른 지향이 그의 마음속에 지른 불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정우는 문득 한해전 가을날, 탄광지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위가 온통 불길에 휩싸인듯 빨갱게 타던 그 빛갈이 생각났다. 터밭에서 고추를 따들이던 어머니는 아들의 의젓해진 모습을 보자 바구니를 떨구고 달려와 두팔로 와락 끌어안았다. 하여 정우의 주위에서도 흩어진 고추의 빛갈이 붉게 타올랐었다.

《왜 이제야 오느냐, 파견장이 떨어진지 언젠데... 네가 탄광에서 돌아오면 인차 보내라고 군당에서 사람이 두번이나 왔댔다.》

《어머니, 전... 배치문제를 락착짓고 왔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결심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두 모를 일이구나. 난 여직껏 널 믿구 홀로 살아왔는데... 자, 봐라, 금년에도 고추가 얼마나 잘됐는지 아니, 너를 위해 담근 갓김치도 그새 세번이나 빨갱게 익었다.》

《어머니!》

정우는 그만 눈곱이 따끔거려 어머니의 윤택없는 손을 꼭 잡았다.

《전 다르게는 결심할수 없었습니다. 전우들은 북부탄전으로 집단진출하였지만 부대에서는 나를 귀가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정장 고향에 들어서니 동구길을 몇몇이 밟을수 없었어요. 그래 마음의 위안이나마 얻자고 탄광지원을 갔었는데 탄전은... 제가 설 자리를 정해주었습니다.》

제대된 그를 보자고 마실왔던 늙은이들이 다 돌아간후 정우는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다.

잠 못들고 뒤척이는 어머니를 보느라니 아들을 기다려온 그 기대와 소원이 얼마나 크고도 뜨거운지 불쑥 솟구치는 눈물속에 깨달았던것이다.

일찌기 인민군대 련대장을 하던 아버지가 전사한 뒤 자식을 키우며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였다. 창가로 비쳐드는 새벽 달빛이 방구석에 밀어놓은 꾸레미-가지가지 즐거운 공상과 추억을 다 없으며 인생말년에 락삼아 때없이 들여보던 레장감을 땡그라니 비쳐주고있었다.

그렇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앞에 어찌 불효할수 있겠는가. 정우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여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굳게 속다짐하였었다.

그런데 새날이 들리자 어머니는 말하였다.

《늙으면 주책머리 없어진다더니 내가 제 리속에 빠져 너의 마음을 흔들어왔나부다. 가봐라. 이 예미 걱정은 조금도 말구. 나야 이날 이때껏 혼자 지내왔는데 뭐라니, 전사자가족이라구 군당에서랑 잘 돌봐주니 집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탄광에서 마음드는 처녀를 하나 고르면 인차 편지나 해라. 그러면 내 그날루 레장감을 싸들구 널 찾아가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저 하나의 아들만이 아닌 이 땅의 아들된 도리를 지키려는 정우의 마음을 리해한것이다. 그는 동구밖까지 따라나온 어머니에게 깊숙이 허리굽혀 절하고 러객선에 몸을 실었었다.

탄광으로 가는 푸른 배길... 행복의 새인양 강기슭을 스치며 날으던 그날의 갈매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우는 추연한 눈길로 강변을 바라보았다. 한적했다. 고요한 강우에는 가을날의 투명한 햇빛만이 넓게 비껴있었다.

현옥은 벌써 정박장을 가까이 한 나지막한 둔덕 위에 서있었다. 처녀가 선 둔덕우에는 황금빛을 떨친 은행나무 한그루가 호을로 자라 가을날의 대기를 태우는듯하였다.

처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방풍림속에 끼여들어 한빛으로 푸르다가 가을이면 언제나 금빛을 뿌리는 은행나무처럼 볼수록 황홀하고 이채로왔다. 뭘 주저하느냐. 일생에 단 한번일수도 있는 발걸음을 탄부답게 성큼 내짚으렴.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처녀가 지금 저 둔덕위에 서있지 않느냐... 허나 정우는 처녀가 기다리는 은행나무아래로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거만 하였다.

강상류쪽에서 올라오는 배고동소리가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했다. 강바람이 처녀의 강굴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옷자락을 잡아채며 정박장쪽으로 불어가고있었다. 그제야 현옥의 차림새에 주의가 갔다. 정우는 정날이 가슴에 박히는듯 둔하고도 모질은 아픔을 느끼며 거무튀튀한 은행나무껍질을 우뚝 소리가 나게 잡아뜯었다.

허나 자신을 이겨낸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정우는 자기가 어떻게 되어 처녀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쥐게 되였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따스하고 나긋한 손가락들이 좁안에서 바르르- 떨 때에야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애써 흥분을 누르며 좀 탁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옥이, 이제 가면 언제 또 만날수 있겠는지.》

《...》

처녀는 그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 버렸다.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아프도록 짝 틀어진 청년의 억센 손길을 느끼자 심장이 급하게 뛰놀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머리가 혼돈되어버렸다. 처녀는 그만 여직껏 아껴오던 소중한것을 청년에게 다 맡겨버리고싶어졌다. 그들사이에 지속된 침묵은 길었다. 어느덧 현옥의 눈가에는 맑은것이 가랑가랑 차올랐다.

순간 그 어떤 깨달음이 정우의 가슴을 쳤다.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지를뻔했는가. 탄광지원을 마치고 떠나는 처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정우는 눈물어린 그의 얼굴을 일별하고나서 잡은 손을 슬며시 놓았다.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사실 난 해마다 휴가를 막장에 바치는 동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현옥동무, 설사 다시 못온다 해도 공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처녀시절을 남다르게 보낸 동무의 소행은 우리 탄부들에게 후날에도 좋은 추억만을 줄 것입니다.》

《아이참...》

처녀는 아래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외로 돌려 버렸다. 무엇인가 배반당한듯한 감정이 등줄기를 따라 줄달음친다. 청년이 그의 손을 스스로없이 잡았을 때 처녀는 분명 정우의 얼굴에서 사랑의 고백을 읽었던것이다. 그 고백이 마침내 입밖으로 터져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수 없었으나 그의 입에서 뜻밖에도 왕청같은 말이 흘러나오자 왜 그런지 자신의 처지자 눈물겹게 생각되었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철새의 피타는 울음소리가 떨어져내린다. 고개를 제겼다. 아득한 중천, 흰구름밑으로 산개대형을 지은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울며 날아가고있었다. 혹시 저 기러기들이 자기를 고향으로 부르는것이 아닐가. 이맘때면 저런 기러기들이 바다가 상공을 훨훨 날아 아득한 수평선너머로 까맣까맣 사라지곤했었다. 현옥은 빨리 이 자리를 뜨고싶어졌다.

철새의 부름소리는 한껏 피었던 처녀의 흥분을 가라앉혀주었던것이다. 하여 러객선이 기슭에 와닿았을 때 것처럼 힘들게 생각했던 작별의 말을 험하게 하고 서둘러 배에 오를수 있었다. 기선이 강기슭을 벗어나 넓은 강반우에 등실 뗏을 때 현옥은 물위로 눈길을 날렸다. 그들이 마주섰던 은행나무는 방풍림너머로 아득히 멀어보였다. 허나 은행나무의 주위에서는 상기도 등황색불길이 황황 타오르며 누런 불티들을 사방으로 흩날리는듯하였다.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서있는 정우의 모습은 빛쫓인 인화지처럼 처녀의 망막속에 진하게 새겨졌다.

현옥은 탄광지원을 끝내고 돌아오면 얼마간 마음이 뒹뒹해지는상심였다. 비록 휴가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나날은 처녀의 도시생활을 빛내여주기에는 충분했었다. 그 섬광으로 하여 그의 얼굴에는 궁지가 비졌으며 단조롭고 평범한 생활속에서도 남다른 자부심을 느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 무엇인가 그곳 탄부들에게 빛을 남기고 돌아온 심정이였다. 그 무거운 감정이 정우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처녀는 그와 자기사이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현옥은 아무리 해도 정우의 고백을 받아들일수 없었다. 바다우에 솟아난 신기루처럼 초고층주력들이 키돋음하고 항구를 드나드는 배고동소리가 교향곡의 전주처럼 울려퍼지는 해안도시의 변화가- 날마다 오가는 정다운 거리가 양복점의 커다란 늪창너머로 안겨올 때 처녀는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 도저히 살수 없으리라는것을 세차게 높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깨달았던것이다. 바로 이 거리우에서 앞날의 행복한 생활도 흘러가리라는것을 처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가끔 양복점으로는 낯익은 사람들이 혼사말을 들고 찾아오곤하였다. 옷감을 맡기러 왔던 한 젊은이는 재단사처녀의 얼굴을 한번 훑쳐보자 그만 마음

이 애달퍼져 양복점주의를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하건만 처녀는 무정하리만큼 그들쪽으로 얼굴한번 돌려주지 않았다. 처녀는 재단대우에 퍼놓은 천을 마름질할 때 그 모든 번거로운 감정들도 함께 날선 가위날아래 놓고 썩썩 잘라버렸다.

뒤에서 떠도는 말처럼 도고해지거나 거만해서 그러는것이 아니었다. 모순된 감정에서 종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도 하찮게 여겨져서 그러는 것이었다. 허나 퇴근길에 오른 저녁, 도시의 번창한 흐름에 온몸을 맡길 때면 정우의 얼굴이 느닷없이 다가들곤하였다.

역시 딸의 변화에 제일 민감한것은 어머니였다. 현옥이 탄광을 다녀온 뒤 늘 불안을 덜수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날 저녁, 더는 참지 못하고 딸을 방바닥에 붙들어 앉혔었다.

《애야, 너 혹시 탄광에 마음드는 총각이라두 있는게 아니냐?》

《아이... 제가 뭐 어때요?》

《네가 휴가를 다녀오더니 그전과 영 달라져서 그런다.》

《아이참, 어머니두... 온 나라가 탄광을 지원하는 때가 아니예요.》

어머니는 딸이 당돌하게 마주보는바람에 그만 마음이 흠뻑해서 눈가위에 웃음을 지었다.

《너두 이제는 나이가 다 찼는데 자중해야 하느니라. 아까 무역항에 있는 외삼촌이 왔댔다. 네 선을 보이자구 하더라.》

현옥은 그만 눈곱이 따가워서 급히 고개를 숙이였다. 애오라지 딸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한량없는 사랑과 기대여서 더구나 뿌리치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각이 닥쳐오자 처녀는 어머니를 노엽혔다. 외삼촌이 그리도 신신당부하였건만 그 총각이 기다리는 해안공원으로 나가지 않았던것이다. 그 시각 처녀는 번민을 달랠길 없어 바다가로 나왔다.

해질무렵의 수평선은 노을빛에 물들어있었다. 기슭으로 밀려드는 파도는 추켜든 머리마다 황금빛 레스를 돌렸다. 옅은 박막처럼 밀으로 기우는 물갈기를 스치며 갈매기들이 불덩어리마냥 노을을 향해 솟구쳐올랐다. 갈매기에 눈길이가 닿자 문득 정우의 모습이 떠오른다. 처녀는 가슴우에 두손을 얹으며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정우동무, 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밀려드는 파도사이로 청년의 격해진 목소리가 울려왔다.

《두려워 마오. 주저하지 마오. 진정 행복의 가치를 알려거든 저 갈매기처럼 시대의 격랑속에 뛰어드시오.》

(시대의 격랑 드높은곳은 어디일가? 그곳은 정우동무와 그의 소대원들이 일하는 막장이 아닐가?)

수평선을 바라보는 처녀의 눈가엔 그 어떤 그리움이 넘쳐나고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현옥은 고향의 거리를 가책없이 밟을수 없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가는 청년들의 발자국이 곳곳에 찍힌 거리였다. 그들을 환영하던 학생취주악대의 나팔소리가 도시의 얼어붙은 대기를 상기도 쨍쨍 울려주는것만 같았다.

어느날 현옥은 거리를 지나다가 탄광으로 진출하는 피복공장 처녀들을 배려우는 환영역두에서 잠간 걸음을 지체하게 되었다. 현옥은 단 한번의 결심으로 자기의 비할바 없이 높은 경지에 올라선 그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때 누군가가 그의 가슴에 싱싱한 생화묶음을 꽂아주고 군중들속으로 들어가버렸다. 열결에 꽃다발을 받아안은 처녀는 그만 난처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능청스러운 소녀는 거리의 저쪽에서 티없이 맑은 웃음을 보내고있었다...

현옥은 소녀가 안겨준 꽃다발을 소중히 들고 집으로 돌아와 꽃병에 꽂아놓았다. 때아닌 절기에 활짝 피어난 꽃송이들은 아늑한 방안을 그윽한 향기로 가득채워 집안사람들을 아연케 하였으나 처녀는 꽃다발의 사연을 끝내 설명할수 없었다.

설명절이 다가왔다. 햇숨같은 함박눈이 푸근히 내려 복밭은 대지를 축복해주는 그해의 아침, 현옥은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모신 신문을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석탄전선을 인민경제의 첫차리에 내세워주실 때 처녀는 자신이 시대의 격랑 드높은 그곳에서 도피하여 아늑한 강변에 서있는것만 같아 얼굴을 들수 없었다. 하여 새해 벽두에 휴가를 받은 그는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덕산탄광으로 갔다. 땀뻘 대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자동차가 대동강을 옆에 끼고 달릴 때 처녀는 생각깊은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두렵게 얼어붙은 강반우에 서는 눈보라가 하늘을 휘젓고있었다.

탄광에 도착한 처녀는 감회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풀 꺾인 바람이 방금 내린 눈송이들을 날리자 그속에 점점히 묻혔던 꽃보라와 오색테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결한 눈빛을 바탕으로 되살아난 아름다운 그 색깔들은 탄부들을 고무하는 연도환영이 새날의 첫기슭에 있었음을 흥벽을 두드리는 심장의 박동으로 알려주고있었다. 탄부거리중심에 세운 대형선전화속에서는 착암기를 둘러맨 탄부청년이 불타는 눈길로 내다보며 오가는 사람들을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속도 창조예로 부르고있다. 석탄을 만재한 자동차들이 단김을 확-끼었으며 현옥의 옆을 스쳐지나갔다. 로적쟁은 선전화의 주인공이 힘차게 가리키는 손길너머에 있었다. 막장의 입김인듯 땅기운이 안개처럼 서린 갱구

앞, 권입장에서는 탄차와 공차들이 복잡하게 엇갈린다. 운반갱이며 선탄장, 사령실도 바쁘지만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저탄장은 또한 얼마나 분주한가. 벨트콘베아들이 여울물처럼 흐르는 배탄기 아래에서는 일렬횡대로 늘어선 불도젤들이 잠간사이에도 언덕처럼 쌓이는 탄더미를 한쪽으로 밀어간다고 파란 연기를 줄달아 뿔으며 안간힘을 쓰는데 그 퇴알진 음향에 장단쳐주는듯 압축기의 우렁찬 동음이 쿵쿵 울리고있었다.

코마루가 상큼한 합숙사감녀인이 현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글쎄, 이해에는 꼭 절기를 앞당기리라는 예감이 들더라니… 물론 독고개를 넘어왔겠지?》

《아이참, 어머니두. 그게 무슨 고개라구… 넘어 볼거나 있어요.》

처녀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자 녀인은 상큼한 코마루를 치켜들었다.

《그래두 옛날에는 무척 높은 고개였다네. 어디 한번 들어보겠나?》

녀인은 들고온 하얀 깃을 이불에 맞추느라고 두손을 량옆으로 벌린채 정색해서 발을 달았다.

《이게 요즘 새로 수집된 〈전설〉 이라는건데… 옛날 거기서는 고개마루의 흙을 파서 독이며 토기를 굽던 장공인들이 살았다누만. 얼마나 많은 흙을 파냈는지 세월이 흐르니까 그 높던 고개가 평지나 다름없는 둔덕이 됐다네. 그런데 낮아진 그 둔덕에서 솟처럼 불이 당기는 이상한 흙이 나오질 않았겠나. 그 흙이 바로 이고장에서 처음 발견된 석탄이였다누만. 그러니 이고장의 조상탄부는 독고개에서 살던 어제날의 장공인들이셈이지.》

순간 처녀의 눈에서 추억의 먼빛이 반짝거렸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글쎄… 누가 시키면 그렇게 극성스러울가. 로적갱의 그 사람, 처녀도 잘 아는 채탄소대장이 수집했다네. 참 그 사람이 피짜야. 요전엔 또 나보구 뭐했는지 아나. 〈사감어머니, 저한테는 우리 고장의 산들이 그저 산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저 기복을 이룬 룡선 하나하나가 모두 석탄이 그득 들어찬 배부른 산이란말입니다.〉 하지 않겠나.》

녀인은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호함지게 웃었다.

현옥은 러장을 풀어놓기 바쁘게 입갱준비를 서둘렀다. 처녀가 막장으로 들어갔을 때 정우는 소대원들과 함께 현수동발아래 도면을 펴놓고 앞으로 뚫고나가야 할 탄밭을 흥미있게 들여다보고있었다.

그 구역은 매장되어있는 탄전이 기막히게 좋으나 지압과 지하수가 유명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있던 지대였다. 그런데 이들은 새해의 첫 정복대상으로 그 지대를 맡아나섰던것이다. 새로운 전투대상을 설명하는 소대장의 목소리는 열정에 넘쳐 울렸으며 쪽-내뻗친 팔은 도면의 어느한 점을

가리키기도 하고 대각으로 날아가기도 하였다. 정우의 손은 도면우를 평면으로 날고있었지만 현옥은 분명 보았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은 얼마나 광대한 탄밭을 가리키는것이며 두터운 땅깍데기를 두부모처럼 자르며 움직이고있는것인가… 도면을 짚는 그 손가락끝에는 자그만치 수천톤이나 되는 석탄이 아찔하게 매달려있었다.

현옥은 그만 가슴이 벅차올라 입술을 벌리며 심호흡을 하였다. 바로 그순간 처녀는 담대한 이 소대장과 눈길이 마주쳤다. 처녀는 여전히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채 정우를 바라보았는데 방싯 열린 도톰한 입술새로 석류씨처럼 흰이가 드러나며 그대로 그옥한 미소가 되었다.

막장은 감정의 정수를 갈라주는 지표와도 같았다. 현옥은 지심깊은 막장으로 들어서자 사사로운 감정들이 검불처럼 떠버린듯 머리가 무척 맑아졌다.

《정우동무, 제가 이렇게 빨리 올줄은 몰랐지요.》

《아니, 이해 겨울에는 어쩐지 동무가 절기를 꼭 앞당길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나, 왜서요?》

처녀는 즐겁게 정우를 바라보았다. 자정이 기운 깊은 밤… 그들은 새로운 채탄기술을 도입하느라 바쁘게 돌아가다나니 그만 인차를 놓쳐버리고 사갱오리길을 나란히 걸어오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들 앞당기자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 지압과 지하수를 역이용하는 새로운 채탄법을 받아들이려는것도 실은 여기에 귀착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행운을 놓칠 현옥동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말입니다.》

《아이참.》

그들의 발밑에서는 두개의 불빛동그라미가 의중게 흔들리고있었다. 그 예측이 좀 엉터리이긴 해도 처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점점 다가오는 갱구로 별들이 얼어붙은 겨울밤이 보였다.…

현옥은 휴가기간이 줄어들수록 차츰 불안과 초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새로운 채탄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날이여서 정우는 늘 막장에 있었다. 어쩌다가 땅우에서 마주서게 되는 때에도 정우는 조연과 방조를 위해 만들어진듯한 실무적인 목소리로 처녀를 실망케 하였던것이다.

어제저녁 현옥은 갱구앞에서 정우를 기다렸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흥분과 추억으로 맺어진 애뜻한 감정 그리고 나이찬 처녀가 의례히 가질수 있는 수집은 기대가 그 기다림우에 실려있었다.

그런데 늦게야 막장에서 나온 정우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휴가로 될수도 있겠

지요?》하고 물었을 때 처녀는 그만 가슴을 조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고 되물었다.

《나이가 있지 않소. 현옥동무라구 한뉘…》

《아이참.》

처녀는 그만 눈물이 펄- 돌아 고개를 숙이고 잠시 서있었다. 마침 골안에 땅거미가 지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다음순간, 처녀는 그만 자신을 다 잡지 못하고 전차선로를 따라 종종걸음을 쳤다. 영문을 몰라하는 정우의 눈길을 뒤잔등에 한짐 가득 얹으며…

처녀는 강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칼을 반듯한 이마 위로 쓸어붙이며 호-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난 어쩌면 좋아…)

그러자 문득 막장을 진동하던 경쾌한 음향이 파동의 반원을 그으며 대기속으로 퍼져가는듯하였다.

그 음향은 처녀가 딛고선 이 거대한 땅속으로 메아리치면서 현옥이가 절망에 빠지려는 바로 그순간에 돌연 그의 결심을 무르익혀주었다. 그것은 자나 깨나 석탄- 그것밖에 모르며 사사로운 감정도 다 바쳐 오직 탄으로만 당을 받들려는 정우와 같은 탄부들과 생활도 운명도 함께 하려는 이 나라의 청년된 숭고한 자각이었다.

아, 아, 메아리! 막장을 뒤흔들던 장쾌한 음향의 메아리여…

처녀는 탄액이 굵이쳐흐르는 수채열에 서서 정우의 모습을 흘린듯이 지켜보고있었다. 고무비옷을 입고 고무장화를 신은 그는 자연의 고삐를 잡은 거인처럼 일명 《불대포》라고 부르는 새로운 채탄설비를 다루고있었다. 수십기압을 뻗치며 노출에서 뿜어나온 물줄기는 뽀잇한 물안개를 피우면서 마구리로 날아가 장쾌한 메아리를 일으키고 수압의 세례를 받은 탄벽은 물먹은 흙담처럼 연방 무너져내려 수채를 타고 늪실늪실 밀려왔다.

그것은 실로 장관이었다. 수압에서 일어난 습기찬 바람은 《고생대의 원시림》에서 풍겨나오는듯 청년의 비웃자락을 뒤로 나뭇겼다. 폭풍우면 이보다 더 거세차고 격랑이면 그보다 더 높으랴. 천길지하막장을 뒤흔드는 음향은 바다의 호곡보다도 높았다. 마침내 엄혹한 자연의 고삐를 거머쥐고 인간의 의지대로 드나드는 탄부들의 자부심은 또한 그보다 더욱 높았던것이다.

장엄한 그 화폭속에서 현옥은 수채관리원이었다. 탄액이 흐르는 수로를 따라 거닐며 처녀는 한없이 격동된 눈길로 청년의 미더운 모습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는것이였다. 처녀에게는 어찌된 막장바람에 비웃자락을 뒤택기며 서있는 정우의 모습이 격랑우를 날오는 갈매기처럼 끝없이 돌보이였다.

그랬다. 그는 갈매기! 조국의 풍요한 대지우로 검은금- 보화를 퍼올리며 광대한 지하의 바다를 날오는 막장의 갈매기!

…마침내 성공의 기쁨이 온 막장에 굵이치며 탄부들을 얼싸안았을 때 처녀는 자신이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되지 않았다. 다만 그 환희가 자기열을 스쳐 어딘가 다른곳으로 쏠살같이 날아가버리는듯한 서운함이 마음을 허전하게 했었다. 현옥은 갱밖으로 나왔을 때에야 그것이 휴가기간은 끝났으나 정우와 자기사이에 의연히 남아있는 결속되지 못한 감정때문이라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마나!》

처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탄부복을 입은 정우가 한손으로 은행나무줄기를 짚고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눈은 이미 멎었다. 구름새짚으로 뚫고나온 한줄기 해빛이 청년의 듩직한 어깨를 스쳐 눈우에 떨어지고있었다. 방금전에 내린 눈송이들은 어찌나 가볍고 기류에 민감한지 소리없이 스며드는 광선의 일격에도 놀라 소르르- 풍겨오를것만 같았다.

《저… 어떻게…》

《련합 기술과에 갔다오던 길입니다. 강변길을 한참 걷느라니 문득 우리가 이 소로길에서 처음 만나던 일이 생각나겠지요. 그래 고개를 드니 하 글썽 동무가 은행나무아래 서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처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좀 엉터리이긴 해도 현옥은 매양 정우의 이런 말이 마음에 들었었다.

《한데 어찌된 일입니까? 설마 러객선을 바라고 강변으로 나온건 아니겠지요.》

《아이참…》

처녀는 잘근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자기 심정을 몰라주는 정우가 야속했다. 그는 비록 힘겨웠지만 처녀시절의 가장 보람찼던 나날들을 잊을수 없어 여기로 나온것이다. 지금은 눈에 묻혔지만 남다른 지향을 안고 덕산탄광으로 가는 첫자욱을 찍었던 그날의 소로길을 불러 추억의 강변을 거닌것이였다. 고열탄처럼 뜨거운 열정과 굳은 암반도 으깨는 강직한 의지를 지닌 한 탄부에게 반하여 어머니밖에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내보인적이 없는 수정처럼 맑고 흰눈처럼 깨끗한 순정을 헤쳐놓고싶은 처녀의 마음을 그는 정녕 알수 없단말인가… 현옥은 그 어떤 초조감에 휩싸여 힘겹게 말을 열었다.

《저… 휴가기일이 하루밖에 안남았어요.》

《알고있습니다. 래일 탄광에서 강동역쪽으로 가는 차가 있다가에 미리 부탁을 해두었지요. 마음같아선 동무를 꽃수레에 태워보내고싶지만… 아니, 왜 그렇니까?》

정우는 그만 당황해졌다. 처녀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렸던것이다.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인가요? 바래주고나면 마음이 편하겠지요. 어쩌면 동문…》

《현옥동무!》
 《...동문 정말 탄박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

정우는 현훈증이 온듯 머리가 혼돈되어버렸다. 정말 그것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그의 앞에서는 한결음 내짚으면 땅을듯 바투 선 처녀의 초연한 눈빛이 떨고있었다. 그 눈빛아래 터놓지 못한 가을날의 고백이 거연히 남아 가슴을 불태우건만 마음은 오히려 더 진정되는것이였다.

한해전의 가을만 해도 지금같지 않았었다. 그때 정우는 참으로 자신을 이겨내기 어려웠었다. 한껏 쌓인 고백이 금시 가슴을 터치고 나올것만 같아 한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흐려진 눈길을 들었을 때 그는 시야에 안겨드는 모든것이 사랑으로 충만되어있음을 알았던것이다. 강물은 끝없이 밀려와 기슭을 어루만지고 은행나무는 금화같은 잎사귀들을 아낌없이 뿌리며 가을날의 대기를 불태우는듯하였다. 부채같은 노란 잎새 하나가 뱅글뱅글 돌며 처녀의 부드러운 어깨우에 내려앉을적에 정우는 그 잎사귀가 다름아닌 자기 마음을 짱그리 불태워줄을 절감하였던것이다. 허나 그는 세차게 도리질을 했으니 처녀의 어깨우에 내려앉은 은행잎은 또한 사랑의 고백으로 현옥을 딱한 립장에 놓을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해주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그때와는 확실히 달랐다.

정우는 뜨거운 숨결을 뿜으며 자인했다.

《옳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석탄밖엔 아무것도 없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문에 기뻐하고 피로와하는 무수한 날들이 앞으로 나 의 세월을 이룰거요. 동무가 만일 이

마음을 알수만 있다면... 더 많은 석탄을 캐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이몸을 부셔 막장에 바치고싶은 심정이요.》

《흑-》

처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자리에 꿇어앉았다. 어깨가 세차게 물결치고 후두둑- 후더운것이 눈굽을 넘쳐났다.

처녀가 딛고 선 대지의 표면으로 막장의 장쾌한 음향이 메아리쳐왔다. 마치도 거세차게 밀려와 절벽을 들부시는 대양의 파도처럼... 그 드높은 격랑우를 누비는 자연의 정복자- 갈매기들의 억센 날음이 처녀의 눈가에 금시 보이는것만 같았다.

해빛이 비졌다. 가다가다 드리운 찬연한 해발사이로 무수한 사연을 안은 생활의 뜬김이 고요히 떠오르는듯싶다. 속에는 용암을 품었으나 표면은 너무도 단조로운 탄전의 눈덮인 대지는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포근하고 따사로웠다.

이윽고 현옥은 고개를 들었다. 땅의 감촉이 온몸에 퍼지자 호흡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탄전의 류다른 대지는 마침내 그의 심장을 달아준것이다. 하여 마음이 진정된 처녀는 해빛을 눈부시게 발산하는 눈덮인 대지를 바라보며 자부심에 넘쳐 말하였다.

《언젠가 동문 여기서 말하였지요. 갈매기는 격랑을 떠나 못산다고... 정우동무, 저도 갈매기가 되려고 여기로 왔어요. 나도 동무처럼 여기에 남겠어요.》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가사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안정기

한가지 생각해도 천가지 일을 해도
 인민을 먼저 놓고 펼치는 우리 세상
 살맛이 있다네
 일할맛이 있다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가꾸어 주렁지는 행복은 우리의것
 만물이 번영하는 조국도 우리의것
 주인으로 산다네

자랑 안고 산다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살아
 누구나 심장으로 받드는 우리 나라
 수령님 세우셨네
 우리 당이 이끄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수 고

-리인모동지가 부른 노래-

신국봉

검은 머리 백발되어 돌아온 나를 보며
정말 수고했다는 당신의 그 인사는
당신앞에 내가 먼저 할 인사였소

몸은 비록 긴긴세월 철창속에 살았어도
맘은 하루같이 당신의 맘속에 살아
당신의 맘 나는 정말 잘 아오

철창속에 갇힌 나야 단한가지
죽어도 변치 않을 그 생각 하나뿐이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야 오만가지 근심걱정

찬바람에 덩구는 나무잎소리만 들어도
당신의 마음속엔 찬바람만 한가득
끼니마다 밥상에 오르는 흰쌀밥도
목이 메어 물부터 먼저 마셨댔지

철창속의 귀한 사람 차마 못잊어
이사람 죽었다는 기별을 받아안고도
꼭 살아돌아오기만 기다리며
마음인들 얼마나 남모르게 상했겠소

깊은 한밤 다른 집 창문은 다 닫겨도

행여나 나 돌아오기만 남모르게 기다리는
그 마음의 창문이야 닫겨본적 있었겠소

머리위에 소리없이 내리는 그 흰머리칼
얼굴에도 때없이 패이는 그 주름살
남몰래 손거울에 이모저모 비쳐보며
소리없이 떨군 눈물 얼마나 눈물겨웠겠소

예로부터 세상못할 어려운 노릇
사람기다림이라 그처럼 전해오지만
하루이틀도 아닌 너무나 긴긴세월
그리도 뜨겁게 피끓는 심장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다 꿰게 한
뜨거운 사람아 인정깊은 사람아
정말로 수고는 당신이 했소

그러면 당신같은 너인을 키워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엔
무엇으로 우리의 인사를 올리겠소

세상에 없을 위대한 그 로고
다 알기 어려워도 다 알고 살아야만
정말 수고라오 정말 수고라오

《붉은기》호 나의 기관차야

황승명

《붉은기》호 나의 기관차야
어제보다 다섯량의 짐을 더 끌고
중평, 그 울리막을
단숨에 넘었구나

안겨주는 꽃다발
흘날리는 꽃보라
축하의 이 꽃목걸이는 네가 안아라
집이야 내가 끝었나
네가 끝었지

삼년을 하루같이

고르로운 그 동음을
내 심장의 박동처럼 느끼면서도
나는 미처 다 몰랐구나
놀라운 그 힘을

쇠바퀴가 헛돌며 미끄러져
모래를 뿌리며 한치한치 뚫아오를 때
누가 너를 떠밀어주더냐
누가 너를 이끌어주더냐

나가자, 나가자
기관차의 세찬 음향과 함께

힘차게 울리던 노래는
그 이마에 빛나는
붉은기의 퍼득임소리가 아니었던가

광풍도 눈보라도 헤치며
혈전만리...
백두의 만년설을 붉게 물들인
혁명의 붉은기가 앞에 날리는
나의 기관차야

세월의 언덕을 넘어
달려온 그 길은 멀고 멀어도
들끓는 생활을 이끌고
기쁨과 행복을 떠시고
성스러운
투쟁의 그 한길을 이어가거니

달아오른 그 몸을
식힐 사이도 없구나
자, 보아라

오늘도 어김없는 그 시각에
또다시 발차신호가 내렸다

기다리는 역들을 온 나라에 두고
우리 어찌 순간인들 지체하라
나래치는 시대의 지향을 안고
조국의 미래와 잇닿은 이 길

새 리정표를 아로새기며
충성의 기적소리 높이
무사고정시로 달리는 이 길이
주체의 대화원이 만발한
공산주의 봄동산에 잇닿아있거니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어서 달리자
투사들이 쓰러지면서도 웃으며 바라본
미래의 새 기슭
행복의 그 종착점에로!

푸른 신호등

권태여

밤하늘의 여문 별을 따들었느냐
푸른 신호등
발차신호 동그라미 몇천을 그으며 가느냐
렬차장 처녀의 푸른 신호등

그 불빛 한송이에
승무길 천리를 다 감고 푸는듯
말없이 그리는 그 동그라미에
미소 어린 네 얼굴이 어려오누나

연착을 모르는 위훈의 궤도우에
정시운행의 길잡이 선 너
분초를 아끼여
조국의 시간을 이어가는 그 마음

인생의 봄시절에
네가 찍은 꽃신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동서천리 뜨거운 궤도우에
조국의 걸음이 되어 달려온 자욱 력력해라

계절의 바뀜을 철길우에서 맞으며
계절의 향기를 실어나르는 너
비운적없는 그 길우에
증송의 푸른 신호등 정다운 눈매여

구름 한겹에 별빛은 가리워져도
꺼질줄 모르는 마음의 조명을
궤도천리에 밝혀든 모습
그 뜨거운 숨결이 가슴에 젖어오누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경제전략의 화살표따라
끝없이 질주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 렬차
언제나 정시 언제나 만짐

아, 우리 가는 불변궤도우에
높이 든 푸른 신호등
눈비에도 폭풍에도 꺼짐없을
효성의 등불이여

민족의 의지, 세대의 량심을 뜨겁게 호소한 시인

-시집 《흙》을 읽고-

리창유

화원에 만발한 꽃들가운데는 제 나름의 진한 색깔과 꽃송이의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눈길을 끄는 꽃이 있는가하면 색깔도 수수하고 꽃송이도 작지만 독특한 향기로 사랑을 받는 꽃도 있다. 이렇게 비유해놓고 볼 때 시인이며 고전문학작가였던 김상훈의 시들은 류창한 시어와 물결치는 서정의 분출로써가 아니라 시적감정의 절절함과 진실성, 짙은 향토미로 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은근하게 울려준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8.15해방후 남녘땅에서 25살의 홍안의 청년으로 첫 시집 《대렬》과 장편서사시 《가죽》을 출판하였고 《전위시인집》들에 여러편의 시들을 발표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피괴역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던 시인 김상훈, 그의 시창작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후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그는 70나이에 행복만 창작생활을 마치는 마지막순간까지 실로 수백편의 시와 수많은 예술산문들을 창작하였고 자기가 한생을 바쳐 조사정리하고 연구편찬한 조선고전문학선집들인 《가요집》, 《한시집》, 《리규보작품집》 등 수많은 민족문화유산작품집들을 남겼다.

40여년간에 걸치는 그의 시창작은 작가의 사후에 출판된 시집 《흙》에 의하여 시인의 시적재능과 개성을 더 잘 알수 있게 집성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시집 《흙》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적지 않은 시편들에는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남녘땅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이 떠나온 고향과 그곳에 계신 어머니와 헤어진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정한 이웃들, 학창시절을 보내고 투쟁에도 함께 참가했던 친구들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과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시적 사색과 일반화를 통하여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시뭇음 《싸우는 남편 생각하며》, 《어머니, 꼭 가오리다》의 시편들에서 시인은 많은 경우 남녘땅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투사로 혹은 한뼘 땅을 가꾸어온 농민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화원의 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선 대학생으로 서정적주인공을 설정하고 일구월심 바라는 조국통일의 성전에로 사람들을 부른다.

이 시편들에 일관되고있는 조국통일에 대한 시인의 시적감정은 무엇보다먼저 절절하고 진실한것이 특징적이다.

흙이웁니다
열손가락으로 움켜안으면
훈훈히 혈액이 통하고
가슴무드기 힘이 실리는
농사군의 흙이웁니다

아득히 먼 조상때부터
동산마루에 해가 뜨는 날이면
하루 한때 빠짐없이
일구고 주무르고 매가꾸어온
어머니 품속같은 흙이웁니다
(시 《흙》에서)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시 《흙》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남조선의 한 농민이 정성어린 손길로 싸서 올린 한줌의 흙을 두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울 남녘땅 인민들의 굳센 결의가 잘 반영되어있다. 작품에는 격동적인 웅변도, 험란한 문구도 없으나 남녘땅 농민의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로 환기된 애절한 감정과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애타게 그리며 조국통일을 학수고대하는 남녘땅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이 절절하고도 뜨겁게 담겨져있어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다. 서정적주인공인 남녘땅의 한 농민은 한줌의 흙을 두고 자기들의 지나온 피눈물나는 고역과 비참한 생활을 읊조리기도 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운 농촌청년들의 투쟁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의 그날 땅을 분여받고 난생 처음으로 제땅에서 농사짓던 기쁨에 대하여서도 아뢰이기도 한다. 하기에 한줌의 흙, 그것은 서정적주인공의 피눈물나는 한생의 증견자이며 그네의 간절한 희망을 말없이 알아

주는 생활의 상징적인 동반자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녘땅 인민들의 간절한 지향과 결부시켜 노래하다가 통일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마을에 모실 미래의 량만적화쪽으로 승화시켜 이채로운 시의 세계를 펼쳐놓는다.

이른봄철이나 늦은 가을날에
수령님께서 뚝배에 마을에 들리시
여
늙은이는 백발숙여 절을 하옵고
철부지 어린것은 손길에 매달리며
거리와 집집마다 자랑이 넘치고
은 산천이 눈부시게 밝아올
그 가슴 저리도록 황홀한 순간을
농토와 농군들이 함께 꿈꾸나이다

원췌 미제와 그 피뢰들을 죽치고 통일된 조국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이 보란듯이 만풍년을 안아올뿐 아니라 앞집 뒤집이 서로 불려가며 흥겹게 일할 그 신명나는 새 세상을 그리는 남녘땅 농민들의 간절한 희망,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고 만수축원의 절을 삼가 올릴 그날을 그려보며 살며 싸울 불타는 지향으로 하여 시의 세계는 애절한 감정이 아니라 량만적이며 밝은 색조로 일관되어있다. 여기에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파사로운 손길아래 조국통일의 그날이 이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남녘땅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민족최대의 숙원과 의지로,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의무로, 량심으로 승화시켜 가슴뜨겁게 노래한 시인의 독특한 시적개성이 있고 주체시문학의 화원에 소담이 피여 은근한 향기를 풍기는 시집 《흙》의 진가가 있는것이다.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시인의 사명은 결코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정서를 시적현상으로 재현시킨 서정의 고유한 본도를 떠나 추상적이며 논리적인 주정을 시적으로 라렬하는것으로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생활에 대한 시인-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생활정서나 철학적사색으로 이끌어갈 시의 세계가 없이 논리적인 주정으로서만 시를 꾸미려 한다면 그러한 주정은 공허

한 웨침으로만 느껴질뿐 독자들의 마음을 생활적진실로 뜨겁게 울릴수 없기때문이다.

물론 시인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은 작품의 처음부터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주정과 융합된 시적정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하는 식으로 표현할수도 있으며 철학적인 사색으로 일관된 시의 세계를 펼치는 식으로 나타날수도 있다. 이것은 시인 자신의 창작적개성과 시적소재의 특성으로부터 주어지는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을 취하라고 강권할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생활에서 환기된 시적 체험과 사색이 결집된 논리적인 주정만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시를 쓸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조국통일주제에 바쳐진 시집 《肅》에 속한 적지 않은 시편들에 반영된 시인의 시적감정은 또한 섬세한 생활정서로 하여 특징적이다.

시초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시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오리다》, 《열무김치》를 상기해보자. 이 시들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며 통일을 위해 싸우는 서정적주인공의 애라는 심정이 얼마나 뜨겁고도 섬세한 생활정서로 울려나오고있는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물레질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부엌문 여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을 앞 오솔길에 매화꽃이 가득
핀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세월이 그자리에 멈춰섭니다

...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어김없이 나를 바라보시는듯
속눈썹 가즈런히 눈시울을 좁히시
며
그 갈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

어머니를 생각하면
통일될 조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은혜로운 빗발을 받으며
통일된 그날 위해 싸워가는 이름
이
더욱더 자랑스러워집니다

(시 《어머니를 생각하면》중에서)

시인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 고향집의 귀익은 다정한 물레질소리며 동구밖의 정자나무며 재넘어 능수버들 우거진 고향마을 모습을 떠오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된다고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의 이 노래속에는 헤어져 수십여년 지나간 세월에 축적된 작가의 뼈아픈 생활체험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섬세한 시적감정으로 표현되어있는가. 참으로 이것은 몇백마디의 웨침보다 더 강하게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다.

시 《돌아가오리다》에서 시인은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길에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온 겨레가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통일의 찬란한 해빛을 안고 어머니에게 돌아갈것을 결의다진다.

《진필과 가시밭과 벼랑과 남녘러지와 독초와 굶은비와 짐승의 울음이 겹겹이 가로막고 그우에 천근무게로 어둠에 깔린》 암흑의 남녘땅에 새벽을 안고 해빛을 안고 돌아갈 서정적주인공의 굳은 결의는 조국통일을 그리는 우리 인민모두의 지향이며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다.

시에는 시대의 이 주도적인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온갖 사악하고 거치장스러운 잡물들이 판을 치는 암흑의 장막으로 뒤덮인 남녘땅에 새벽을 안고 해빛을 안고 돌아가겠다는 시적비유로 노래되고있다. 시는 짧으나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인민모두의 력사적사명감이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웅심깊게 집약되어 노래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말로써 대신할수 없는 시의 독특한 정서세계가 아니겠는가.

이 시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시 《달》에는 이러한 시인의 시적감정이 더 절절하게 담겨져있다.

통일을 못보고 돌아간 어머니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밤하늘의 달
이 되어
밤마다 내 창가를 지켜보고계시나

활짝 핀 우리 살림 대견하여 웃으
시나
흥에 겨워 잠시라도 남녘을 잇을
세라
친구를 사이사이로 마음쓰고계시
나

북남겨레 힘을 합쳐 양놈을 내몬
후에

통일의 만세소리 어서 들려달라고
어머니 새벽달 되어 기다리고계시
나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시인에게 있어서 지을수 없는 가슴아픈은 락원의 보통강반에 새집들이 하여 하얀 벽우에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밝은 영상을 정중히 모실 때도, 수많은 가치있는 저서들을 수집 정리, 집필하여 고마운 우리 당의 높은 평가와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받을 때도 그리고 나라의 역군으로 자란 자식들의 성례를 치르던 그 시각에도 언제나 남녘땅의 눈에 익은 고향마을의 거치른 들판에서 이 아들들못내 그리며 부락하늘을 바라보고계실 늙으신 어머니에게 소식한장 전하지 못하는것이였다.

오매불망 상봉의 그날, 통일의 그날을 그리던 시인은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게 된다. 원쑤미제에 의한 분열의 장벽으로 하여 어머니의 령전에도 가볼수 없게 된 시인의 마음속 고통은 얼마나 큰것이였으랴, 하지만 시인은 이 비통한 마음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상징적인 형상적비유에 가탁하여 돌아가신 어머니가 밤하늘의 달이 되어 자기를 통일성업에 떨쳐나서라고 부른다고 노래하고있다.

시는 끝났으나 작품에 노래되지 않은 많은것이 련상된다.

이것은 보다 큰 그 무엇을 시사하여주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시의 강렬한 시적여운이 있는것이며 어머니가 이처럼 바라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복하면 할수록 남녘땅 인민들과 그리운 가족친척들을 잊지 않고 살며 투쟁할 시인-서정적주인공의 굳센 결의가 비쳐있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는 음미해보면 볼수록 보다 큰 시적감흥을 주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참으로 가볍게 묘사된 시적형상에 무거운것이 깔려있고 작은것을 통하여 기발한 시적재능은 우에서 언급한 몇편의 시편들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한편의 시를 써도 시인이 얼마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면서 시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모태기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시집 《肅》에 나타난 시인의 창작적개성은 또한 그 어떤 주체의 작품이건간에 밝은 색조로 작품의 양상을 일관시키고있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적후투쟁의 나날에 쓴 시묵음인 《전호에서 부르는 노래》와 싸우는 남녘땅 인민들의 투쟁에 바

쳐진 시뭇음인 《어머니, 꼭 가오리다》에 수록된 여러편의 시들에도 잘 반영되어있다.

《봄비》나 《습격조의 노래》, 《소녀빨찌산》을 비롯한 여러편의 시작품들만 보더라도 적들속에 겹겹이 포위된 적후에서도 승리할 래일을 그리며 두려움 모르고 용감무쌍하게 싸우는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정신과 백절불굴의 전투적 기백이 랑만적으로 밝게 채색되고 가미되어 노래되고있다.

시 《봄비》에서 시인-서정적주인공은 태백산령 아아한 봉우리마다에 조용히 내리는 봄비를 두고 그것은 엄혹한 빙설을 이겨내고 이 땅에 봄을 안아오는 승리의 화신이라고 노래한다. 그리하여 시인-서정적주인공은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에 무성한 숲을 이룰 이룸모를 초목을 그려본다. 이것은 비록 오늘의 싸움은 간고하지만 미구하여 승리의 만세소리 하를 땅을 진감하리라고 확신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때문이다. 이것으로 하여 시의 색조는 밝고 랑만적이다.

...

정든 옛집을 꿈마다 그리며
삼등을 기대여 잠이 든 고목과
원썹을 찾아 조석으로 기어내린
발에 익은 돌뿌리마다에
보드라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조국하늘에서 봄비 내린다

전호도 흠추룩히 젖어들어라
털모자도 흠추룩히 젖어들어라
전우를 묻고온 언덕길에도
그리운 산길에도 젖어들어라

일제히 우리 노래 부르면
비와 노래가 땅에 스며서
아름다운 조국 산과 들판에
풀과 꽃잎이 소스라쳐 자란다

래일엔 틀림없이 무찔러버릴
룡선 하나 넘어 원썹을 두고
오늘은 고요히 봄비에 젖으며
시름없는 아해처럼 노래부르자!

얼마나 랑만적인 지향이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는 시인가, 원썹들은 갖은 기승을 부려도 조금도 두려움없이 곳곳이 싸우는 인민군전사-영웅의 승리에 찬 기백이 시줄에 차고된친다.

시 《소녀빨찌산》의 경우 이러한 랑만적인 기백은 그 어떤 첨예한 정황에서도 원썹을 맞받아 용감히 싸

우는 소녀빨찌산대원의 형상에 깊이 구현되어있다.

아침마다 사슴이 떼지어 내려오는
호젓한 산마을에서 다정한 어머니
와 단둘이서 농사짓고 산새와 함께
노래부르며 옛이야기처럼 살아오던
소녀, 그에게서 원썹들은 사랑하
는 그 모든것을 무참히 빼앗아갔다.
놈들은 소녀의 고향마을을 재더미로
만들고 그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학
살하였다.

소녀는 총을 잡고 원썹들을 무찌르는 성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빨찌산대원이 된다. 그는 아버지장군님께 한몸 바쳐 조국땅을 수호할 맹세를 드린후 곧 원썹치는 성전에 참가하여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

원썹가 쓰러지는 처참한 비명을
복수의 노래처럼 귀담아들으리
굴러떨어지는 시체들을
하나하나 발로 밟으며
보라!

산새 한마리 죽이지 못한
이 착하고 어린 소녀가
얼마나 조국땅을 사랑하기에
적에게 이렇게 무자비한가를...

란창도 비고
수류탄도 떨어지고
전우의 림비한 피를 밟고
오직 난창만을 쥐고 섰을 때도
소녀의 눈시울에 어머니가 떠오르
면

소녀는 표범처럼 매사위저서
백천의 원썹가 앞을 막아도
털끝 하나 굴하지 않는
용사중의 용사가 되었다

소녀는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혁명의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대오의 맨 앞장에 불사신마냥 달려나가 용맹을 떨쳤고 어느 한 전투에서는 마지막 원썹을 뒤쫓아가 단신으로 그놈을 죽치느라 밤새 대오에 돌아오지 못한다. 승리한 초소에 새날이 밝아오자 소녀는 피에 젖은 옷자락을 기폭처럼 날리며 대오에 돌아온다. 그리고는 래일의 즐거운 싸움을 위하여 총을 닦는 용사들속에 섞여 피콜새와 같이 고운 목소리로 승리를 불러오는 노래를 부른다....

시 《소녀빨찌산》에 시적으로 묘사된 소녀의 형상은 그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시인의 강한 긍정의 열정과 어머니를 원썹들에게 잃고도 눈물한방울 보이지 않고 복수의 길로 나서는 그 강毅한 의지에 대한 찬미, 산새 한마리도 죽이지 못하던 그가

날창으로 마지막 원썹놈을 뒤쫓는 성격발전의 대조, 언제나 산새처럼 고운 목소리로 승리의 노래 목청껏 부르는 청신한 모습에 대한 부각 등으로 하여 더 더욱 랑만적이다.

소녀의 생활은 참으로 시적이며 극적이다. 때문에 이 시는 적지 않게 담시적인 특성을 내포하고있다. 시인은 소녀의 영웅적행동을 열렬히 긍정하고 찬미할뿐 그 이상의 평가는 독자들에게 내맡긴다.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있을 때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의 서정은 작품전반에 물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작품에 따라 시인의 주정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시적형상을 두고 메마르고 딱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시인 김상훈은 시적이며 극적인 생활적계기를 포착하여 그것을 담시와 같은 이야기형식으로 엮는 작품들도 썼다.

시뭇음 《사랑하는 내 조국》편에 들어있는 시초 《단야공의 노래》를 비롯하여 시 《언약》, 《탄실이》, 《숲》, 《웃으며 걸으며》, 시뭇음 《싸우는 남녘을 생각하며》편에 속하는 시 《무등산의 봄》, 《〈공범자〉》, 《어머니》, 시초 《혁명가 부부에게 드리는 노래》, 시뭇음 《어머니, 꼭 돌아가오리다》편에 수록된 시 《남녘의 한 벼에게》, 《부락》들이 그러한 작품이다.

얼핏 스쳐보면 이 시들은 시인이 직관적립장에서 어떤 이야기거리의 생활소재를 시적으로 엮어 작품을 만든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어떤 다른 인물의 생활을 이야기기식으로 배열하고 시인의 평가를 직접 주지 않거나 한두마디로 짐작시켜주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들이 산문화되지 않고 강한 시적정서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시적감흥에 잠기게 하는것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시적주정에 융화되어 시화되고있는데 원인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담시와 같은 이야기형식의 시도 정리하여야 한다.》

이야기형식의 시란 곧 서사성이 강한 시작품을 의미할것이다.

시 《소녀빨찌산》과 같이 소녀의 지나간 생활이며 그가 어머니를 잃고 원썹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나서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그린 이러루한 형식의 작품은 그것이 비록 담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사성이 강한 이야기형식

의 서정시이며 강한 주정이 전면에서 흐르지 않는다고 해도 무르익은 시적 감흥과 여운을 주 고있다는 점에서는 서정시의 본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할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집 《흙》의 시가운데는 서사성이 강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시집 《흙》에 수록된 적지 않은 시작품들에는 구수한 고향의 흙냄새와 같은 향토미가 짙은 시적묘사로 일관되어있다. 이것은 시인의 고유한 개성적인 얼굴을 드러내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인의 개성은 해방직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쓴 시들을 묶은 《빼앗긴 땅에서》 편에 들어있는 시 《농군의 말》, 《보리고개》, 《새벽비》, 《매》, 《종다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와 사회주의초건설시기에 쓴 시 《집들이》, 그리고 시뭍음 《싸우는 남녘을 생각하며》 편에 수록한 시 《무등산의 봄》, 《어머니》, 《밤길》과 《어머니, 꼭 가오리다》 편에 속한 시초 《어머니에 대한 생각》, 시 《아버지의 부락》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풍습과 생활, 아름다운 례의법절과 서로 아껴주고 위하는 기풍, 불의를 타매하고 정의를 지켜 싸우는 강毅한 의지가 잘 반영되어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넋을 원쑤격멸으로 불려일으키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더욱 절절히 안겨온다.

시초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속한 시 《열무김치》만이라도 두고 보자.

시에는 자배기 가득 푸성귀를 썰어담고 푸름푸름한 풋고추를 다져넣어 열무김치를 담그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노래되고있다.

처마밑에 하나가득 제비들이 우짖던 날
열무김치를 와작와작 깨물면서
풋바싹 보리밥을 그리도 맛있게 먹던
어깨 동실한 아들이 그리워서
어머니는 소금항아리에 손을 넣은 채
말없이 오솔길을 바라보고있다

퍼올려도 퍼올려도 끝없는 샘물처럼
수십년을 한대중으로 솟아오르는 그 짜고도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에 고여서 부질없이 넘어날 세라

어머니는 소스라쳐 머리를 흔드시고

어느새 조용한 눈길에
복讎하늘을 바라보고있다

수십년전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긴 복讎의 장한 아들들 생각하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남녘의 어머니,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이 마를새 없건만 남에게 눈물을 보일새라 머리를 흔드시는 그 강毅한 모습,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있는것인가, 시인은 열무김치를 담그는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한낱 회고로 대치하려 하지 않고 직접적인 시적묘사로 남녘에 계신 어머니는 언제나 조국통일 그날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이 간절한 숙원이 이룩되리라 는것 그리고 장한 아들들 꼭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毅한 의지로 살며 싸운다는 하많은 이야기를 집약시켜 노래하고있다.

따라서 향토미가 짙은 시인의 시작품들에 일관되어있는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은 우리 인민의 미풍양속과 고향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자연풍경을 노래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를 통하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더욱 절절히 승화시켜 그려내고 있는데서 그 특색을 찾아볼수 있다.

시집 《흙》에 실린 일련의 시편들은 언어형상, 운물조성, 시적기교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줄수 있다.

시뭍음 《흙》 편에 들어있는 송가 작품들인 《소식》과 《향도의 별님》 등은 이런 점에서 특색이 있는 작품들이다.

소식이 날아왔네
기쁜 소식 날아왔네
동지설달 꽃이 핀들
이보다야 더 기쁘랴
더덩실거리면서
춤이라도 추고싶네
(시 《소식》에서)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우리네 하늘에 향도성 떴네
그 태양 따라서 세상이 돌고
그 별님 따라서 새날이 밝네
...

저 별님 우리러 큰 절을 하면
백발의 로인도 되젊어지고
저 별님 우리러 큰 복을 치면
쓰러진 용사도 되살아나네

보면 볼수록 다정한 별빛
눈을 감아도 보이는 별빛

벗들이 보며는 새힘이 솟고
적들이 보며는 두눈이 머네
...

계명산천에 복소리 나더니
망망한 미래로 배 떠나간다
주체의 별님이 창공에 솟아
바다길 만리가 비단결 같구나

가세 가세나 어서들 가세
다정한 저 별님 따라만 가면
만첩청산도 키낫출하여
통일독립의 큰 길이 되네
(시 《향도의 별님》중에서)

우에 인용한 이 시구들만 보더라도 시의 언어문체는 쉬운말로 이루어져 있고 그 표현이 생신하여 생기에 넘칠뿐아니라 강한 음악성을 내포하고 있다.

4.4조 혹은 3.4조나 3.3.5조의 운물조성은 예로부터 민족시가에 제일 많이 쓰이던 고유한 음물박자로서 이 시편들에 잘 어울리게 무리없이 적용되고있다. 이 음물박자는 규칙성을 띠면서 류창하고 조화로운 흐름을 보장하여주고있다.

물론 현대서정시에서는 이러한 규칙적인 음물단위조성방법은 가사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씌여지지 않고있다. 그것은 소리마디의 수량과 색깔을 고려하여 시어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데 큰 힘을 돌리지 않고서는 자칫하면 글자수나 맞추고 시줄을 조절하는 식으로 될수 있으므로 약간한 실수를 하더라도 서술식문장을 끊어놓는 결과를 빚어내거나 시인의 뜨겁고 절절한 정서적협체제를 제약하는 작용을 놀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시인은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함을 절절하게 표현하면서도 반복과 대조, 비유와 같은 민족의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알기쉬운 우리 말을 위주로 하면서 고사성구를 능란하게 배합하여 규칙적인 운물을 조성함으로써 정제된 아름다운 운물을 타고 서정이 풍부하게 흘러가도록 하였다.

조화롭고 음악적인 활동과 귀에 익은 담담한 음향, 민족적인 특성이 깊이 배여있는 이러한 시들은 시인이 우리 민족시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해박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 형식을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정서와 구미에 맞게 탐구하고 창작에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잘 말하여준다.

시인은 고전문학전문가로서 수많은 시작품을 창작발표하였으나 그것을 널리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생활에서 소박하고 소탈하고 겸손하였다.

시인의 이런 진심과 그의 창작에 대하여 해아려주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7년 8월 어느날 남반부출신인 이 작가가 불치의 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친히 일군들에게 오랜기간 창작작업을 해온 그의 장례를 잘해주도록 하시고 묘도 국가장지에 쓰도록 배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지 못하시여 그는 중요한 책들을 낼 때마다 중요필자로 공로를 세운 작가라고 분에 넘

치는 치하의 말씀까지 주시였으며 그가 발표하지 못한 시작품들까지 한데 모아 시인으로서의 한생을 총화할수 있도록 시집《흙》을 출판하도록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그 크나큰 사랑의 빛발속에서 시인 김상훈은 시집《흙》을 비롯한 수많은 가치있는 저작들과 더불어 영생하는 정치적삶은 누릴수 있게 되었고 조국통일의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심장의 목소리로 민족의 의지, 세대의 양심을 뜨겁게 호소한 좋은

시들을 많이 남긴 공로있는 시인으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어찌 이러한 사실이 이 시인 한사람에게만 한한것이라.

하기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의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작가들보다 더 행복한 작가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것이다.

아름다운 처녀들

성민백

따스한 봄벌이
꽃잎을 어루만지는 화창한 봄날
로동적위대 훈련장
낮은 철조망앞에 지금 섰다.
비단짜는 직포공처녀들이

그리고 꽃을 사랑하고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꽃시절에
살아
직기우에서도 꽃을 꽃아놓는
그들이건만
봄꽃들이 웃음담고 길섶에 반겨도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아라

누가 말했던가
방직복 산뜻이 입고 직기사이
누빌때면
비단짜는 선녀들이라고
그 선녀들이 봄물오른 진흙밭을
낮은철조망밑을 서슴없이
기여가고있어라

한번 마주보면
마음조차 비단처럼 깨끗해는
그 시원한 눈매에 활활 타는 불을
담고
만약에 원쑤가 마주선다면
정녕 그 빛에 꺼렇게 타죽고말...

용서할수 없어...
용서할수 없어...
제손으로 이 땅우에 펼친
꽃물결우에
한점의 포연이라도 서리는것을
한점의 불먼지라도 날리는것을

노래가 가득차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도 누구 직기앞에 다가서면
수집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순진하고 야들한 가슴들에
지금 중오가 불담처럼
이글대고있거니

아, 비단실 고르던 그 고운손에
총탁판을 받쳐들고
중오의 그 눈빛으로 원쑤의
파격을 겨는 처녀들

자기가 가꾼 꽃물결을 지키기
위해
정다운 그 가슴에 불을 안고
아름다운 청춘도 다 바칠줄
아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그래서 더 노래하고싶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가꿀줄도
알고 지킬줄도 아는

우리의 누이들
우리의 애인들
우리의 비단짜는 처녀들이여라

발방아앞에서

김춘림

긴긴 세월
어이 이대로 두고있는가
휴양소의 샘물가 언덕기슭에
닿고 모지라진 발방아 하나

사람들 웃음높은 이곳에
발방아가 무슨 소용 있으랴만
고역의 머슴살이 말해주는듯
빼거덕- 쿵
귀전에 울려오는 발방아소리

좁쌀한말 지은빛 갯을길 없어

돌아간 엄마대신 대를 이어 머슴
살이
발방아 쫓다 끝내는 쓰러졌다는
어제날 소녀의 눈물겨운 원한소리

약한참 진빛에 한생 머슴살이
발끝에서 흐르던 검붉은 선지피
마를날 없었다는 그날의 신음소리...

아, 발방아는 멎어있어도
빼거덕- 쿵 메아리쳐오누나

세월은 흐르고
나이많은 세대마저 잊어버린 발방아

은혜로운 당의 손길 아니었다면
휴양소의 등산길 웬말인가
용해공의 저 어깨도 피멍든다고
방직공 나의 손도 터갈린다고
행복의 땅에서 속삭이는 발방아
잊지 말라 속삭이는
원한의 발방아

충정의 메아리

-신성천기관차대 《붉은기》 5091 호를 타고 -

허윤철

뽕 -

기적소리 울리며 신성천역구내로 《붉은기》 5091호 전기기관차가 서서히 달려와 멎는다.

우리가 기관사실에 로르니 기관사 김완목동무가 교대하는 기관사 리성현동무와 인계인수하는중이었다. 우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30년 가까이 기관사직무의 영예를 빛내며 공화국공민의 최고 영예인 로력영웅이 된 김완목기관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우리의 심정을 알겠다는듯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의 제6기 21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수송전사들은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 보낼 무연탄을 령대탄광에서 정량보다 더 초과하여 싣고 떠났답니다.》

그의 말은 기쁨에 넘쳐 있었다.

우리는 그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더 나누고싶었지만 렬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의 전진속도는 석탄, 전력, 강재 생산과 철도수송을 어떻게 빨리 추켜세우는가 하는데 주요하게 달려있습니다.》

기관차의 설비상태를 다시 확인한 기관사 리성현동무가 운전조종기를 잡으며 기관조사 리현찬동무와 맞받아부르기를 한다.

《떠남.》

《떠남.》

...

《뒤종음.》

《뒤종음.》

렬차는 서서히 역구내를 벗어나며 속도를 높여갔다. 올해에도 무사고정시운행의 맨앞장에서 변함없이 달려나가려는 그들의 굳은 결의가 그대로 온몸에 차고넘치는

듯했다. 렬차는 비루강의 기슭을 따라 달리다가 어느새 경사가 심한 굽인돌이 철길을 따라 힘겹게 달리기도 하다. 길고 짧은차굴들이 차창밖으로 안겨든다.

《차굴주의.》

《주의.》

《철다리주의.》

《주의.》

렬차는 기적을 울린다. 정다운 그 기적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적인 포격속에서도 전신수송을 원만히 보장한 영웅적철도일군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이 렬차의 주인들이 그 영웅기관사들과 무엇이 다르랴하는 생각이 든다.

달리는 렬차의 앞뒤를 수시로 감시하며 긴장하게 렬차를 돌아가는 기관사, 나타나는 차굴과 철다리, 굽인돌이들, 기적을 울려가는 기관조사,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용감한 전투원들 모습그대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있는 교통운수부문 모범일군회의에서 적기의 가혹한 폭격속에서도 우리의 용감한 기관사들이 울린 기관차의 기적소리는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승리로 고무하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방의 우리 인민들은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들어야 잠도 자조 일에서도 수백배의 힘을 냈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중요회의를 지도하실 때마다 기관사는 철도의 핵심이며 그들은 철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대우도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정녕 그 뜨거운 믿음과 은정속에 살며 일하는 우리의 기관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급한 경사의 철길구간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한 굽인돌이들과 깎아지른 바위들이 마주선다.

《락석개소 주의.》

《주의.》

락석개소와 감시원을 살피는 승무원들, 울리막구간에 들어서자 계기를 주의깊게 살피며 운전조종기를 최대한 돌리는 기관사, 앞뒤를 주의깊게 살피며 모래뿌림장치를 동작시키는 기관조사, 기관사는 앞에 놓여있는 회중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운전조종기를 더욱 긴장하게 움직인다.

단정하게 둘러쓴 그들의 동글모 자체양밑에서 샘솟듯 흘러내리는 땀방울... 렬차는 서서히 이선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차청년역에 들어선다.

기관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회중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정시다. 오늘도 무사고정시로 견인초과하였다는 공지로 하여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뛰었다.

역구내방송에서는 가요 《젊은 기관사》의 노래가 장중한 선율로 울린다.

노을비긴 철길우에 젊은 기관사 기적소리 울리며 기차를 몰았네
포연을 헤쳐온 용감한 그 젊은

이

준엄한 나날에도 굴하지 않았네

...

피어린 천리길 만리를 간다 해
도
수령님께 바친 맹세 지키여 싸
우리

눈이 오나 찬바람부나 오직 두 줄기궤도우에서 수송전사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이들.

《정시출발.》

《정시출발.》

렬차는 또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뽕 -

기적소리 울려간다. 충정의 메아리가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간다.